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794-10

2022년도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용역보고서

# 2022년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794-10

2022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 2022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 2022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2022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2. 11.

수행기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본 보고서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을 기초로 한 연구진의 의견입니다.

# 목 차

01. 2022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LENS 총괄보고 .....	1
1. 사업개요 .....	3
2. 세부사업 추진내용 .....	5
02. 사이버 상에서 아동은 안전한가? : 설문조사 결과 .....	15
- 참조1. 사이버 폭력 현황 설문지(폐쇄형) .....	70
- 참조2. 사이버 폭력 현황 설문지(개방형) .....	90
03. 권역별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	93
- 경기1권역 .....	95
- 경기2권역 .....	103
- 서울1권역 .....	116
- 서울2권역 .....	120
- 서울3권역 .....	125
- 강원권역 .....	131
- 충북권역 .....	138
- 충남1권역 .....	148
- 충남2권역 .....	152
- 전북권역 .....	156
- 전남권역 .....	168
- 경북1권역 .....	178
- 경북2권역 .....	186
- 경남권역 .....	190
- 제주1권역 .....	196
- 제주2권역 .....	205
- 캠프스쿨권역 .....	215

04. 제언 .....	225
05. 부록 .....	233
- 모니터링단 월별 활동보고서 우수사례 .....	235

---

# 01

---

---

## 2022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LENS 총괄보고

---



## 사업의 개요

### 1) 사업목적

- 아동의 권리 주체성을 강화함을 바탕으로, 인권 의식을 함양한 민주적 세 계시민을 양성한다.
- 아동권리협약(CRC) 및 UN아동권리위원회의 제5·6차 최종권해에 입각한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권리주체인 아동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지역 사회적·국가적 아동권리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한국의 아동권리가 세 계적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2) 사업기간

- 2022.06.03.~2022.11.30. (6개월)

### 3) 참여대상 및 활동지역

- 참여대상 : 만10세 이상 18세 미만 전국의 모든 아동
- 활동지역 :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 4) 모니터링 주제

- 공통주제 : 사이버(온라인)상에서 아동이 마주하는 폭력
- 권역주제 : 권역별 선정

### 5) 아동인권 모니터링단 ‘LENS(Lens of children)’

- 아동들에게 모니터링 활동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홍보하고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LENS’라는 별칭 사용
- 권리의 주체인 아동의 관점(Lens)으로부터 출발
- 능동적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

## 6) 수행 내역

일정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세부추진내용
6월~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계획 및 자료 제작</li> <li>● 자문팀 구성 및 회의진행</li> <li>● <b>LENS 모집 및 선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 및 모집 : 6.17(금)~7.26(화)</li> <li>- 선정결과 : 8.1(월)</li> </ul> </li> <li>● <b>코디네이터 모집 및 선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 및 모집 : 6.20(월)~7.15(금)</li> <li>- 선정결과 : 7.18(월)</li> </ul> </li> <li>● <b>공통주제 체크리스트 개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문회의: 7.18(월)</li> </ul> </li> </ul>	<p>[홍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원단체 및 유관기관, 각 지역 시도교육청, 전국 아동친화도시</li> <li>-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홈페이지 및 SNS 홍보 (웹포스터, 카드뉴스)</li> </ul> <p>[모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아협, 인권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li> <li>-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li> </ul>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코디네이터 오리엔테이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20(수) 10:30~16:30</li> <li>- 서울시민청 지하2층 워크숍룸</li> </ul> </li> </ul>	<p>[사업소개 및 활동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니터링 사업 소개 및 코디네이터 역할</li> </ul> <p>[모니터링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디네이터 사례발표</li> </ul> <p>[아동인권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인권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해</li> </ul> <p>[공통주제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디네이터 대상 공통주제 이해 교육</li> </ul>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모니터링단 LENS 발대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13(토) 13:00~16:30</li> <li>- 온라인(ZOOM) 진행</li> </ul> </li> </ul>	<p>[아동인권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 중고등 대상 맞춤형 아동인권교육 진행</li> </ul> <p>[활동방법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ENS 활동방법 및 보고서 양식 안내 등</li> </ul> <p>[권역별 주제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역별 세부주제 논의 모니터링 활동계획 수립</li> </ul>
9월~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별도 발대식 및 교육</b></li> <li>● <b>권역별 모니터링 활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16(월)~10.31(월)</li> <li>- 모니터링 활동(2~3개월)</li> </ul> </li> <li>● <b>공통주제 설문조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13(화)~10.26(수)</li> </ul> </li> </ul>	<p>[권역 발대식 및 교육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LENS, 캔틴스쿨, 경북LENS 아동인권교육</li> </ul> <p>[모니터링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역별 세부주제 모니터링 활동</li> <li>- 공통주제 설문조사</li> <li>- 전국 아동청소년 1,134명 대상으로 설문조사</li> </ul>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인권 보고대회(11월)</li> <li>● 최종 사업결과보고서 제작</li> </ul>	<p>[아동인권 보고대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역별 모니터링 활동결과 발표</li> </ul> <p>[결과보고서 제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과보고서 제작</li> </ul>

# 세부사업 추진내용

## 1) 모니터링단 모집 및 선발

- 모집기간 : 2022. 06. 17.(금) ~ 07. 26.(화) 24시까지
- 심 사 : 2022. 07. 27.(수) ~ 07. 29.(목)
- 결과발표 : 2022. 08. 01(월) 개별 안내문자 발송
- 선정결과 : 총 139명(일반아동, 아동친화도시 참여위원회, 건강취약아동 등 포함)

권역	경기 1	경기 2	서울 1	서울 2	서울 3	강원	충북	충남 1	충남 2	전북	전남	경북 1	경북 2	경남	제주 1	제주 2	전국 (건강 취약)	합계
모집	3	4	8	9	8	9	8	19	5	16	6	10	3	8	7	10	6	139 (명)

## 2) 코디네이터 운영

### 2-1) 코디네이터 모집 및 선발

- 모집기간 : 2022. 06. 20(월) ~ 07.15(금) 24시까지
  - 결과발표 : 2022. 07. 18(월) 개별연락
  - 선정결과 : 총 15명
- ※ 회원단체 지역 실무자, 아동인권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 교사, Lens 유경험자 포함

### 2-2) 코디네이터 오리엔테이션

- 일시 및 장소 : 2022. 07. 20(수) 10:30~16:30, 서울시민청 지하2층 워크숍룸
- 인원 : 총 20명(코디네이터 14명, 강사 2명, 실무자 외 4명)

- 내용 : 기관 및 사업 소개, 아동인권교육 및 사례발표, 공통주제교육, 주제교육
- 프로그램

시 간	진행내용
10:00~10:20	참여자 확인
10:30~11:00	기관소개 / 사업소개 및 활동방법 안내
11:00~11:30	모니터링 사례발표 I, II
11:30~12:30	아동인권교육 I
12:30~14:00	점심식사
14:00~15:00	아동인권교육 II
15:10~16:00	주제교육 / 사이버상에서 아동이 마주하는 폭력
16:00~16:30	서식에 대한 안내 & 질의응답 및 마무리

- 오리엔테이션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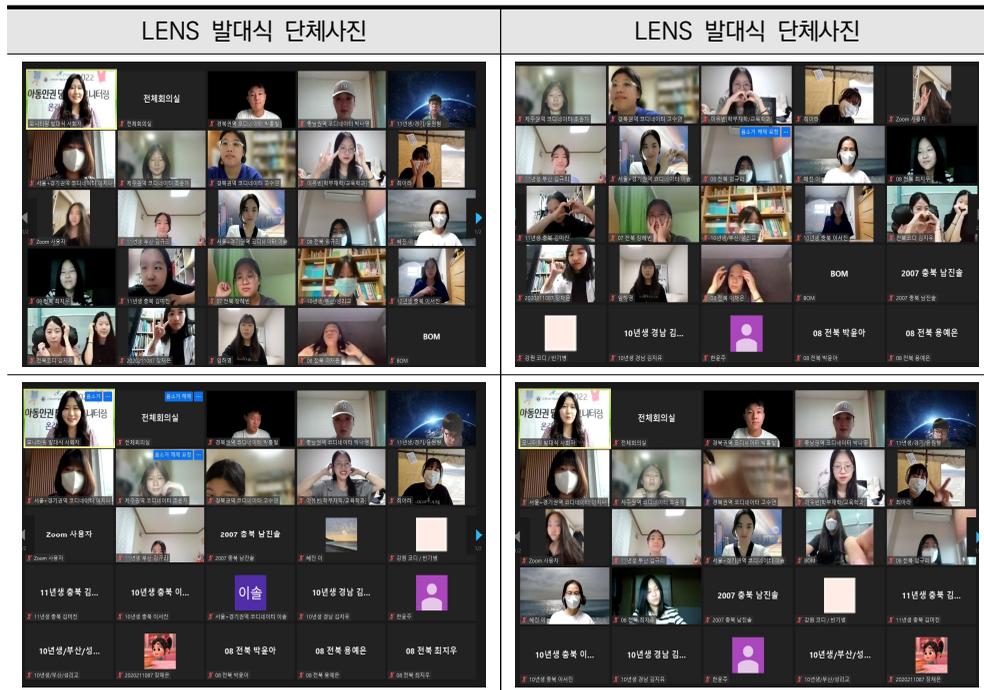


### 3) 모니터링단(LENS) 발대식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22. 08. 13(토) 13:00~16:30, 온라인(ZOOM)
- 참석 : 총 107명(아동 89명, 코디네이터 13명, 강사 2명, 실무자 3명)
- 프로그램

구분	시간	세부내용
참여자 확인	13:00~13:10	■ 권역별 아동 확인(코디네이터 담당)
개회	13:10~13:25	■ 인사말 / 오준 회장(한국아동단체협의회)
기관 및 사업소개	13:25~13:35	■ 기관 및 사업소개 / 김수민(한국아동단체협의회)
LENS 위촉식 및 참여자 확인	13:35~13:55	■ 위촉장 우편발송 안내 / 코디별로 참여아동 확인
아동권리교육	14:00~15:00	■ 초등 / 박재준 연구원(CRC lab) ■ 중고등 / 윤석빈 부소장(CRC lab)
권역별 토의 및 폐회	15:00~16:10	■ 권역별 주제 설정 및 활동계획 논의
정리 및 코디네이터 회의	16:10~16:30	■ 권역별 주제 확인 및 공유

- 발대식 사진



#### 4) 권역 발대식 및 교육 진행

##### (1) 경북(구미) 발대식 및 교육

- 일시 및 장소 : 2022. 09. 03(토) 13:00~16:00,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연수관 대강의실
- 참석 : 총 18명(아동 13명, 코디네이터 2명, 강사 1명, 실무자 2명)
- 프로그램

구분	시간	세부내용
개회 및 인사말	13:00~13:15	▪ 개회 및 인사
위촉장 수여	13:15~13:25	▪ 위촉장 수여
아동권리교육 안내	13:25~13:30	▪ 아동권리교육 안내 및 강사 소개
아동권리교육	13:30~14:20	▪ 아동권리교육 / 박재준 연구원 (CRC lab)
기관 및 사업소개	14:20~14:40	▪ 기관 및 사업소개 / 김수민 모니터링 담당자
휴식 시간	14:40~15:00	▪ 휴식 시간
권역별 토의 및 폐회	15:00~16:00	▪ 권역별 주제 설정 및 활동 계획 논의

##### (2) 서울(염리초) 발대식 및 교육

###### - 1차

- 일시 및 장소 : 2022. 09. 15(목), 염리초등학교
- 참석 : 총 31명(아동 25명, 코디네이터 3명, 강사 1명, 실무자 2명)
- 내용 : 인권, 아동인권, 아동권리협약 교육

###### - 2차

- 일시 및 장소 : 2022. 09. 27(화), 염리초등학교
- 참석 : 총 31명(아동 25명, 코디네이터 3명, 강사 1명, 실무자 2명)
- 내용 : 공통주제 강의 및 모니터링 활동 안내, 1차 회의(주제정하기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 3차

- 일시 및 장소 : 2022.10. 07(금), 염리초등학교
- 참석 : 총 31명(아동 25명, 코디네이터 3명, 강사 1명, 실무자 2명)
- 내용 : 2차 회의(모니터링 활동 발표 및 조언), 공통주제 설문 실시

- 4차

- 일시 및 장소 : 2022. 11. 01(화), 염리초등학교
- 참석 : 총 31명(아동 25명, 코디네이터 3명, 강사 1명, 실무자 2명)
- 내용 : 3차 회의(모니터링 활동 결과 발표)

(3) 캠프스쿨 발대식 및 교육

- 1차

- 일시 및 장소 : 2022. 09. 21(수), 온라인(ZOOM)
- 참석 : 총 9명(아동 6명, 코디네이터 1명, 강사 1명, 실무자 1명)
- 내용 : 인권, 아동인권 교육, 1차 회의(주제 선정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 2차

- 일시 및 장소 : 2022. 10. 05(수), 캠프스쿨
- 참석 : 총 9명(아동 6명, 코디네이터 1명, 강사 1명, 실무자 1명)
- 내용 : 아동인권 교육, 2차 회의(주제 관련 조사 등)

• 활동사진



## 5) 권역별 모니터링 활동

- 기간 : 2022. 08. 16.(화) ~ 2022. 10. 31.(월)
- 권역별 주제

권역	주제
경기	경기1 선거연령 하향을 통한 아동 참정권 및 인권보장
	경기2 학교밖청소년 문제의 인식 실태 및 현황과 지원방법
서울	서울1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서울2 초등학교의 학업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인가?
	서울3 급식실 내 대화규칙
강원	온·오프라인 아동 공공이용시설(도서관, 청소년시설 등) 및 사이트(게임, 카페 등)의 유해환경 조사
충북	학생 맞춤형 탄력적인 교육이 아닌 강제적인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 겪는 피해
충남	충남1 청소년 전용버스노선 마련과 학교 공간의 재구성 관련 제안
	충남2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전북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학대의 종류를 예시를 들어서 아동과 시민에게 알리는 활동
전남	아동들이 지역(동네)에서 보내는 생활환경은 안전한지 알아보고 아동과 시민에게 알리는 활동
경북	경북1 자유학기제도 개선의 필요성
	경북2 청소년 알바의 현실과 실태
경남	미성년자 유해 사이트 노출에 대한 규제
제주	제주1 SNS가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 SNS상의 언어사용 문제
	제주2 아동의 자아 구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방안
캐년스쿨	건강 장애아동이 학교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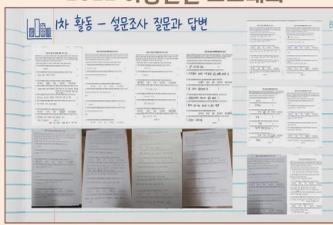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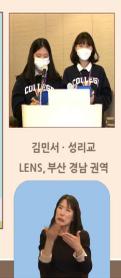
## 6) 모니터링 결과발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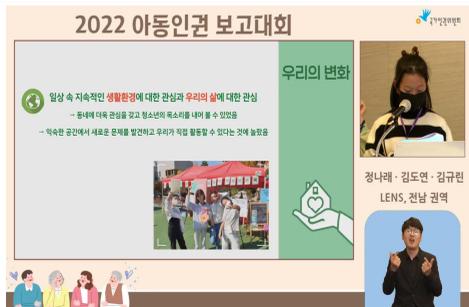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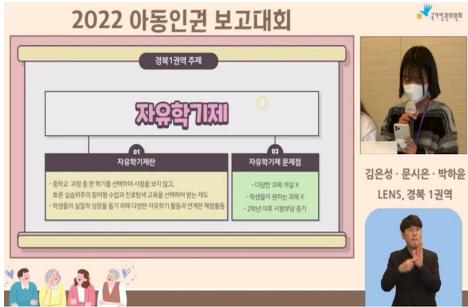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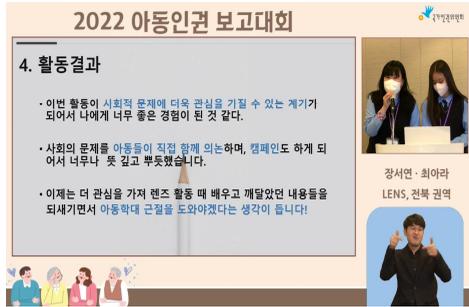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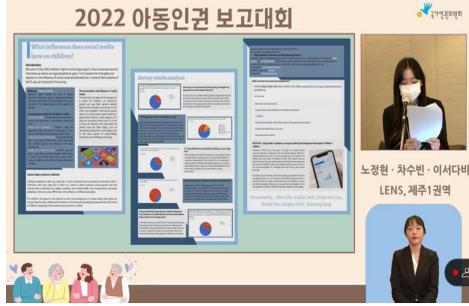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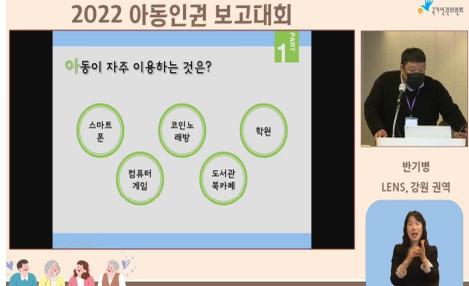
- 일시: 2022. 11. 28(월) 13:30~17:00
- 장소: 로얄호텔서울 3층 Grand Ballroom 홀
- 참석자: 총 63명
  - 모니터링단(LENS) 41명, 코디 8명, 인솔자 4명, 연구자 1명, 좌장 1명, 토론자 3명, 실무자 5명
- 프로그램

구분	시간	세부내용
개회식	13:30~14:00	개회사 / 송두환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축사 / 오준 회장(한국아동단체협의회) 기념촬영
활동소개	14:00~14:15	활동 소개 / 김수민(한국아동단체협의회) 활동 영상
공통주제 발표	14:15~14:45	공통주제 발표 / 강지영 교수(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 사이버 상에서 아동·청소년이 마주하는 폭력 -
공통주제 토론	14:50~15:20	좌장 : 윤석빈 부소장(한국아동단체협의회 CRC Lab) 공통주제 토론 / 김봉섭 연구위원(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박주한 교육본부장(푸른나무재단) / 유희주 아동(용인백현중학교 3학년)
권역별 사례발표	15:20~17:05	모니터링단(LENS) 권역별 사례발표 경기2 / 백재희, 윤원형 경남 / 김민서, 성리교 서울1,2,3 / 염리초 5학년 1반 전남 / 김규린, 김도연, 정나래 경북1 / 김은성, 문시은, 박하윤 전북 / 장서연, 최아라 충북 / 김미진, 안지상, 이서진 제주1 / 노정현, 이서다비, 차수빈 제주2 / 김건이, 김해인, 신체윤 강원 / 반기병(코디네이터)

※ 점심식사(11:20~12:30) 및 참여아동 행사리허설(12:30~13:20) 진행

• 현장사진

<p style="text-align: center;"><b>단체사진</b></p> 	<p style="text-align: center;"><b>주제 발표</b></p> <p style="text-align: center;"><b>2022 아동인권 보고대회</b></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조사개요</p> <p>▶ 목적: 사이버폭력에 관련된 아동의 경험 및 인식 조사</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p><b>양적자료 수집</b></p> <p>확대형 질문으로 구성된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조사</p> <p>전국의 아동청소년</p> <p>1,134명</p> </td> <td style="width: 50%;"> <p><b>질적자료 수집</b></p> <p>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된 자기기입식 (서면) 설문조사</p> <p>권역별 모니터링 당사자 아동</p> <p>10개 권역(A~J) 77명</p> <p>2022년 9월 중순~10월 중순</p> </td> </tr> </table> </div> 	<p><b>양적자료 수집</b></p> <p>확대형 질문으로 구성된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조사</p> <p>전국의 아동청소년</p> <p>1,134명</p>	<p><b>질적자료 수집</b></p> <p>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된 자기기입식 (서면) 설문조사</p> <p>권역별 모니터링 당사자 아동</p> <p>10개 권역(A~J) 77명</p> <p>2022년 9월 중순~10월 중순</p>																			
<p><b>양적자료 수집</b></p> <p>확대형 질문으로 구성된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조사</p> <p>전국의 아동청소년</p> <p>1,134명</p>	<p><b>질적자료 수집</b></p> <p>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된 자기기입식 (서면) 설문조사</p> <p>권역별 모니터링 당사자 아동</p> <p>10개 권역(A~J) 77명</p> <p>2022년 9월 중순~10월 중순</p>																					
<p style="text-align: center;"><b>주제토론</b></p> 	<p style="text-align: center;"><b>경기2 발표</b></p> <p style="text-align: center;"><b>2022 아동인권 보고대회</b></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차 활동 - 설문조사 질문과 답변</p>  </div> 																					
<p style="text-align: center;"><b>경남 발표</b></p> <p style="text-align: center;"><b>2022 아동인권 보고대회</b></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설문조사 6. 주변에 유해사이트를 정해본 친구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입니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유해사이트를 정한 친구 수</th> <th>유해사이트를 정한 친구 수</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없음</td> <td>17</td> <td>44.7%</td> </tr> <tr> <td>1명</td> <td>13</td> <td>34.2%</td> </tr> <tr> <td>2-3명</td> <td>5</td> <td>13.2%</td> </tr> <tr> <td>4-5명</td> <td>0</td> <td>0%</td> </tr> <tr> <td>6-10명</td> <td>1</td> <td>2.6%</td> </tr> <tr> <td>10명 이상</td> <td>2</td> <td>5.3%</td> </tr> </tbody> </table> </div> 	유해사이트를 정한 친구 수	유해사이트를 정한 친구 수	비율	없음	17	44.7%	1명	13	34.2%	2-3명	5	13.2%	4-5명	0	0%	6-10명	1	2.6%	10명 이상	2	5.3%	<p style="text-align: center;"><b>서울1 발표</b></p> 
유해사이트를 정한 친구 수	유해사이트를 정한 친구 수	비율																				
없음	17	44.7%																				
1명	13	34.2%																				
2-3명	5	13.2%																				
4-5명	0	0%																				
6-10명	1	2.6%																				
10명 이상	2	5.3%																				
<p style="text-align: center;"><b>서울2 발표</b></p> 	<p style="text-align: center;"><b>서울3 발표</b></p> 																					

<p style="text-align: center;"><b>서울(종합) 발표</b></p>  <p>2022 아동인권 보고대회</p> <p>300여   장소   코엑스호텔 그랜드 홀   주최   한국아동인권센터</p>	<p style="text-align: center;"><b>전남 발표</b></p> <p style="text-align: center;"><b>2022 아동인권 보고대회</b></p>  <p>3. 일상 속 지속적인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과 우리의 삶에 대한 관심 - 함께 더욱 관심을 갖고 청소년의 목소리를 내어 볼 수 있었음 - 익숙한 공간에서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우리가 직접 활동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랐음</p> <p>우리의 변화</p> <p>정나래 · 김도연 · 김규원 LENS, 전남 권역</p>
<p style="text-align: center;"><b>경북1 발표</b></p> <p style="text-align: center;"><b>2022 아동인권 보고대회</b></p>  <p>경북1권역 주제</p> <p><b>자유학기제</b></p> <p>자유학기제란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를 선택하여 새로운 과목을 배우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교류하며, 다양한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제도</p> <p>자유학기제 문제점 - 다양한 교육 계열사 -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 - 2학년 이후 시행방안 등?</p> <p>김은성 · 문시은 · 박하운 LENS, 경북 1권역</p>	<p style="text-align: center;"><b>전북 발표</b></p> <p style="text-align: center;"><b>2022 아동인권 보고대회</b></p>  <p>4. 활동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번 활동이 사회적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나에게 너무 좋은 경험이 된 것 같다.</li> <li>사회의 문제를 아동들이 직접 함께 의논하며, 캠페인도 하게 되어서 너무나 뜻 깊고 뿌듯했습니다.</li> <li>이제는 더 관심을 가져 펜즈 활동 때 배우고 깨달았던 내용들을 되새기면서 아동학대 근절을 도모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li> </ul> <p>장서연 · 최아라 LENS, 전북 권역</p>
<p style="text-align: center;"><b>충북 발표</b></p> <p style="text-align: center;"><b>2022 아동인권 보고대회</b></p>  <p>9월 활동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태버 대상 7시간, 일반 인원수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같은 학교 친구들</li> <li>- 기간: 10월 23일 전까지</li> <li>- 방법: 각 학교에서 1:1 대면으로 진행</li> <li>- 인원수: 1인당 5명씩</li> </ul> </li> <li>인태버 질문 설명</li> </ol> <p>안지상 · 김미진 · 이서진 LENS, 충북 권역</p>	<p style="text-align: center;"><b>제주1 발표</b></p> <p style="text-align: center;"><b>2022 아동인권 보고대회</b></p>  <p>What influences does social media have on children?</p> <p>영양 정보 제공 - 다양한 정보 제공 - SNS를 통한 친구와의 소통 - SNS를 통한 친구와의 소통</p> <p>노정원 · 차수빈 · 이서다비 LENS, 제주1권역</p>
<p style="text-align: center;"><b>제주2 발표</b></p> <p style="text-align: center;"><b>2022 아동인권 보고대회</b></p>  <p>앞으로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p> <p>김해연 · 김건이 · 신채운 LENS, 제주2권역</p>	<p style="text-align: center;"><b>강원 발표</b></p> <p style="text-align: center;"><b>2022 아동인권 보고대회</b></p>  <p>1. 아동이 자주 이용하는 것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마트 폰</li> <li>컴퓨터 게임</li> <li>표인노래방</li> <li>도서관 북카페</li> <li>학원</li> </ul> <p>반기명 LENS, 강원 권역</p>

---

## 02

---

### 사이버상에서 아동은 안전한가?: 설문조사 결과

---



## 설문조사 결과

### 사이버 상에서 아동은 안전한가?

#### 1. 조사개요

##### 1) 조사 목적 및 방법

본 설문조사는 2022년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의 공통주제인 ‘사이버 폭력’에 대한 아동의 경험 실태를 이해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사이버폭력의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아동들이 어떤 유형의 사이버폭력을 어떤 사이버 공간에서 경험하는지 조사하고자 했으며 이에 더하여, 아동들의 인터넷 이용 행동과 예방교육 경험 및 아동들이 생각하는 사이버폭력의 원인 및 대책에 대한 의견 등을 수집하였다.

설문은 양적자료 수집과 질적자료 수집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양적 자료는 총 39개의 폐쇄형 질문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온라인 설문을 아동이 설문 링크에 접속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는 방법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질적 자료는 총 2개의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된 서면 질문지에 아동이 답변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한 설문조사는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 실시되었다.

양적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은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각 권역별 모니터링 당사자인 아동(LENS) 및 아동단체의 협조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여 설문링크를 배부하여 진행하였다. 질적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은 모니터링 당사자인 아동(LENS)이 본인 및 주변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여 질문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양적자료 설문에는 총 1,134명이 응답하였고, 질적자료 설문에는 총 10개 권역, 77명의 아동이 참여하였다.

양적자료 분석은 빈도, 평균, 표준편차 등의 일원분석 기술통계를 비롯하여 교

차분식, t-test 등 이원분석이 활용되었다. 질적자료 분석은 여러 번 언급되거나 의미 있는 부분을 추출하여 의미 단위를 구성하고, 서로 연관 있는 의미 단위를 묶어 범주를 구성한 후, 범주를 아우를 수 있는 주제를 도출하였다.

### 〈조사개요〉

조사 대상	조사 인원	조사 방법	조사 기간
전국의 아동청소년	1,134명	폐쇄형 질문으로 구성된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조사	2022년 9월 중순~10월 중순
권역별 모니터링 당사자 아동(LENS)	10개 권역(A~J) 77명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된 자기기입식 (서면) 설문조사	2022년 9월 중순~10월 중순

## 2. 양적 설문조사 결과

### 1) 설문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참여자의 지역분포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경기도가 23.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상도(16.1%), 전라도(13.8%), 제주특별자치도(12.4%), 서울특별시(10.1%)의 순이었다. 나머지 지역들은 5%이하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표 1〉 지역별 응답 현황

거주지역	명	%
강원도	44	3.9
경기도	268	23.6
경상도	183	16.1
전라도	156	13.8
제주특별자치도	140	12.4
충청도	57	5.0
광주광역시	30	2.7
대구광역시	20	1.8
대전광역시	14	1.2
부산광역시	33	2.9
서울특별시	115	10.1
세종특별자치시	1	0.1
울산광역시	50	4.4
인천광역시	23	2.0
총계	1134	100

기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자의 비율(66.0%)이 남자(34.0%)보다 2배 가량 많았으며, 학교급에서는 중학생이 40.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고등학생(35.5%)이 많았으며, 초등학생(23%)이 비율이 가장 낮았다. 가족구조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양부모 가정으로 응답하였으며(87.0%), 한부모 및 조손가정이 약 10% 가량을 차지하였다.

〈표 2〉 기타 인구사회학적 특성

	항목	빈도(명)	비율(%)	
성별	여자	748	66.0	
	남자	386	34.0	
학년	초4	32	2.8	
	초5	109	9.7	
	초6	109	9.7	
	무응답	11	0.8	
	소계	261	23.0	
	중1	104	9.2	
	중2	285	25.3	
	중3	71	6.31	
	무응답	2	0.0	
	소계	462	40.7	
	고1	284	25.2	
	고2	87	7.7	
	고3	30	2.7	
	무응답	1	0.0	
	소계	403	35.5	
	대안학교	4	0.4	
	학교에 다니지 않음	4	0.4	
	가족형태	양부모 가정	986	87.0
		한부모가정	107	9.4
조손가정		27	2.4	
형제자매끼리 거주		2	0.2	
기타		12	1.0	
합계		1,134	100	

## 2) 부모, 친구관계 및 인터넷 이용 특성

응답자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90% 이상이 관심과 준중의 태도를 보여주신다고 응답하였고 평균점수로 환산하여 성별이 학교급의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부모와의 관계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그렇다(3)	매우 그렇다(4)	
	명(%)				
1) 부모님(보호자)은 내 일은 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격려해 주신다	13(1.2)	51(4.5)	525(46.3)	545(48.1)	
2)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관심 있게 물어보신다	17(1.5)	100(8.8)	481(42.4)	536(47.3)	
3) 부모님(보호자)은 사소한 것도 여쭙보면 잘 듣고 응답해 주신다	15(1.3)	79(7.0)	518(45.7)	522(46.0)	
평균(표준편차)					
전체	여	남	초	중	고
3.4(0.6)	3.5(0.6)	3.4(0.6)	3.4(0.5)	3.4(0.6)	3.4(0.5)

친구 관계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90% 이상이 서로 존중하고 의견을 경청한다고 하였으며, 70%가 고민과 문제를 솔직히 털어놓는다고 하였다. 평균점수로 환산하여 성별이 학교급의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친구와의 관계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그렇다(3)	매우 그렇다(4)	
	명(%)				
1) 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서로 생각이 달라도 존중해 준다	15(1.3)	68(6.0)	631(55.6)	420(37.0)	
2)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들어 준다	17(1.5)	45(4.0)	636(56.1)	436(38.5)	
3) 나는 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를 솔직하게 털어 놓는다	89(7.9)	250(22.1)	476(42.0)	319(28.1)	
평균(표준편차)					
전체	여	남	초	중	고
3.2(0.6)	3.2(0.6)	3.2(0.6)	3.2(0.6)	3.1(0.6)	3.2(0.6)

인터넷 이용 시간에 대한 질문에서 평일에는 약 50%가량이(21.9+26.9) 1시간에서 3시간 미만으로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고 4시간 이상은 약 20%(10.9+11.6)가 응답하였다. 여자와 남자의 평일 인터넷 사용시간에 대한 응답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여자가 평일에 인터넷을 3시간 이상 사용하는 비율이 남자보다 높았다. 여자아동이 남자아동들보다 평일 인터넷 사용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교급이 높을수록 4시간 이상의 장시간 사용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주말 및 공휴일에는 4시간 이상 사용한다는 응답이 약 50%(16.3+34)로 평일에 비해 이용 시간이 크게 늘어났고 여전히 여자아동이 남자아동에 비해 4시간 이상 장시간 이용하는 비율이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도 평일이용시간과 마찬가지로 4시간 이상의 장시간 사용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표 5〉 평일과 주말/방학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하루 평균 시간

단위: %(명)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미만	2시간~3시간 미만	3시간~4시간 미만	4시간~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평일(월~금)	12.4% (141명)	21.9 (258)	26.9 (305)	16.4 (186)	10.9 (123)	11.6 (131)	
여	10.2 (76)	19.9 (149)	25.9 (194)	18.6 (139)	12.6 (94)	12.8 (96)	p<.001
남	16.8 (65)	25.7 (99)	28.8 (111)	12.2 (47)	7.6 (29)	9.1 (35)	
초	29.1 (76)	28.0 (73)	20.7 (54)	11.9 (31)	5.4 (14)	5.0 (13)	p<.001
중	8.0 (37)	21.9 (101)	26.2 (121)	20.4 (94)	11.5 (53)	12.1 (56)	
고	6.7 (27)	18.1 (73)	31.8 (128)	14.9 (60)	13.4 (54)	15.1 (61)	
주말(토, 일) 및 방학	46 (4.1)	109 (9.7)	169 (14.9)	239 (21.1)	185 (16.3)	386 (34.0)	
여	2.4 (18)	9.1 (68)	14.7 (110)	20.3 (152)	16.8 (126)	36.6 (274)	p<.001
남	7.3 (28)	10.6 (41)	15.3 (59)	22.5 (87)	15.3 (59)	29.0 (112)	
초	10.7 (28)	22.6 (59)	19.5 (51)	21.5 (56)	9.2 (24)	16.5 (43)	p<.001
중	2.0 (9)	7.4 (34)	14.5 (67)	20.4 (94)	16.2 (75)	39.6 (39.6)	
고	2.0 (8)	4.0 (16)	12.7 (51)	21.1 (85)	21.1 (85)	39.2 (158)	

인터넷 이용시간과 부모 및 친구 관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와의 관계와 인터넷 이용시간 사이에 관계가 중학생 및 고등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 친구와의 관계와 인터넷 이용시간 사이의 관계가 초등학생 및 고등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여자아동에 비해 남자아동에게 친구관계와 인터넷 이용시간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부모 및 친구관계와 인터넷 이용시간의 상관계수

		평일 인터넷 이용시간	주말 및 휴일 인터넷 이용시간
전체	부모와의 관계	-0.14***	-0.13***
	친구와의 관계	-0.09**	-0.12***
초	부모와의 관계	-0.25***	-0.25***
	친구와의 관계	-0.1	-0.13*
중	부모와의 관계	-0.01**	-0.01*
	친구와의 관계	-0.10*	-0.16***
고	부모와의 관계	-0.05	-0.06
	친구와의 관계	-0.06	-0.08
여	부모와의 관계	-0.15***	-0.14***
	친구와의 관계	-0.06	-0.07
남	부모와의 관계	-0.14**	-0.13*
	친구와의 관계	-0.13*	-0.20***

\*\*\*p<.001, \*\*p<.01, \*p<.05

〈표 7〉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어떤 서비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 물었을 때, 1순위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것은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틱톡 등)였고, 2순위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것은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에스크 등), 3순위로는 온라인 게임이었다. 〈표 8〉에서 학교급별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으나, 초등학생의 경우, 3순위에 메타버스가 함께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았을 때, 여자아동은 전체 결과와 유사하였으나, 남자아동은 온라인게임,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에스크 등),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틱톡 등)의 순서로 많이 이용한다고 답하여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 7〉 인터넷 이용 서비스

단위: %(명)

	1순위	2순위	3순위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에스크 등)	23.5 (266)	<b>48.2</b> <b>(546)</b>	21.3 (241)
커뮤니티 동호회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클럽 등)	1.6 (18)	5.2 (59)	12.8 (145)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틱톡 등)	<b>57.3</b> <b>(650)</b>	25.8 (293)	8.8 (100)
메타버스(제페토, 로블록스, 이프랜드 등) 플랫폼	2.9 (33)	3.9 (44)	9.2 (104)
개인 홈페이지	0.1 (1)	0.6 (7)	4.3 (49)
이메일	1.9 (22)	2.8 (32)	10.4 (118)
온라인 게임	12.7 (144)	13.5 (153)	<b>33.3</b> <b>(377)</b>

〈표 8〉 학교급별 및 성별 인터넷 이용 서비스 순위

		서비스 종류	%(명)
초	1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틱톡 등)	33.0(86)
	2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에스크 등)	32.6(85)
	3	메타버스(제페토, 로블록스, 이프랜드 등) 플랫폼	20.7(54)
		온라인 게임	20.7(54)
중	1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틱톡 등)	63.4(293)
	2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에스크 등)	50.4(233)
	3	온라인 게임	33.4(168)
고	1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틱톡 등)	66.3(267)
	2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에스크 등)	55.3(225)
	3	온라인 게임	38.0(153)
여	1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틱톡 등)	66.8(500)
	2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에스크 등)	58.0(434)
	3	온라인 게임	39.8(298)
남	1	온라인 게임	89.6(116)
	2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틱톡 등)	31.4(121)
	3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에스크 등)	37.8(146)

인터넷에서의 위험행동의 종류에 따른 빈도를 살펴보았을 때,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거나 연락하는 비율이 22.8%로 다른 위험행동과 비교하여 가장 높았고 개인정보 공개(11.8%), 모르는 사람을 친구목록에 추가(17.2%)가 그 뒤를 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중,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에 비해 전반적으로 위험행동의 빈도가 높았으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마찬가지로 위험행동 빈도가 높았다.

〈표 9〉 인터넷에서의 위험행동

%(명)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그렇다(3)	매우 그렇다(4)
1) 나는 개인정보(이름, 학교, 연락처, 주소 등)를 온라인에 공개한다	54.1 (613)	34.1 (387)	10.2 (116)	1.6 (18)
2) 나는 모르는 사람과 온라인에서 대화나 연락한다	54.0 (612)	23.3 (264)	20.2 (229)	2.6 (29)
3) 나는 모르는 사람을 친구목록에 추가한다	58.5 (663)	24.3 (276)	15.8 (179)	1.4 (16)
4) 나는 온라인에서 만난 낯선 사람에게 개인정보(이름, 학교, 연락처, 주소 등)를 보낸다	82.5 (935)	14.1 (160)	2.9 (33)	0.5 (1.3)
5) 나는 의도적으로(내 스스로) 성인용 사이트에 접속한다	80.3 (911)	13.4 (152)	4.9 (56)	1.3 (15)
6) 나는 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과 성적인 대화를 한다	89.8 (1018)	7.9 (89)	1.8 (20)	0.6 (7)

〈표 9〉 학교급 및 성별에 따른 위험행동 평균점수 비교

평균(표준편차)

	초	중	고	여	남
1) 나는 개인정보(이름, 학교, 연락처, 주소 등)를 온라인에 공개한다	1.4(0.7)	1.7(0.8)	1.7(0.7)	1.6(0.7)	1.6(0.7)
2) 나는 모르는 사람과 온라인에서 대화나 연락한다	1.5(0.7)	1.8(0.9)	1.8(0.9)	1.7(0.9)	1.8(0.9)
3) 나는 모르는 사람을 친구목록에 추가한다	1.5(0.8)	1.6(0.8)	1.7(0.8)	1.5(0.7)	1.8(0.9)
4) 나는 온라인에서 만난 낯선 사람에게 개인정보(이름, 학교, 연락처, 주소 등)를 보낸다	1.1(0.4)	1.3(0.6)	1.2(0.5)	1.2(0.5)	1.3(0.6)
5) 나는 의도적으로(내 스스로) 성인용 사이트에 접속한다	1.1(0.4)	1.3(0.6)	1.4(0.7)	1.2(0.5)	1.4(0.7)
6) 나는 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과 성적인 대화를 한다	1.1(0.4)	1.1(0.5)	1.1(0.4)	1.1(0.4)	1.2(0.5)

- Scheffe: 1) 초(중, 고 \*\*\*, 2) 초(중, 고\*\*\*, 3) 초(중, 고\*\*, 4) 초(중\*, 5) 초(중, 고\*\*\*

- t-test: 2) 여(남\*\*, 3) 여(남\*\*\*, 4) 여(남\*, 5) 여(남\*\*\*, 6) 여(남\*\*

인터넷 위험행동과 인터넷 이용시간, 부모 및 친구관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이용시간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부모와의 관계와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표 10〉 인터넷 이용시간 및 부모친구관계와 인터넷 위험행동 상관관계〉

		평일 인터넷 이용시간	주말 및 휴일 인터넷 이용시간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인터넷 위험행동	전체	0.17***	0.19***	-0.15***	-0.07*
	초	0.16**	0.23***	-0.18**	-0.15*
	중	0.19***	0.16***	-0.11*	-0.02
	고	0.07	0.1*	-0.18***	-0.1*
	여	0.21***	0.18***	-0.16***	-0.07
	남	0.17***	0.25***	-0.14**	-0.08

\*\*\*p<.001, \*\*p<.01, \*p<.05

### 3) 사이버폭력 관련 교육 경험, 피해 특성

지난 1년간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교육을 몇 번이나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약 80%(35.6+34.7)가 한번 혹은 여러번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한번도 받지 않았다고 한 응답자는 16.8%였고, 잘 기억나지 않는 응답자도 13%에 달하였다. 학교급별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순으로 여러 번 교육받은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다. 중학생의 경우, 한 번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8.2%에 달했으며, 학교급별 교육경험 횟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성별로는 차이가 없어 구체적인 결과를 생략하였다.

〈표 11〉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교육 경험 횟수

%(명)

	한 번도 받지 않음	한 두 번 정도 받음	여러 번 받음	잘 기억이 나지 않음	
전체	16.8(190)	35.6(404)	34.7(393)	13.0(147)	
초	15.7(41)	26.4(69)	46.4(121)	11.5(30)	p<.001
중	18.2(84)	31.0(143)	35.3(163)	15.6(72)	
고	15.4(62)	47.2(190)	26.8(108)	10.7(43)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교육 경로에서 60% 가량이 학교 교과수업 시간에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학교급이 높을수록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교육경험 비율이 높아졌다.

〈표 12〉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교육 경로

%(명)

	학교 교과 수업시간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 밖 프로그램(청소년 시설/단체, 사회단체 등)	기타	
전체	60.4(488)	34.2(276)	3.7(30)	1.7(14)	
초	51.7(135)	36(13.8)	5.4(14)	6(2.3)	p<.001
중	40.5(187)	24.5(113)	1.9(9)	0.1(3)	
고	41.2(166)	31.5(127)	1.2(5)	0.1(4)	

인터넷을 이용할 때,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나 말이 사이버폭력인지 아닌지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잘 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혀 모른다(1)부터 매우 잘 안다(7)까지 제시하고 이 중에서 선택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전체 평균은 5.7점이었고, 학교급별, 성별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13〉 사이버폭력 이해에 대한 자기평가

평균(표준편차)

전체	학교급			성별	
	초	중	고	여	남
5.7(1.2)	5.6(1.3)	5.7(1.2)	5.7(1.1)	5.7(1.1)	5.7(1.2)

사이버폭력 이해에 대한 자기평가와 인터넷 이용시간 및 부모, 친구관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친구관계와의 상관관계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표 14〉 인터넷 이용시간 및 부모친구관계와 사이버폭력 이해 정도의 상관관계

		평일 인터넷 이용시간	주말 및 휴일 인터넷 이용시간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사이버폭력 인지에 대한 자기평가	전체	-0.03	-0.03	0.14***	0.18***
	초	-0.02	-0.05	0.20**	0.20**
	중	-0.16***	-0.19***	0.15***	0.16***
	고	0.08	0.13***	0.9	0.18***
	여	-0.05	-0.06	0.15***	0.18***
	남	-0.00	0.01	0.11*	0.17***

\*\*\*p<.001, \*\*p<.01, \*p<.05

사이버폭력 유형별 피해 경험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사이버 언어폭력 피해 경험 비율이 32.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이버명예훼손(6.9%), 사이버 스토킹(3.4%) 및 성폭력(3.4%)의 순서였다. 각 유형별로 피해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학교급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사이버따돌림 피해경험에서만 중학생이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에 비해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비율이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사이버 성폭력 피해 경험 비율이 유의하게 달랐는데, (p<.001), 피해자 중 여자가 94.7%(36)명, 남자가 5.2%(2명)였다. 나머지 유형은 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결과제시를 생략하였다.

〈표 15〉 사이버폭력 유형별 피해 경험 비율

%(명)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해 누군가가	전체 100 (1,134)	초	중	고	
욕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들은 적(사이버 언어폭력)	32.4 (367)	19.6 (71)	43.3 (157)	37.2 (135)	100 (367)
나에 대해 거짓된 이야기나 과장된 이야기를 퍼뜨린 적(사이버 명예훼손)	6.9 (78)	15.6 (12)	44.2 (34)	40.3 (31)	100 (77)
내가 싫어하는데도 이메일이나 쪽지를 계속 보내거나 블로그, SNS 등에 계속 방문해 글이나 사진을 남긴 적(사이버 스토킹)	3.4 (39)	15.4 (6)	59.0 (23)	25.6 (10)	100 (39)
내가 싫어할 줄 알면서도 야한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나에게 보내거나 보내 달라고 한 적(사이버 성폭력)	3.4 (38)	13.2 (5)	57.9 (22)	29.0 (11)	100 (38)
온라인 공간에서 나의 신상정보(이름, 사는 곳, 학교, 사진 등을) 퍼뜨린 적(개인정보 유출)	1.9 (22)	22.7 (5)	50.0 (11)	27.3 (6)	100 (22)
여러 명이 같이 나를 놀리거나 욕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적(사이버 따돌림) (p<.01)	3.5 (40)	17.5 (7)	65.0 (26)	17.5 (7)	100 (40)
나의 사이버(게임) 머니, 스마트폰 데이터, 아이템 등을 빼앗은 적(사이버 갈취)	1.7 (19)	33.3 (6)	50.0 (9)	16.7 (3)	100 (18)
내가 원치 않는 말/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심부름을 시킨 적(사이버 강요)	0.9 (10)	50 (5)	30 (3)	20 (2)	100 (10)

사이버폭력 유형별 피해경로를 살펴보았을 때, 사이버언어폭력을 제외하고 모든 유형이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를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언어폭력은 온라인게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 16〉 사이버폭력 피해 경로(중복 체크)

%(명)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갈취	사이버 강요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에스크 등)	39.2 (144)	<b>70.5</b> <b>(55)</b>	<b>59.0</b> <b>(23)</b>	<b>64.1</b> <b>(25)</b>	<b>77.3</b> <b>(17)</b>	<b>62.5</b> <b>(25)</b>	-	<b>50.0</b> <b>(5)</b>
커뮤니티 동호회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클럽 등)	2.5 (9)	1.3 (1)	7.7 (3)	7.9 (3)	4.5 (1)	-	(1)	-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틱톡 등)	26.2 (96)	37.2 (29)	43.6 (17)	44.7 (17)	31.8 (7)	25.0 (10)	(1)	30.0 (3)
메타버스(제페토, 로블록스, 이프랜드 등) 플랫폼	10.9 (40)	3.8 (3)	5.1 (2)	2.6 (1)	-	5.0% (2)	-	20.0 (2)
개인 홈페이지	-	3.8 (3)	2.6 (1)	-	-	-	(11)	-
이메일	0.0 (1)	-	-	-	-	-	-	-
온라인 게임	<b>64.0</b> <b>(235)</b>	29.5 (23)	23.1 (9)	13.2 (5)	18.2 (4)	32.5 (13)	-	-
기타	1.4 (5)	-	-	-	-	-	(10)	-
	<b>100</b> <b>(367)</b>	<b>100</b> <b>(78)</b>	<b>100</b> <b>(39)</b>	<b>100</b> <b>(38)</b>	<b>100</b> <b>(22)</b>	<b>100</b> <b>(40)</b>	<b>100</b> <b>(19)</b>	<b>100</b> <b>(10)</b>

사이버폭력 유형별 피해여부를 총 합산하여 학교급별 및 성별로 평균을 비교한 결과, 학교급별로 중학생이 가장 피해 평균이 높았다. 남녀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17〉 사이버폭력 유형별 피해 종합 평균

평균(표준편차)

	학교급*			성별	
	초*	중	고	여	남
피해 평균	0.45(0.82)	0.62(1.04)	0.51(0.84)	0.54(0.93)	0.53(0.91)

\*p<.05

사이버폭력 피해와 기타 인터넷 이용 특성 및 부모친구관계 특성의 상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18>에서 나타난 바와 피해 경험과 인터넷 위험행동, 인터넷 이용시간과는 정적상관이 있었고, 부모관계 및 친구관계와는 부적상관이 있었다. 중학생의 경우, 부모 관계와 피해경험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표 18> 사이버폭력 피해, 인터넷 위험행동, 사이버폭력 이해도, 인터넷 이용시간, 부모친구 관계의 상관관계)

		인터넷 위험행동	사이버폭력 이해도	평일 인터넷 이용시간	주말, 공휴일 인터넷 이용시간	부모 관계	친구 관계
피해	전체	0.28***	-0.05	0.14***	0.16***	-0.12***	-0.16***
	초	0.33***	-0.06	0.21***	0.24***	-0.17**	-0.14*
	중	0.28***	-0.07	0.15**	0.16***	-0.07	-0.18***
	고	0.24***	-0.05	0.07	0.06	-0.14**	-0.14**
	여	0.31***	-0.05	0.12**	0.12***	-0.12**	-0.17***
	남	0.24***	-0.05	0.19***	0.22***	-0.12*	-0.14**

\*\*\*p<.001, \*\*p<.01, \*p<.05

사이버폭력 유형별 피해경로를 학교급별 및 성별로 분석해 보았을 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경우를 <표 19>에서 제시하였다.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를 통해 사이버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따돌림 피해를 경험한 경우는 중학생이 60%이상을 차지하여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에 비해 비율이 높았다.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를 통해 사이버 언어폭력이나 사이버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는, 여자아동이 남자아동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SNS로 사이버폭력 및 사이버명예훼손을 경험하는 비율은 여자아동이 남자아동보다 높았다고 SNS를 통한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경우는 중학생,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에 비해 많았다. 반면 메타버스를 통해 경험하는 경우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순서로 비율이 높았다. 온라인 게임을 통해 사이버 언어폭력을 경험하는 비율은 남자아동이 유의한 수준에서 높았고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의 순서로 그 비율이 높았다. 온라인 게임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을 경험하는 경우는 여자아동에 비해 남자아동의 비율이 높았다.

〈표 19〉 사이버폭력 유형별 피해경로의 학교급 및 성별 비율 분석

%(명)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따돌림			
	여***	남						여**	남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에스크 등)	79.2 (114)	20.9 (30)						96.0 (24)	5.0 (1)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13.0 (3)	69.6 (16)	17.4 (4)	16.0 (4)	68.0 (17)	16.0 (4)	20.0 (5)	64.0 (16)	16.0 (4)	
	100(144)				100(23)			100(25)			100(25)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틱톡 등)	여***	남	여**	남										
	85.4 (82)	14.6 (14)	93.1 (27)	6.9 (2)										
			초*	중	고									
			3.5 (1)	51.7 (15)	44.8 (13)									
	100(96)		100(29)											
메타버스 (제페토, 로블록스, 이프랜드 등) 플랫폼	초**	중	고											
	45.0 (18)	37.5 (15)	17.5 (7)											
	(40)													
온라인 게임	여***	남	여***	남							여*	남		
	45.5 (107)	54.5 (128)	26.1 (6)	73.9 (17)							38.5 (5)	61.5 (8)		
	초***	중	고											
	13.4 (31)	39.8 (92)	46.8 (108)											
	100(235)		100(23)								100(13)			

\*\*\*p<.001, \*\*p<.01, \*p<.05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 피해를 준 사람이 주로 누구인지에 대해 물어 보았을 때, 〈표 20〉에서 나타나 바와 같이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54.3%로

가장 많았다. 성별을 함께 분석하였을 때, 전체 설문 응답자 중 여자아동이 남자아동에 비해 2배 정도임을 고려하더라도 친한 친구, 선배나 후배, 얼굴만 아는 사이 및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는 여자아동에게 많았던 반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는 남녀 간에 상대적으로 그 비율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학교급에 따라서는 가해자 유형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결과 제시는 생략하였다.

〈표 20〉 사이버폭력 피해를 준 사람

%(명)

	전체 100(433)	성별***		
		여	남	
연예인, 스포츠 선수, 정치인 등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	0.1 (3)	66.7 (2)	33.3 (1)	100 (3)
친한 친구	23.6 (102)	75.5 (77)	24.5 (25)	100 (102)
선배나 후배	3.9 (17)	82.4 (14)	17.7 (3)	100 (17)
얼굴만 아는 사이	4.6 (20)	75.0 (15)	25.0 (5)	100 (20)
(위의 사람들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	12.9 (56)	71.4 (40)	28.6 (16)	100 (56)
전혀 모르는 사람	54.3 (235)	54.6 (126)	46.4 (109)	100 (235)

\*\*\*p<.001, \*\*p<.01, \*p<.05

사이버폭력 피해 시 대처행동에 대한 질문에, 〈표 2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피해를 입은 아동 가운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상대를 차단하거나 아이디나 이메일을 바꾼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성별에 따라 대처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더 이상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행동, 다른 사람에게 도움요청, 신고 등은 여자의 비율이 대부분이었으며, 가해자에게 보복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 괴롭히는 행동은 남자

의 비율이 높았다. 학교급에 따라서는 대처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구체적인 수치 제시는 생략하였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물었을 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응답을 학교급별로 분석해 보았을 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에 응답한 89명 중, 초등학생이 29.4%(7명), 중학생이 29.4%(35명), 41.2%(47명)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나머지 이유를 학교급별로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성별로 분석했을 때, 상대방이 보복(복수할 것 같아서)에 대해 여자는, 남자는 이 응답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1$ ).

〈표 21〉 사이버폭력 피해 시 대처행동

%(명)

	전체 100(412)	성별***		
		여	남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을 차단하거나 나의 아이디나 이메일을 다른 것으로 바꿔서 나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였다	24.8 (102)	55.9 (57)	44.1 (45)	100 (102)
괴롭힘이 일어난 웹사이트나 앱(어플리케이션)을 더 이상 이용하지 않았다	7.3 (30)	90.0 (27)	10.0 (3)	100 (30)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괴롭힘을 멈추거나 사과하도록 요구하였다	16.7 (69)	72.5 (50)	27.5 (19)	100 (69)
가족, 친구, 선후배, 선생님 등 주변에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였다	11.2 (46)	84.8 (39)	15.2 (7)	100 (46)
괴롭힘이 일어난 웹사이트나 상담센터 또는 경찰(학교폭력신고센터 117 등)에 신고했다	3.6 (15)	73.3 (11)	26.7 (4)	100 (15)
가해자에게 보복(복수)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 괴롭혔다	4.6 (19)	26.3 (5)	73.7 (14)	100 (19)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31.8 (131)	53.4 (70)	46.6 (61)	100 (131)

\*\*\* $p < .001$ , \*\* $p < .01$ , \* $p < .05$

〈표 22〉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이유(중복 답변)

%(명)

	n=131	성별		
		여	남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13.0(17)	82.4(14)	17.7(3)	100(17)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68.7(90)	54.4(49)	45.6(41)	100(90)*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이 누구인지 몰라서	9.2(12)	33.3(4)	66.7(8)	100(12)*
내가 행동을 해도 괴롭힘이 멈춰질 것 같지 않아서	7.6(10)	40.0(4)	60.0(6)	100(10)
상대방이 보복(복수)할 것 같아서	6.1(8)	25(2)	75(6)	100(8)*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서	4.6(6)	33.3(2)	66.7(4)	100(6)
(나를 괴롭히는 친구라도) 친구를 잃을 것 같아서	2.3(3)	33.3(1)	66.7(2)	100(3)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서	9.2(12)	50(6)	50(6)	100(12)
기타	13.7(18)	50(9)	50(9)	100(18)

\*\*\*p<.001, \*\*p<.01, \*p<.05

#### 4) 사이버폭력 가해 특성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응답자의 12.3%가 사이버 언어 폭력을 가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각 폭력 유형을 학교급별로 분석하였을 때, 사이버 언어폭력 가해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비율이 유의한 수준에서(p<.05) 초등학교보다 높았으며, 사이버 따돌림의 경우, 중학생들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p<.05). 사이버 강요의 경우, 초등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p<.05). 성별에 따라 분석하였을 때, 사이버 언어폭력에서 여자가 46.8%(65명), 남자는 53.2%(74명)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사이버 명예훼손에서도 여자는 44.0%(11명), 남자는 56%(14명)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표 23〉 사이버폭력 유형별 가해 경험 비율

%(명)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체 100 (1,134)	초	중	고	
욕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 적(사이버 언어폭력)	12.3 (139)	14.5 (20)	43.5 (60)	42.0 (58)	100 (138)
그에 대한 거짓된 이야기나 과장된 이야기를 퍼뜨린 적(사이버 명예훼손)	2.2 (25)	12 (3)	56 (14)	32 (8)	100 (25)
싫어하는데도 이메일이나 쪽지를 계속 보내거나 블로그, SNS 등에 계속 방문해 글이나 사진을 남긴 적(사이버 스토킹)	0.1 (1)	-	-	100 (1)	100 (1)
싫어할 줄 알면서도 야한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나에게 보내거나 보내 달라고 한 적(사이버 성폭력)	0.2 (2)	-	50 (1)	50 (1)	100 (2)
온라인 공간에서 신상정보(이름, 사는 곳, 학교, 사진 등)를 퍼뜨린 적(개인정보 유출)	0.4 (4)	25 (1)	50 (2)	25 (1)	100 (4)
여러 명이 같이 놀리거나 욕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적(사이버 따돌림)	1.4 (18)	12.5 (2)	75.0 (14)	12.5 (2)	100 (18)
사이버(게임) 머니, 스마트폰 데이터, 아이템 등을 빼앗은 적(사이버 갈취)	0.4 (5)	40 (2)	20 (1)	40 (2)	100 (5)
원치 않는 말/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심부름을 시킨 적(사이버 강요)	0.5 (6)	66.7 (4)	33.3 (2)	0 (0)	100 (6)

사이버폭력 유형별 가해경로를 분석했을 때, 〈표 24〉와 같이 전반적으로 사이버 언어폭력, 개인정보유출은 온라인게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따돌림은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에스 크 등)를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와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틱톡 등)를 통해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사이버폭력 유형별 가해경로를 학교급, 성별로 분석하였을 때 유의한 결과를 〈표 25〉에서 제시하였다. 제시된 것과 같이,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에스 크 등), 그리고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틱톡 등)를 통해 발생하는 사이버 언어폭력, 명예훼손, 따돌림에서 중학생의 비율이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에 비해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온

라인 게임에서 사이버 언어폭력, 명예훼손, 따돌림이 발생하는 경우, 여자아동보다 남자아동의 비율이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24〉 사이버폭력 가해 유형별 경로(중복 답변)

%(명)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갈취	사이버 강요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에스크 등)	48.9 (68)	48.0 (12)	-	100 (2)	50 (2)	72.2 (13)	20 (1)	2 (33.3)
커뮤니티 동호회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클럽 등)	1.4 (2)	-	-	-	-	-	40 (2)	-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틱톡 등)	23.7 (33)	52.0 (13)	-	50 (1)	25 (1)	22.2 (4)	-	1 (16.6)
메타버스(제페토, 로블록스, 이프랜드 등) 플랫폼	5.0 (7)	0.04 (1)	-	-	-	-	-	2 (33.3)
개인 홈페이지	-	-	-	-	-	-	-	-
이메일	-	0.04 (1)	-	-	-	-	-	-
온라인 게임	63.3 (88)	0.3 (7)	1 (100)	-	75 (3)	50 (9)	-	2 (33.3)
기타	0.1 (1)	-	-	50 (1)	-	-	80 (4)	-
	100 (139)	100 (25)	100 (1)	100 (2)	100 (4)	100 (18)	100 (5)	100 (6)

〈표 25〉 가해 경로별 폭력유형과 학교급 및 성별에 따른 사이버폭력 발생 비율 분석

%(명)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따돌림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에스크 등)				25.0 (3)	75.0 (9)	0 (0)	15.4 (2)	76.9 (10)	7.7 (1)
				100(12)			100(13)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틱톡 등)	초**	중	고	초*	중	고			
	3.1 (1)	62.5 (20)	34.4 (11)	0 (0)	76.9 (10)	23.1 (3)			
	100(33)			100(13)					
온라인 게임	여***		남						
	22.7 (20)		77.3 (68)						
	100(88)								
	초***	중	고	여**	남	여**	남		
	9.3 (8)	29.1 (25)	6.6 (5)	14.3 (1)	85.7 (6)	22.2 (2)	77.8 (7)		
	100(86)			100(7)			100(9)		

\*\*\*p<.001, \*\*p<.01, \*p<.05

사이버 폭력 가해 행동을 한 경우, 가해행동에 대한 주변인의 인지와 관련하여, 친구들이 알고 있다, 상대방이 알고 있다, 아무도 모른다는 응답이 골고루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성별에 따라 분석하였을 때, 친구들이 알고 있다고 한 응답자 중에 남자아동의 비율이 높았다. 학교급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6〉 사이버 폭력 가해행동에 대한 주변인의 인지(중복 답변)

%(명)

	n=179	성별		
		여	남	
아무도 모른다	29.1(52)	51.9(27)	48.1(25)	100(52)*
내가 한 행위를 상대방은 알고 있다	27.9(50)	56.0(28)	44.0(22)	100(50)
친구들이 알고 있다	33.0(59)	27.4(22)	62.7(37)	100(59)***
부모 또는 형제자매 등 가족이 알고 있다	7.3(13)	53.9(7)	46.2(6)	100(13)
선생님이 알고 계신다	2.8(5)	80(4)	20(1)	100(5)

\*\*\*p<.001, \*\*p<.01, \*p<.05

사이버폭력 유형별 가해 총합의 평균을 학교급 및 성별로 비교하였을 때, 중학생의 가해경험이 유의하게 높았고(p<.05), 남학생의 가해경험 평균이 여학생보다 2배 이상 높았다(p<.001).

〈표 27〉 사이버폭력 가해 평균 비교

평균(표준편차)

	초	중	고	여	남
가해	0.12(0.42)	0.20(0.59)	0.18(0.49)	0.12(0.45)	0.27(0.63)

사이버폭력 가해 평균(유형별 가해 여부 총합의 평균)과 인터넷 위험행동, 사이버 폭력에 대한 이해도, 인터넷 이용시간, 부모친구 관계 및 사이버폭력 피해 평균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28〉에서와 같이 인터넷 위험행동, 인터넷 이용시간, 사이버폭력 피해와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부모친구관계와는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상관관계의 유의성은 학교급 및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표 28〉 사이버폭력 피해 및 가해경험, 인터넷 위험행동, 사이버폭력 이해도, 인터넷 이용시간, 부모친구 관계의 상관관계)

		인터넷 위험행동	사이버폭력 인지	평일 인터넷 이용시간	주말, 공휴일 인터넷 이용시간	부모 관계	친구 관계	피해
가해	전체	0.28***	-0.06	0.08***	0.13***	-0.11***	-0.08**	0.52***
	초	0.30***	-0.10	0.15*	0.18**	-0.15*	-0.07	0.63***
	중	0.26***	-0.09	0.03	0.08	-0.06	-0.06	0.56***
	고	0.29***	0.01	0.07	0.12*	-0.17***	-0.12*	0.39***
	여	0.27***	-0.04	0.07	0.09*	-0.05	-0.05	0.49***
	남	0.25***	-0.07	0.15**	0.21***	-0.19***	-0.13**	0.60***

\*\*\*p<.001, \*\*p<.01, \*p<.05

### 5) 혐오표현 및 성착취물 시청

인종, 국적, 종교, 성별, 장애, 신체나 외모, 가정형편, 학벌이나 학력, 출신 지역, 나이가 많음, 다문화가정 출신, 성소수자 등에게 혐오표현을 한 적이 있는지 물었을 때, 90%이상이 거의 없다고 했으나, 남자아동의 경우 10%가량이 가끔이나, 자주 혹은 매일 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중학생 및 고등학생도 7%가량이 가끔이나, 자주 혹은 매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29〉 혐오표현 빈도

	한 번도 없다(1)	거의 없다(2)	가끔 한 적이 있다(3)	자주 하였다(4)	거의 매일 하고 있다(5)	명(%)
전체	71.0(805)	22.4(254)	5.6(64)	0.8(9)	0.2(2)	
초	76.3(199)	21.5(56)	1.9(5)	0.4(1)	0(0)	p<.05
중	72.5(335)	19.9(92)	6.7(31)	0.9(4)	0(0)	
고	65.8(265)	25.8(104)	7.0(28)	1.0(4)	0.5(2)	
여	77.5(580)	18.1(135)	3.9(29)	0.4(3)	0.1(1)	p<.001
남	58.3(225)	30.8(119)	9.1(35)	1.6(6)	0.3(1)	

혐오표현과 인터넷 위험행동 및 앞서 살펴본 여러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인터넷 위험행동, 인터넷 이용시간, 사이버폭력 피해 및 가해와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부모 및 친구관계와는 부적상관을 나타내었으나 학교급별 및 성별에 따라 유의성에서 차이가 있었다.

〈표 30〉 혐오표현과 인터넷 위험행동 및 기타 특성과의 상관관계)

		인터넷 위험행동	사이버폭력 이해도	평일 인터넷 이용시간	주말, 공휴일 인터넷 이용시간	부모 관계	친구 관계	피해	가해
혐오 표현	전체	0.24***	-0.03	0.12***	0.11***	-0.09**	-0.9**	0.25***	0.31***
	초	0.20**	-0.08	0.25***	0.18**	-0.10	-0.08	0.19**	0.17**
	중	0.18***	-0.00	0.06	0.02	-0.07	-0.09	0.26***	0.36***
	고	0.31***	-0.03	0.08	0.11*	-0.01*	-0.12*	0.26***	0.27***
	여	0.19***	-0.06	0.13***	0.11**	-0.07	-0.07*	0.23***	0.28***
	남	0.25***	0.03	0.21***	0.18***	-0.11*	-0.13*	0.29***	0.28***

\*\*\*p<.001, \*\*p<.01, \*p<.05

성착취물 시청 빈도에 대한 응답을 살펴본 결과, 〈표 3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응답자의 80%가량이 한번도 없다고 하였다. 가끔, 자주 혹은 매일 본다는 비율은 4% 가량이었다. 학교급별이나 성별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31〉 성 착취물 시청 빈도

명(%)	한 번도 없다(1)	거의 없다(2)	가끔 본 적이 있다(3)	자주 본다(4)	거의 매일 보고 있다(5)
전체	80.9(917)	14.6(165)	3.6(41)	0.8(9)	0.2(2)
초	84.7(221)	13.4(35)	1.5(4)	0.4(1)	0(0)
중	80.5(372)	13.4(62)	5.2(24)	0.9(4)	0(0)
고	78.9(318)	16.4(66)	3.2(13)	1.0(4)	0.5(2)
여	82.4(616)	13.2(99)	3.9(29)	0.5(4)	0(0)
남	78.0(301)	17.1(66)	3.1(12)	1.3(5)	0.5(2)

성착취물 시청 빈도와 인터넷 위험행동 및 및 앞서 살펴본 여러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인터넷 위험행동, 인터넷 이용시간, 사이버폭력 피해 및 가해와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사이버폭력 이해도와 부적상관이 있었으나 학교급별 및 성별에 따라 유의성에서 차이가 있었다.

〈표 32〉 성착취물 시청과 인터넷 위험행동 및 기타 특성과의 상관관계

		인터넷 위험행동	사이버폭력 이해도	평일인터넷 이용시간	주말, 공휴일 인터넷 이용시간	부모 관계	친구 관계	피해	가해
성착 취물 시청	전체	0.25***	-0.07*	0.11***	0.14***	-0.01	-0.06	0.21***	0.25***
	초	0.12*	-0.13*	0.10	0.08	-0.03	-0.04	0.18**	0.11
	중	0.27***	-0.09	0.11*	0.15**	-0.04	-0.07	0.29***	0.26***
	고	0.28***	-0.03	0.08	0.10*	0.05	-0.05	0.11*	0.29***
	여	0.29**	-0.12**	0.10**	0.14***	-0.01	-0.04	0.23***	0.24***
	남	0.19***	-0.00	0.16**	0.15**	-0.01	-0.07	0.19***	0.26***

\*\*\*p<.001, \*\*p<.01, \*p<.05

## 6) 사이버폭력 원인 및 대책

사이버폭력에 대해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나 전화번호 등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약 42% 가량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학교급별이나 성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33〉 사이버폭력 상담 및 신고 번호 인지 여부

명(%)

	명(%)	초	중	고	여	남
예	480(42.3)	42.9(112)	45.2(209)	38.7(156)	40.5(302)	59.6(446)
아니오	654(57.7)	57.1(149)	54.8(253)	61.3(247)	46.1(178)	53.9(208)

사이버폭력에 대해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나 전화번호 등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 사이버폭력에 대해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어떤 사이트나 전화번호 중 알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를 알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Wee센터였다. 신고번호 별로 학교급에서 인지비율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푸른나무재단( $p < .01$ ), 안전 Dream센터( $p < .01$ ), Wee센터( $p < .01$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p < .05$ )에 대해 중학생이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에 비해 인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성별로는 푸른나무재단에 대해서 여자는 전체 여자의 53.8%(43명)이 남자 46.3%(37명)이 알고 있었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p < .05$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대해서 여자는 전체여자의 56.3%(75명), 남자는 43.6%(58명)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p < .05$ ).

〈표 34〉 알고 있는 사이버폭력 상담 및 신고번호(중복 답변)

명(%)

	n=480	초	중	고	
푸른나무재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 www.btf.or.kr (전화: 1588-9128)	16.7 (80)	32.9 (26)	48.1 (38)	19.0 (15)	100 (80)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www.cyber1388.kr (전화: 1388/ 문자 #000011388)	71.5 (343)	20.6 (70)	45.3 (154)	34.1 (116)	100 (340)
안전Dream센터(구 경찰청 학교폭력 신고센터) www.safe182.go.kr (전화 : 117/ 문자 30117)	33.3 (160)	29.3 (46)	46.5 (73)	24.2 (38)	100 (157)
학교폭력 피해자가족협의회: www.uri-i.or.kr (전화: 02- 582-8118)	13.3 (64)	28.6 (18)	41.3 (26)	30.2 (19)	100 (62)
Wee센터 : www.wee.go.kr (전화: 1588-7199)	47.5 (228)	15.4 (35)	47.6 (108)	37.0 (84)	100 (227)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s://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566-0112)	27.7 (133)	25.8 (34)	42.4 (56)	31.8 (42)	100 (132)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기관별로 번호가 다름	14.0 (67)	21.2 (14)	42.4 (28)	36.4 (24)	100 (6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https://d4u.stop.or.kr (전화: 02-735-8994)	19.4 (93)	15.2 (14)	53.3 (49)	31.5 (29)	100 (92)

사이버 폭력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았을 때, <표 35>에 제시된 바와 같이 1순위로는 사이버폭력을 재미나 장난으로 생각해서, 2순위로는 가해자들의 나쁜 생각과 행동 때문에, 3순위는 관련된 법이나 제도가 부족해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학교급 및 성별로 사이버폭력 발생 이유를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살펴보았을 때, 동일한 내용의 답변이 1, 2, 3순위를 차지하였으나, 초등학생의 경우 3순위가 예방교육이 부족해서로 나타났다.

<표 35> 사이버 폭력 발생 이유

명(%)

	1순위	2순위	3순위
사이버폭력을 재미나 장난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b>622(54.9)</b>	232(20.5)	125(11.0)
가해자들의 나쁜 생각과 행동 때문에	256(22.6)	<b>359(31.7)</b>	227(20.0)
피해자들이 원인을 제공하여서	14(1.2)	43(3.8)	110(9.7)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충실하게 관리하지 않아서	17(1.5)	94(8.3)	150(13.2)
관련된 법이나 제도가 부족해서	180(15.9)	302(26.6)	<b>293(25.8)</b>
예방교육이 부족해서	45(4.0)	104(9.2)	229(20.2)
	100(1,134)	100(1,134)	100(1,134)

사이버폭력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표 36>와 같이 1순위는 관련된 법이나 제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순위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인터넷에서의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철저히 관리하고 규칙을 만드는 것, 3순위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인터넷에서의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철저히 관리하고 규칙을 만드는 것과 학교에서 더 많은 아동청소년에게 효과적인 예방 교육을 하는 것이 유사한 비율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다. 학교급별 및 성별로 사이버폭력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았을 때, 조금씩 순위별 내용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초등학생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관련된 법이나 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1순위로 생각하였고, 2순위와 3순위에서도 학교급별로 조금씩 차이를 나타내었다. 남자아동과 여자아동의 응답은 순위별 내용이 동일하였다.

〈표 36〉 사이버폭력 감소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대책

명(%)

	1순위	2순위	3순위
학교에서 더 많은 아동청소년에게 효과적인 예방 교육을 하는 것	265(23.4)	143(12.7)	<b>211(18.7)</b>
국가에서 더 많은 어른들에게 효과적인 예방 교육을 하는 것	60(5.3)	189(16.7)	145(12.8)
보호자들이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을 잘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	69(6.1)	113(10.0)	177(15.6)
아동청소년들 스스로가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괴롭히는 행동을 보면 신고하는 것	171(15.1)	233(20.6)	200(17.6)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인터넷에서의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철저히 관리하고 규칙을 만드는 것	84(7.4)	<b>274(24.2)</b>	<b>214(18.9)</b>
관련된 법이나 제도를 통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	<b>485(42.8)</b>	182(16.1)	187(16.5)
	100(1,134)	100(1,134)	100(1,134)

〈표 37〉 학교급 및 성별에 따른 사이버폭력 감소 및 예방 대책 순위

명(%)

초	1	학교에서 더 많은 아동청소년에게 효과적인 예방 교육을 하는 것	36.0(94)
	2	아동청소년들 스스로가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괴롭히는 행동을 보면 신고하는 것	23.0(60)
	3	관련된 법이나 제도를 통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	23.0(6)
중	1	관련된 법이나 제도를 통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	45.0(208)
	2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인터넷에서의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철저히 관리하고 규칙을 만드는 것	23.4(108)
	3	학교에서 더 많은 아동청소년에게 효과적인 예방 교육을 하는 것	21.4(99)
고	1	관련된 법이나 제도를 통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	51.9(209)
	2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인터넷에서의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철저히 관리하고 규칙을 만드는 것	29.3(118)
	3	아동청소년들 스스로가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괴롭히는 행동을 보면 신고하는 것	19.1(77)
여	1	관련된 법이나 제도를 통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	45.5(340)

	2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인터넷에서의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규칙을 만드는 것	23.3(174)
	3	아동청소년들이 스스로가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괴롭히는 행동을 보면 신고하는 것	17.0(127)
남	1	관련된 법이나 제도를 통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	37.8(145)
	2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인터넷에서의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규칙을 만드는 것	25.9(100)
	3	아동청소년들이 스스로가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괴롭히는 행동을 보면 신고하는 것	18.9(73)

### 3. 질적 설문조사 결과

자료 분석 결과 2개의 주제와 8개의 범주, 34개의 의미단위가 도출되었다. 첫 번째 주제인 ‘사이버폭력 현황’에서는 ‘사이버폭력 발생 공간’, ‘사이버폭력 유형’, ‘사이버폭력 발생 시 대처’의 3개 범주와 13개 의미단위가 발견되었다. 두 번째 주제인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은 ‘정책적 차원에서 필요한 방안’, ‘학교 및 교육적 차원에서 필요한 방안’, ‘인터넷 기반 서비스 차원에서 필요한 방안’, ‘어른에게 요구되는 태도’, ‘아동 개인 차원에서 필요한 노력’의 5개 범주와 20개 의미단위로 구성되었다.

〈표 38〉 개방형 설문조사 분석

주제	범주	의미
사이버폭력 현황	사이버폭력 발생 공간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및 채팅 메신저(카카오톡, 디스코드 등)
		익명 기반 SNS(애스크)
		채팅 가능한 게임
	사이버폭력 유형	단체 대화방 내에서 이루어지는 집단 괴롭힘
		악성 댓글
		개인정보 유출
		공개적인 공간에 괴롭힘 전시

주제	범주	의미
		SNS 계정 탈취 및 불법 유용
		금전 갈취(소액결제 강요, 피해자 카드 사용 등)
		디지털 성폭력
	사이버폭력 발생 시 대처	어른에게 알리지 않음
		어른에게 피해를 알렸을 때 피해자가 곤란해지기도 함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함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	정책적 차원에서 필요한 방안	사이버폭력의 명확한 기준 및 규제 마련
		가해자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아동의 관점을 반영한 대책 마련
	학교 및 교육적 차원에서 필요한 방안	효율적인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사이버폭력 발생 시 대처 방안에 대한 교육
		피해자 보호 장치 마련
		사이버폭력의 근원인 학교폭력 근절
	온라인 플랫폼 차원에서 필요한 방안	유해사이트에 대한 아동의 접근 원천 차단
		앱 자체에 사이버폭력 방지 및 신고 기능 추가
		모니터링 강화
	어른에게 요구되는 태도	피해아동의 편이 되어주는 어른
		아동에 대한 어른의 적극적인 관심
		사이버폭력과 관련한 가정교육
	아동 개인 차원에서 필요한 노력	유해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기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행위를 점검하기
		나 또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상호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 가지기
		사이버폭력을 방관하지 않고 도와주기
		사이버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 1) 사이버폭력 현황

### (1) 사이버폭력 발생 공간

사이버폭력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와 카카오톡, 디스코드 등의 채팅 메신저 공간에서 발생하였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아동·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SNS이며, 익명으로 활동할 수 있어 사이버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로 꼽혔다. 특히 인스타그램에서의 사이버폭력은 24시간 동안만 확인할 수 있는 스토리 기능이나 메시지(DM: Direct Message)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일단은 페이스북에서 사이버폭력이 가장 잘 일어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익명으로 말할 수 있는 가장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접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요. (G지역)

정말 많은 사이버폭력 발생 공간은 인스타그램, 틱톡과 같은 SNS에서 주로 일어난다. 게시물이나 24시간만 볼 수 있는 스토리, 메시지(DM) 등을 이용해 사이버폭력을 한다. (F지역)

디스코드 같은 공간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니 괴롭히고 싶으면 더 쉽게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I지역)

최근에는 계정을 만들어 타인에게서 익명으로 질문을 받고 답할 수 있는 익명 기반 SNS가 유행하고 있다. 이러한 익명 질문을 주기능으로 하는 SNS에는 대표적으로 ‘Asked 익명질문’, ‘Ask.fm’, ‘푸슝 ASK 익명질문’, ‘페잉(Peing)’ 등이 있는데, 연구참여자들은 이를 공통적으로 ‘에스크(Ask)’라고 표현하였다. 일부 에스크 서비스는 계정 소유자가 답변을 달지 않아도 소유자가 받은 질문을 타인이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질문 기능을 통해 사이버폭력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특히 에스크에서는 비난이나 욕설 외에도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 공유되는 등 디지털성폭력에도 취약한 공간이 되고 있었다. 이외에 채팅이 가능한 롤이나 오버워치 등의 게임은 물론 메타버스를 활용한 로블록스 등의 게임에서도 사이버폭력이 발생하고 있었다.

요즘 학생들은 익명으로 물어볼 수 있는 에스크라는 앱을 많이 사용합니다. 에스크는 익명성이 보장되고 누구든지 질문할 수 있다는 게 장점 아닌 장점으로 꼽혀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고 많이 이용하는 앱입니다. 에스크가 좋은 방향에서만 이용되면 좋겠지만 자유게시

판을 이용하여 절반 이상(개인적 견해)은 모두 성적인 내용과 사진을 담은 사진들이 공유되고 이를 즐기는 공유의 장으로 변질된 것 같아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누군가의 신체 사진을 익명으로 학생들이 올리고 평하는 행동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B지역)

‘애스크’ 아닐까? 아무래도 요즘 사이버폭력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보다는 애스크에서 많이 올라오는 것 같던데. B: 맞아, 아무래도 인터넷의 제일 큰 특성인 ‘익명성’이 가장 많이 보장되는 곳이어서 그런 게 아닐까? 자신의 개인정보를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상대방의 계정에 도달할 수 있잖아. (F지역)

애스크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곳은 익명으로 질문하는 곳입니다. 부끄럽거나 쑥스러워서 물어보지 못하는 질문들을 익명으로 질문하도록 만들어진 사이트이지만, 이것을 통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사이버폭력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비난과 욕설, 성희롱을 통해 모욕감을 주며 사용자에게 겁을 주지만, 이것은 이제 너무 흔한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트라우마 또는 상처로 남겨둘 뿐,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트를 악용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사용되어서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I지역)

게임을 하다가 게임 채팅방에서 심한 욕설을 쫓던 것을 본 적이 있었고. (H지역)

## (2) 사이버폭력 유형

채팅 메신저가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만큼 사이버폭력 또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이용한 방식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주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집단적인 괴롭힘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괴롭히는 방식은 피해자를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초대한 후 그 공간을 마치 감옥처럼 만들어 탈출할 수 없게 만드는 ‘카톡감옥’,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피해자를 초대한 후 그를 제외한 모두가 동시에 채팅방에서 퇴장하여 홀로 남게 만드는 ‘방폭’, 마찬가지로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한꺼번에 욕설을 퍼붓는 ‘떼카’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카톡이나 단체방을 만들어서 따돌리는 것. 한 명에게 계속 욕하는 것. (A지역)

카카오톡 채팅방에서의 집단 따돌림 문제. (G지역)

페이스북에서 요즘 페메(페북메세지)로 단팸(단체페메)를 파서 한명을 왕따시키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는 것 같다. (H지역)

악성 댓글과 개인정보 유출 또한 사이버폭력 유형으로 꼽혔다. SNS의 댓글 기능을 이용하여 욕설이 담긴 폭언을 남기는 행위뿐 아니라 허락 없이 사진을 퍼뜨

리거나 일반인의 신상을 유포하는 행위 또한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데,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스토킹에서 시작하거나 상대를 괴롭히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타인을 악의적으로 비하하고 괴롭힌다는 목적으로 댓글을 다는 것이다. 너무 도를 넘는 댓글을 달거나 한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댓글을 단다. 악플은 심한 상처를 주고 정신건강에 큰 피해를 준다. (F지역)

SNS상에서 자신과는 의견이 다르다고 몰아가며 욕설이나 폭언들을 댓글로 다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J지역)

요즘 많아진 사이버폭력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이 있다. 이 행동은 대상이 매우 광범위하다. 가수나 배우와 같은 유명인들로부터 인터넷상의 일반인까지 정말 많다. 이것이 스토킹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사생활을 찾아 유포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면 단지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캐낸다. 혹은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을 향한 분노로 시작하기도 한다. (F지역)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개적인 곳에 괴롭힘을 전시하는 유형의 사이버폭력도 있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악성 댓글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였고 인스타그램의 스토리 기능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앱 화면의 가장 상단에 나타나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24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일회성 게시물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스토리 게시물에 다른 계정의 아이디를 태그하면 해당 계정에서 알림을 받게 되는데, 이 기능으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에 대한 모욕적인 글이 담긴 게시물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외에도 사이버폭력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2가지입니다. 여러 학생들이 자신이 괴롭히는 학생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있는 게시물에 악플을 단체로 다는 SNS의 댓글 기능을 통한 단체 악플테러. 여러 학생들의 자신이 괴롭히는 학생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있는 스토리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괴롭히는 저급한 말을 써 놓은 뒤 피해자의 계정을 태그하여 피해자가 팔로우를 하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게 만들고 또 그 스토리를 본 다른 일진을 비롯한 가해학생들의 반응을 다시 스토리에 올려서 보게 만드는 SNS스토리를 통한 폭력. 이 두 가지 폭력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죠. 가해학생들은 이 SNS 특징을 이용해 피해자를 더욱 악랄하게 괴롭힙니다. (G지역)

금전 피해가 따르는 유형의 사이버폭력도 있었다. 피해자의 카카오톡이나 게임 계정을 빼앗아 불법적인 목적으로 유용하거나 해당 계정으로 유료 아이템을 구매하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였다. 또한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를 강요하거나 게임 아이템을 싸게 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하여 상품권이나 기프트콘을 갈취하는 등의 사이버폭력도 발생하고 있었다.

새로운 사이버폭력 종류는 계정을 빼앗는 것이다. 카톡아이디나 게임아이디를 빼앗아서 불법으로 홍보하는 데 쓰거나 게임 계정을 빼앗아 유료인 아이템들을 사는 경우가 있다. (G지역)

소액결제를 강요하는 사이버 폭력. (예: 피해자에게 자신이 쓸 게임 아이템을 소액결제로 구매하도록 강요) (B지역)

게임 아이템을 싸게 준다는 명목으로 온라인으로 문화상품권이나 구글 기프트카드 등을 갈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J지역)

디지털 성폭력은 대표적인 사이버폭력의 유형 중 하나로,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수면 위로 등장하게 되었다. 카카오톡의 오픈채팅방이나 랜덤채팅앱에서 아동에게 접근한 뒤 친밀감을 쌓아 성폭력을 저지르는 그루밍 범죄나 나체 사진 혹은 영상에 타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등이 디지털 성폭력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에스크’를 이용하여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남기는 행위 또한 디지털 성폭력에 포함된다. 아동들은 디지털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디지털 성폭력이 발생하는 경로와 그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있었다.

새로운 사이버폭력 종류에는 딥페이크가 있는 것 같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얼굴을 다른 사진에다 합성하여 수치감을 주거나 퍼뜨리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n번방 사건 때 ‘지인능욕방’이라는 이름으로 지인의 얼굴을 합성했던 일이다. 또한 요즘에는 오픈채팅방이나 게임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사이버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여학생들의 경우 오픈채팅방에서 그루밍이라고 불리는,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어주고 친근하게 대하여 서로 친밀감을 쌓다가 몸 사진을 요구하거나 하여 나중에는 그 몸 사진으로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다. (G지역)

요즘에는 오픈채팅방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갑자기 자신과 친해지고 싶다고 다가와서 친해진 다음에 갑자기 얼굴 사진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얼굴 사진을 얻어서

어디에다가 사용하냐면 음란물 같은 곳에 얼굴을 따서 편집해, 자연스럽게 조작해서 영상을 퍼트려서 그 얼굴의 주인공을 괴롭히는 수법도 있습니다. (F지역)

에스크에서 의도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질문을 보내거나 사진을 보내고 특정 누군가에게 욕설을 담은 질문을 보내기도 한다. (F지역)

### (3) 사이버폭력 발생 시 대처

사이버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대처 방안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모든 아동이 사이버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답하지는 않았다. 아동들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 후 오히려 피해자나 신고자가 곤란에 처하는 일을 겪기도 하고, 어른이 사이버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오히려 피해가 커지는 일을 겪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사이버폭력이 발생해도 어른에게 알리는 것을 꺼렸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어른들이 사이버폭력을 해결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에 기인하고 있었다.

말해주기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어른들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C지역)

어른한테 말한다고 해서 확실히 해결된다는 보장만 있다면 이야기해 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왕따를 당하는 친구가 있어 반장이 담임선생님께 이야기했는데 왕따가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반장까지 따돌림을 당하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C지역)

사실 사이버폭력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지만 실제로 신고되는 경우는 그보다 더욱 적다. 이는 학생이 직접 부모님에게 말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부모님은 자식이 핸드폰을 조심성 없이 사용해서 그러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더러 피해 학생을 먼저 혼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B지역)

학교 선생님들의 교육이 더 필요하다. 나이가 많은 선생님이 사이버폭력에 둔감하게 대처해서 피해는 보는 사례를 봤다. (B지역)

반대로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답변도 있었다. 실제로 교내에서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이를 부모에게 알려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한 아동은 사이버폭력이 발생하면 어른에게 ‘무조건’ 알려줄 것이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돌아온 결과에 따라 아동이 가지는 어른에 대한 신뢰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무조건 알려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와이파이셔틀을 당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일을 아버지한테 이야기했더니 아버지가 학교에 연락해서 와이파이 셔틀을 친구들이 당하지 않게 와이파이를 학교 전체에 설치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이버폭력이 심해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사소한 말들 때문에 선생님이나 부모님 등 어른들에게 알리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두 번 놀리거나 욕을 하는 것은 내가 예민하다는 생각이 들거나 단순한 장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점점 심각해지고 지속적인 언어폭력이나 협박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느꼈다면 어른들에게 알려 주고 도움을 요청할 것 같습니다. (I지역)

## 2)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

### (1) 정책적 차원에서 필요한 방안

사이버폭력의 예방과 대처를 위해 정책적 차원에서 필요한 방안들이 제안되었다. 우선 사이버폭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동들은 게임을 하다 보면 상대를 비방하거나 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폭력이라고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이에 아동들은 어떤 행위가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을 통해 전달하고, 나아가 인터넷상에서 지켜야 할 규율 등을 정책적으로 의무화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또한 법적으로 사이버폭력을 행하는 사람에 대한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이버폭력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게임을 하다 보면 가끔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하는데 이게 사이버폭력인지 설문을 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친구랑 게임을 하다가 욕하는 일이 자주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가 폭력이고 아닌지에 대해서도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C지역)

사이버상 올바른 행동 및 아동을 사이버상에서 대함에 있어 지켜야 할 규율 등을 제도나 정책으로 의무화하기 (I지역)

정치인들에게 사이버폭력을 하는 이들 중 잘못이란 것을 모르는 이들은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이런 이들을 막는 법이 지금 간절히 필요합니다. (G지역)

사이버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사이버폭력에 대한 처벌이 약한데다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기보다는 ‘나쁜 짓’을 용인받았다고 생각하고 또다시 폭력을 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아동들은 처벌을 강화하여 사이버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였다.

사이버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시켜 주세요. 대부분 사과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 가해자들이 또 사이버폭력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G지역)

정치인들에게는 사이버폭력에 관한 처벌을 더욱더 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처벌이 약하면 나쁜 짓을 벌이고도 처벌이 약하니 ‘더 나쁜 짓을 해도 상관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처벌이 강력하다면 나쁜 짓을 하고 처벌을 받았을 때 강력하니 더이상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는 사이버폭력 같은 일을 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F지역)

학교에서 사이버폭력에 대해 아무리 교육을 해도 계속해서 피해자가 나옵니다. 저의 생각은 법을 더 강력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물론 법을 강력하게 만들어도 그 법을 어기고 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보다 더 강하게 만든다면 피해자도 확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재 인터넷에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거짓된 정보를 퍼뜨리는 경우에 사이버폭력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는데, ‘단순 협박죄’가 성립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이버폭력으로 한 사람이 공포감에 떨고 그 순간만은 너무 무서워서 자살 충동까지 생각한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의 의견은 애초에 가해자가 시도를 못 하게 만들거나 보안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 더 빨리 검거하고, 과태료는 더 올리고 징역도 더 강력하게 3년 이상으로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F지역)

정부에서도 법을 더 강화시킨다면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사이버폭력이나 학교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D지역)

아동들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사이버폭력 피해자나 신고자가 추가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장치, 인터넷에 남아있는 피해자의 기록을 지울 수 있는 ‘디지털장외사’의 제도적 활용, 또래 상담사를 통한 익명 상담 등이 그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괴롭혀지는 아이들이 믿고 신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신고했다가 괜히 자신에게 피해가 오고 친구 관계만 더 안 좋아질까 봐 하지 못해 방조자가 된다. 피해자와 신고자를 확실히 보호해야 한다. 너무 무책임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G지역)

디지털 장의사를 국가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고용하면 어떨까? (중략) 피해자가 좁은 스크린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인터넷에 남아있는 피해자의 과거들을 지워 주는 거야. 만약 피해자가 사이버폭력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한다면 인터넷상에 남아있는 피해자를 향한 욕설이나 비방들을 없애 주는 거지, 그리고 그 비용들도 국가가 책임지고 맡아 해준다면 피해자는 스크린 속에서 나와 세상을 마주 볼 수 있지 않을까? (F지역)

저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찢어진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또래 상담자를 통해 익명으로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래로부터 입은 상처를 치유할 수 사람들은 또래 친구들입니다. 피해학생들의 상처 중에는 어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래 아동들이 상담하고 그것도 익명으로 한다면 마음속에서 꺼낼 수 없었던 이야기들도 꺼낼 수 있게 됩니다. 또래 아동 상담사는 꼭 전문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G지역)

정책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때 아동의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어른의 관점으로 만든 정책보다는 직접 아동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렇게 만들어진 정책이 더욱 실효성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아동들은 어른들이 자신들을 배제하고 정책을 만들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먼저 이해하고’ 그 후에 정책을 수립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우리를 먼저 이해하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이 보기에 안 좋은 것이라도 우리가 볼 땐 하나의 문화나 놀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C지역)

국가적 차원에서 어른들의 관점과 생각만 투철시킨 아동청소년 보호정책이 아닌 시대를 따라가는 정책을 펼쳐야 요즘 아이들을 보호하는 정책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에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때 보다 많은 청소년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을 어른들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학생들과 함께 움직이게 함으로써 보다 실용적이고 유효한 보호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이들에게 무조건 이견 안되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설명하는 게 아닌 안 되는 이유와 그로 인해 피해받는 당사자들의 입장을 보다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B지역)

## (2) 학교 및 교육적 차원에서 필요한 방안

학교와 교육적 차원에서 필요한 사이버폭력 관련 방안으로 가장 많은 아동이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꼽았다. 현재도 학교 차원에서 사이버폭력 교육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내용이 반복적이고 교육 방법 또한 흥미를 유발하지 못해 아동들에게 지루한 수업의 일환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아동들은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교육의 방식이 아동들을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효율적인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추가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점은 반복된 교육을 했을 때 늘 있는 것처럼 성의 없는 교육을 진행하여 아동들이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교육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B지역)

정부에서는 캠페인이나 교육을 학교에서 하면 좋을 거 같은데 내용이 배웠던 게 많아서 듣기 지루하고 앉아 있는 게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육을 실시해도 재미있고 기억에 잘 남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거 같아요. (G지역)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아동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가끔씩 학교에서 사이버폭력에 관해 수업을 할 때 애들은 처음에는 잘 집중을 하더라도 나중에는 집중을 잘 못 하게 됩니다. 집중을 못 하게 된다면 사이버폭력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게 되고, 사이버폭력을 잘 예방하지도 못하겠지요. 그니까 수업 중간중간에 짤막 퀴즈 같은 것을 해서 아이들의 집중도를 높이게 만들어서 수업을 잘 들어서 사이버폭력에 대해서 무슨 종류의 사이버폭력이 있는지, 사이버폭력을 예방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을 잘 알고 사이버폭력을 잘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F지역)

아동들은 예방뿐 아니라 사이버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교육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사이버폭력이 발생했을 때 증거를 수집하고 신고하는 방법을 교육하여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이버폭력이 발생하는 공간이나 가해자의 유형이 다양하므로 피해 상황에 적합한 대처 방안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이버폭력을 당했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교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이버폭력을 당하고도 신고를 하거나 알리는 일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 이유가 '말하기 무서워서' 또는 '신고 절차가 귀찮거나 걱정되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이에게 인지시켜주세요. 증거를 남기는 것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도 알게 해주시면 아이가 다음번에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부모님께 알리거나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F지역)

사이버폭력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이 조심하더라도 외부

요인, 즉 가해자가 지속해서 언어폭력을 가한다면 피해자는 당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최대한 방지하려면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흔히 일어나는 사이버폭력의 유형, 사이버폭력을 대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등을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 표현을 확실히 했음에도 가해자가 사이버폭력을 계속했을 때 아동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의 대처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특히나 같은 학교의 학생, 익명의 계정, 온라인 커뮤니티 등 사이버폭력의 주동자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른 대처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I지역)

사이버폭력을 신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확실히 알려주어 신고 활성화시키기 (G지역)

아동들은 사이버폭력 발생 시 학교 차원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이버폭력 신고를 위한 상담 공간을 마련하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상담 과정을 비밀로 진행하고, 가해자와의 분리를 통해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말을 공개적으로 알려서는 안 되며, 학교 차원에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해 보였다.

특히나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사이버폭력에 대해서 자신이 언급했을 시 2차 가해가 행해질까 두려워 제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차 가해를 최대한 방지하려면, 피해자의 익명 상담 진행, 가해자와의 거리두기 등 피해자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학교 외부에서 괴롭힘을 계속한다면, 이 조치가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동은 학교 내외 모든 곳에서 안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학교에서는 아동이 사이버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조치를 고안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지역)

학생이 선생님한테 가서 하는 말은 공개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나중에 많이 괴롭히기 때문이다. (G지역)

사이버폭력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한 정신적 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학교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지역)

사이버폭력은 결국 학교폭력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다. 학교폭력은 언제든지 SNS나 채팅 메신저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것이 사이버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사이버폭력을 해결하려면 먼저 학교폭력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폭력이 SNS나 카톡 등으로 번질 수 있으니까요. (G지역)

학교폭력이 안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다. (A지역)

### (3) 온라인 플랫폼 차원에서 필요한 방안

사이버폭력이 발생하는 공간인 만큼, 온라인 플랫폼 차원의 사이버폭력 관련 장치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우선 유해사이트에 대한 아동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만큼 누구나 사이버폭력에서 완전히 안전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이버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동에게 유해한 웹사이트나 앱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사이버폭력으로부터 안전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고, 사람들과 소통이 가능한 공간에 접속할 수 있다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웹사이트나 앱을 막는 수 밖에 없습니다. (I지역)

아동에게 피해가 가거나 위험할 만한 사이트, 웹 등을 확실히 파악 후 차단하기 (J지역)

앱 자체에 사이버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나 신고를 위한 기능을 추가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안으로 꼽혔다. 사이버폭력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나 단체 채팅방에서 누군가를 초대할 때 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런 행동을 하면 바로 신고를 할 수 있는 버튼을 메시지 옆이나 카톡 옆에 놔두면 좋겠습니다. (A지역)

단체 채팅방에서 그 방에 다른 사람을 초대하려면 그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추기를 허용 하냐고 물어봐 주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그 기능이 생긴다면 추가 허용을 거절하고 일단 우리끼리 이야기해보자고 말을 해서 사이버폭력까지 가는 일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 같다. (F지역)

사이버공간에서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현재 많은 게임이 비속어를 필터링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나 한글과 영어를 조합하여 만들어

내는 비속어 등은 쉽게 걸러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필터링 기능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 강화하고 카카오톡 등의 채팅메신저에도 비슷한 기능을 생성하여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해 보였다.

채팅 필터를 강화시키고 한글 욕을 영어와 한글을 섞어서 쓰면 채팅이 되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욕이나 비속어가 가끔 채팅 필터로 걸러지지 않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B지역)

카카오톡에 클린봇 생성 (E지역)

사이버 환경 모니터링 강화 (J지역)

#### (4) 어른에게 요구되는 태도

아동들은 사이버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른들이 피해자의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만약 어른이 편견을 가지고 아동을 대하거나 피해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다면 아동들은 사이버폭력을 당한 후에도 어른에게 알리지 않게 될 수도 있다. 이에 아동들은 어른들이 아동에 대한 편견을 지우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동이든, 정치인이든, 선생님이든, 부모님이든 모두 편견을 가지고 대하면 안 됩니다. 피해 학생들을 대한 편견은 학생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더욱 숨기게 되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 학생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고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G지역)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식이 당한 피해 사실을 은폐하려고만 하지 않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나무라지 않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면 피해 학생들은 빨리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G지역)

아동들은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아동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이버폭력을 가버이 여기지 말고 주기적으로 아동의 인터넷 생활을 들여다보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어른의 눈에 장난이나 사소한 싸움처럼 보이더라도 아동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고 관심을 기울이며, 사이버폭력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물어보고 아동의 말에 귀 기울여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예전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폭력이라서 어른들이 피해의 정도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사이버폭력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B지역)

학교에서나 학원, 집에서 어른들이 아동청소년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하시지만 어른의 상황에 맞는 관심만 가져주는 것 같다. (C지역)

선생님과 부모님들은 장난처럼 보이는 행동이여도 다시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H지역)

아이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잘 들어주세요. 그냥 사소한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넘기지 말아주세요. (G지역)

아동들에게 귀 기울여 주세요. 가끔씩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가끔씩 괜찮아라고 말해주세요. (A지역)

부모님이 아이들의 핸드폰을 아주 가끔이라도 신경 써주면 좋겠고 학교에서도 사이버폭력에 대해 잘 알려주면 좋겠다. (D지역)

어른들이 가끔씩 아이들의 대화 내용을 검사하거나 자주 비공개로 설문조사를 해서 사이버폭력을 당한 사람이 있는지 검사한다. (E지역)

이러한 관심을 기반으로 사이버폭력과 관련하여 가정교육이 필요해 보였다. 아동들은 양육자가 아동의 인터넷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동이 사이버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사이버폭력이 발생했을 때 아동이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나아가 인터넷 공간에서 타인을 존중할 수 있도록 가정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무엇을 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자녀에게 사이버상의 상대방을 현실처럼 존중하도록 알려주고, 평소에 자녀들이 바른 언어 습관을 기르도록 돕는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무분별한 사용 제한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 피해 시 도움 요청 기관에 대해 알려주고 자녀가 사이버상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F지역)

부모님들에게는 아이가 SNS 등을 사용할 때 중간중간에 사이버폭력을 당하는지, 사이버폭력을 행하는지를 재차 물어봐서 그 아이에게 사이버폭력은 이런 것이며, 이런 짓은 사이

버폭력이나 절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인식과 사이버폭력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면, 똑같이 사이버폭력을 같이 행하면 안되고, 그때는 부모님이나 주위 선생님들께 말씀드 리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 해주는 것이 좋을것같다. (F지역)

#### (5) 아동 개인 차원에서 필요한 노력

아동들은 사이버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 개개인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 였다. 우선 사이버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유해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아야 하며, 접근하기 전에 안전한 사이트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모르거나 위험하다고 알려진 사이트를 호기심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기. 호기심은 곧 위 험이 됩니다. (B지역)

아동들이 사이버 사이트를 들어가거나 그럴 시에는 부모님께 알리도록 하고 만약 부모님 께 알릴 수 없는 내용이라거나 숨기고 싶은 내용이라면 이 사이트가 들어가도 되는지 확인 을 하고 안전하다면 들어가는 게 맞고 부적절하다면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맞다. (H지역)

아동들은 인터넷을 이용할 때 자신을 돌아보고 행위를 점검하는 노력을 기울 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자신은 가벼운 장난이지만 타인에게는 큰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숙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무심코 저지른 폭력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상처로 남을 수 있는 만큼 아동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말하기 전, 행동하기 전, 3초만 생각해보라는 성폭력 관련 포스터처럼 폭력을 하기 전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C지역)

자신은 가볍다고 시작한 장난이 순식간에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 하면서 절대로 사이버폭력을 가하지 말고. (F지역)

3인칭 시점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좀'이란 생각이 든다면 그 생각이 맞습니다. 그땐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그만두어야 합니다. 신체적 학대는 아물기라도 하지만 정신적 학대 는 아물지 않습니다.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행동이 누군가의 남은 30~40년의 인생을 망치 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G지역)

사이버폭력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아동 들 또한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자신 또한 언제든 사이버폭력의 피해자

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폭력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다. 실제로 가상 사이버폭력 앱을 실행해본 아동은 그때의 경험을 상기하며 ‘가슴이 덜컹’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예전에 사이버폭력 가상 앱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문자를 보내고 욕설이 오는데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H지역)

나도 언젠간 폭력을 당할 수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하고 폭력을 당하는 사람이 결국 우리의 친구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C지역)

다른 아동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이버폭력 피해자가 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다 피해자가 자기 자신이 됩니다. 또한 방관자가 되지 마세요. 방관자는 처벌이 없을 수 있고 낮을 수 있다고 해도 폭력 가해자가 똑같이 되는 겁니다. (G지역)

아동들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태도라고 생각하였다. 상대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이라고 해도 폭력으로 인한 상처는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생길 수 있다. 결국 상처를 입히는 것은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는 개인이므로, 개인들이 폭력을 행하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해 보였다.

저는 아동들이 사이버폭력을 행하지 않으면 애초에 사이버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SNS를 아예 안 한다거나 법 강화의 방법들이 있지만 그래도 폭력을 행할 사람은 행할 것입니다. 아동들의 마음가짐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F지역)

다른 아동들에게는 서로의 다른 점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I지역)

여러분 사이버상에서는 비록 상대방의 얼굴이 안 보이고, 나의 모습이나 신분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서 양심을 속이면서 우리가 비속어 또는 따돌림을 하면 상대방의 인권이 침해됨과 동시에 인생과 마음에 큰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상에서는 서로 예의를 지키고 배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J지역)

아동들은 사이버폭력을 목격했다면 이를 방관하지 말고 다가가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자신이 사이버폭력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는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더 큰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혹시나 사이버폭력을 당하는 학생을 본다면 주저하지 말고 다가가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F지역)

혹시나 사이버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끄공대지 말고 주변 어른이나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 (F지역)

아동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만약 본인이 사이버폭력을 당했다면 고민하지 않고 어른들 전문 기관에 알린다면 더 큰 일이 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이버폭력을 당한다면 바로 주변에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지역)

## 4. 결론 및 논의

### 1) 양적연구 결론 및 논의

폐쇄형 설문조사에 대한 아동의 답변을 부모, 친구관계 및 인터넷 이용 특성, 사이버폭력 관련 교육경험 및 피해 특성, 사이버폭력 가해 특성, 혐오표현 및 성착취물 시청, 사이버폭력 원인 및 대책의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및 친구와의 관계와 평일 및 주말/휴일 인터넷 이용시간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여자아동이 남자아동에 비해, 그리고 학교급이 높을수록 인터넷 이용시간이 길었다.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틱톡 등),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에스크 등), 온라인 게임이 아동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메타버스(제페토, 로블록스, 이프랜드 등) 플랫폼의 이용도 빈번하였다. 남자아동들은 90%가 온라인 게임을 사용하였고, 여자아동들은 60~70%가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틱톡 등),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에스크 등)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고등학생이 초등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인터넷에서의 위험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와의 관계는 인터넷 위험행동과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성별에 따른 인터넷 이용 시간과 서비스의 차이, 그리고 부모 관계와 인터넷 상 위험행

동의 부적 상관관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이버폭력 관련 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비율이 25~30%를 차지하여, 사이버폭력 교육이 아동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이버폭력 유형 가운데, 언어폭력 피해 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생이 사이버따돌림 피해경험을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에 비해 유의한 수준에서 많이 경험하였고, 사이버 성폭력 피해 경험은 여자아동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사이버 언어폭력 피해는 온라인 게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는데, 남자아동이 여자아동에 비해 피해가 많았고,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의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온라인 게임 이외에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에스크 등),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틱톡 등)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언어폭력은 여학생들의 피해가 많았고, 이는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에서 폭력 피해를 경험하기 쉽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남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게임에서의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따돌림 피해도 남학생들에게 많이 발생하였다. 초등학생이 많이 이용하는 메타버스(제페토, 로블록스, 이프랜드 등) 플랫폼에서의 사이버 언어폭력 피해는 초등학생에게 많이 발생하였다.

반면,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에스크 등)는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틱톡 등)에 이어 초중고등학생 모두 두 번째로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였지만, 이 곳에서 일어나는 사이버스토킹, 성폭력, 따돌림 피해는 중학생들에게서 월등히 많이 보고되었다. SNS에서의 명예훼손도 마찬가지로 중학생의 피해가 많았다. 중학생들이 특히 사이버폭력에 취약한 집단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아동들이 어떤 사이버 공간에서 어떤 사이버폭력을 경험하는지를 이해하는데 성별, 학교급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겠다. 여학생들은 선배나 후배로부터의 사이버폭력 피해가 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셋째, 사이버폭력 가해에 있어서도 언어폭력 비율이 가장 높았고 피해경험에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게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사이버 따돌림 가해는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에스크 등)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명예훼손은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틱톡 등)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피해경험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게임에서 발생하는

언어폭력, 명예훼손, 따돌림 가해는 남자아동이 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에스크 등) 혹은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틱톡 등)에서 발생한 언어폭력, 명예훼손, 따돌림은 중학생이 가해자인 경우가 초등학교 고등학생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남자아동은 사이버폭력 가해 사실을 주변친구들이 알고 있는 경우가 여자아동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가해 행동에서 역시, 성별이나 학교급이 어떤 행동을 어디서 하는지 그리고 가해 이후 누구와 가해 사실을 공유하는지 등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사이버폭력 상담 및 신고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아는 경우 보다 15%이상 많았고, 아동들은 사이버폭력 발생 이유를 가해자가 재미나 장난으로 생각하거나 나쁜 생각, 행동을 하기 때문, 혹은 관련된 법이나 제도가 부족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아동들은 사이버폭력 대책도 관련된 법이나 제도를 통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인터넷에서의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철저히 관리하고 규칙을 만드는 것, 학교에서 더 많은 아동청소년에게 효과적인 예방 교육을 하는 것의 순서로 선호하였다.

## 2) 질적연구 결론 및 논의

개방형 설문조사에 대한 아동의 서술형 답변을 ‘사이버폭력 현황’과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의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질적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폭력은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아동을 고립시키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사이버폭력은 주로 카카오톡으로 대표되는 채팅 메신저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이용하여 발생하고 있었다. 기존 채팅 메신저를 이용한 사이버폭력은 주로 피해자를 채팅방에 가두어 욕설을 퍼붓거나 홀로 남겨놓는 형태로 발생하였다. SNS를 이용한 사이버폭력은 여기에 괴롭힘을 전시한다는 특징을 더한다. 타인에게 공개된 곳에서 피해자를 괴롭힘으로써 누구나 가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가해가 발생하면 이를 또다시 전시하면서 피해자를 고립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결국 사이버폭력은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집단적인 괴롭힘을 통해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최근에는 익명 질문을 기반으로 한 ‘에स्क’ 서비스를 통해서도 사이버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애스크는 차단, 삭제 기능과 계정 이용자가 지정한 특정 단어를 필터링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차단하기 전에는 이용자가 질문 내용을 모두 읽을 수밖에 없다는 맹점을 가진다. 또한 일부 애스크 서비스는 이용자가 답하기 전에 질문이 타인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단체로 악성 댓글을 다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어 집단적 괴롭힘의 공간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사이버폭력이 발생했을 때 아동의 대처 방안은 ‘어른에게 알린다’와 ‘알리지 않는다’로 나뉘었다. 어른에게 알리지 않겠다는 의견의 기저에는 어른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 어른이 사이버폭력에 둔감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오히려 어른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신고자까지 곤란하게 만드는 상황을 유발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주목할 점은 해당 아동이 어른에게서 학교폭력 해결에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어른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겠다고 말한 아동 중 일부는 어른에게 문제를 알렸을 때 해결되지 않고 피해가 커진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어른이 아동이 직면한 어려움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향후 사이버폭력 발생 시 아동의 대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아동들은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아동의 인터넷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사이버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이버폭력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어른이나 전문 기관에 알리는 것이 더 큰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도 하였다. 아동이 어른에게 가지고 있는 불신을 없애고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른이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셋째, 사이버폭력의 기준과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아동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점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가해자에 대한 제재 수위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이버폭력을 ‘사이버(인터넷, 스마트폰 등)공간에서 언어, 문자, 영상 등을 통해 타인에게 피해 혹은 불안감, 불쾌감 등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사이버 언어폭력·명예훼손·스토킹·성폭력·따돌림·갈취·강요, 신상정보유출 등을 사이버폭력에 포함하고 있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 이는 교육을 통해 아동에게 전달해야 할 내용이다. 그러나 아동들에게 사이버폭력 관련 교육이 흥미를 끌지 못하는 지루한 수업으로 인식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현행법에 사이버폭력에 대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아 개별법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데, 유일하게 사이버 따돌림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적용 대상이 교내 학생으로 한정되고 처벌은 교내 징계로 규정되어 있다(최진응, 2022). 이로 인해 아동들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사이버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 조치가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 〈참고문헌〉

- 김병찬 (2012). 핀란드의 키바 코울루(KiVa Koulu) 프로그램 및 한국교육에 주는 시사점.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최진응 (2022). 사이버폭력 규제를 위한 입법과제: 사이버폭력 정의규정 신설과 플랫폼 책임강화를 중심으로. 이슈와 논점 제1970호.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 2021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경기: 방송통신위원회.

## [참조 1] 사이버상 폭력 현황 폐쇄형 설문

### 2022년 사이버 폭력 현황 설문 “사이버 상에서 아동은 안전한가?”

####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 본 설문은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아동이 사이버 상에서 보호 받을 권리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 본 설문은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만 10세 이상~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이 설문에는 여러분의 나이와 성별 등에 관한 질문과 사이버 폭력에 관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 질문에는 맞거나 틀린 답이 없습니다. 응답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고**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설문에 참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0~15분입니다.
- 설문을 잘 읽고 해당되는 것에 체크(✓)해 주세요.
- 연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9월 한국아동단체협의회

※ 이번 조사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아동단체협의회 02-831-1933

※ 본 자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아동단체협의회의 특별 저작물입니다. 서면으로 공식 허락을 받지 않으면 내용의 일부나 전체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재가공하거나 무단전재,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 동의서

아래의 사항을 확인한 후, 설문에 참여하길 원한다면 “동의함”에 표시해주시시오.

- 나는 이 안내문을 읽었습니다.
- 나는 설문에 참여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번~6번 문항은 개인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해 주세요.

1. 어떤 학교에 다니고 있나요?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안학교 ⑤ 학교에 다니지 않음
  
- 1-1. 몇 학년 인가요?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⑤ 5학년 ⑥ 6학년
  
2. 성별은 무엇인가요?  
 ① 여성 ② 남성 ③ 기타
  
3. 어느 지역에 살고 있나요?  
 ① 강원도 ② 경기도 ③ 경상도 ④ 광주광역시  
 ⑤ 대구광역시 ⑥ 대전광역시 ⑦ 부산광역시 ⑧ 서울특별시  
 ⑨ 세종특별자치시 ⑩ 울산광역시 ⑪ 인천광역시 ⑫ 전라도  
 ⑬ 제주특별자치도 ⑭ 충청도
  
4.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표시해 주세요.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도 모두 표시해 주세요. (단,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은 제외)  
 ① 할아버지 ② 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새아버지 ⑥ 새어머니 ⑦ 형제 또는 자매 ⑧ 친척  
 ⑨ 기타(적어주세요:                    ) ⑩ 없음

5. 여러분의 가정과 보호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모님이나 같이 살고있는 보호자를 기준으로 다음 각 항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말해 주세요.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보호자)은 내 일은 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격려해 주신다				
2)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관심 있게 물어 보신다				
3) 부모님(보호자)은 사소한 것도 여쭙보면 잘 듣고 응답해 주신다				

6. 다음은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항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말해 주세요.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서로 생각이 달라도 존중해 준다				
2)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들어 준다				
3) 나는 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를 솔직하게 털어 놓는다				

7. (1번에서 1~4를 선택한 경우: 학교에 다니는 경우) 자신의 지난 학기 학업 성적(2022년 1학기)은 반에서 대략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요? 비밀이 보장되니 솔직히 답해 주세요.

- ① 매우 못하는 수준    ② 못하는 수준    ③ 중간  
 ④ 잘하는 수준        ⑤ 매우 잘하는 수준

8. 자신의 가정형편(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나요? 비밀이 보장되니 솔직히 답해 주세요.

매우 못 산다			보통 수준		매우 잘 산다	
1	2	3	4	5	6	7

다음은 인터넷 이용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인터넷 이용이란:**  
 여기서 인터넷 이용이란 개인용 컴퓨터(PC)뿐만 아니라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기기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는 인터넷 관련 모든 활동을 뜻합니다. (공부하기, 정보 검색하기,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하기, 동영상(유튜브 등)보기, TV보기, 음악듣기, 게임하기 등)

9. 평일과 주말/방학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하루 평균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미만	2시간~3시간 미만	3시간~4시간 미만	4시간~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평일(월~금)						
주말(토,일) 및 방학						

10. 인터넷을 이용할 때 다음 중 어떤 것을 가장 많이 이용하나요? (1, 2, 3순위 까지 표시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3순위:                   )

- 1)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에스크 등)
- 2) 커뮤니티 동호회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클럽 등)
- 3)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틱톡 등)
- 4) 메타버스(제페토, 로블록스, 이프랜드 등) 플랫폼
- 5) 개인 홈페이지
- 6) 이메일
- 7) 온라인 게임
- 8) 기타(자세히:                   )

11. 다음은 인터넷을 이용할 때 행동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항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말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개인정보(이름, 학교, 연락처, 주소 등)를 온라인에 공개한다				
2) 나는 모르는 사람과 온라인에서 대화나 연락한다				
3) 나는 모르는 사람을 친구목록에 추가한다				
4) 나는 온라인에서 만난 낯선 사람에게 개인정보(이름, 학교, 연락처, 주소 등)를 보낸다				
5) 나는 의도적으로(내 스스로) 성인용 사이트에 접속한다				
6) 나는 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과 성적인 대화를 한다				

12. 지난 1년 간(2021년 8월~ 2022년 7월)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관련 교육을 총 몇 번이나 받았습니까?

- 1) 한 번도 받지 않음
- 2) 한 두 번 정도 받음
- 3) 여러 번 받음
- 4) 잘 기억이 나지 않음

13. 인터넷을 이용할 때,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나 말이 사이버폭력인지 아닌지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잘 안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모른다					매우 잘 안다	
1	2	3	4	5	6	7

다음은 인터넷을 이용할 때 다른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14.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해 “누군가로부터 나(또는 나를 대신하는 온라인 캐릭터)를 욕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나요?

1) 예    2) 아니오

14-1. (14번이 ‘예’인 경우만) 누군가로부터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나(또는 나를 대신하는 온라인 캐릭터)를 욕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들었나요? 모두 체크해 주세요.

- 1)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에스크 등)를 통해서
- 2) 커뮤니티 동호회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클럽 등)에서
- 3)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틱톡 등)를 통해서
- 4) 메타버스(제페토, 로블록스, 이프랜드 등) 플랫폼에서
- 5) 개인 홈페이지에서
- 6) 이메일을 통해서
- 7) 온라인 게임에서
- 8) 기타(자세히:            )

15.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해 ”누군가가 나(또는 나를 대신하는 온라인 캐릭터)에 대해 거짓된 이야기나 과장된 이야기를 퍼뜨린 적이 있나요?

1) 예    2) 아니오

15-1. (15번이 ‘예’인 경우만) 누군가가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나(또는 나를 대신하는 온라인 캐릭터)에 대해 거짓된 이야기나 과장된 이야기를 퍼뜨렸나요? 모두 체크해 주세요.

- 1)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에스크 등)를 통해서

- 2) 커뮤니티 동호회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클럽 등)에서
- 3)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틱톡 등)를 통해서
- 4) 메타버스(제페토, 로블록스, 이프랜드 등) 플랫폼에서
- 5) 개인 홈페이지에서
- 6) 이메일을 통해서
- 7) 온라인 게임에서
- 8) 기타(자세히:            )

16.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해 "누군가가 내(또는 나를 대신 하는 온라인 캐릭터)가 싫어하는데도 이메일이나 쪽지를 계속 보내거나 블로그, SNS 등에 계속 방문해 글이나 사진을 남긴 적이 있나요?

- 1) 예    2) 아니오

16-1. **(16번이 '예'인 경우만)** 누군가가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내(또는 나를 대신하는 온라인 캐릭터)가 싫어하는데도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계속 보내거나 블로그, SNS 등에 계속 방문해 글이나 사진을 남겼나요? 모두 체크해 주세요.

- 1)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에스크 등)를 통해서
- 2) 커뮤니티 동호회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클럽 등)에서
- 3)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틱톡 등)를 통해서
- 4) 메타버스(제페토, 로블록스, 이프랜드 등) 플랫폼에서
- 5) 개인 홈페이지에서
- 6) 이메일을 통해서
- 7) 온라인 게임에서
- 8) 기타(자세히:            )

17.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해 ”누군가 내(또는 나를 대신하는 온라인 캐릭터)가 싫어할 줄 알면서도 선정적인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나에게 보내거나 보내 달라고 한 적이 있나요?

1) 예    2) 아니오

17-1. **(17번이 ‘예’인 경우만)** 누군가가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선정적인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보내거나 보내 달라고 했나요? 모두 체크해 주세요.

- 1)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에스크 등)를 통해서
- 2) 커뮤니티 동호회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클럽 등)에서
- 3)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틱톡 등)를 통해서
- 4) 메타버스(제페토, 로블록스, 이프랜드 등) 플랫폼에서
- 5) 개인 홈페이지에서
- 6) 이메일을 통해서
- 7) 온라인 게임에서
- 8) 기타(자세히:            )

18.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해 ”누군가가 온라인 공간에서 나(또는 나를 대신하는 온라인 캐릭터)의 신상정보(이름, 사는 곳, 학교, 사진 등)을 퍼뜨린 적이 있나요?

1) 예    2) 아니오

18-1. **(18번이 ‘예’인 경우만)** 누군가가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온라인에서 나(또는 나를 대신하는 온라인 캐릭터)의 신상정보(이름, 사는 곳, 학교, 사진 등)을 퍼뜨렸나요? 모두 체크해 주세요.

- 1)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에스크 등)를 통해서
- 2) 커뮤니티 동호회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클럽 등)에서
- 3)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틱톡 등)를 통해서
- 4) 메타버스(제페토, 로블록스, 이프랜드 등) 플랫폼에서
- 5) 개인 홈페이지에서

- 6) 이메일을 통해서
- 7) 온라인 게임에서
- 8) 기타(자세히:            )

19.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해 "여러 명이 같이 나(또는 나를 대신하는 온라인 캐릭터)를 놀리거나 욕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적이 있나요?

- 1) 예    2) 아니오

19-1. (19번이 '예'인 경우만)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 명이 같이 나(또는 나를 대신하는 온라인 캐릭터)를 놀리거나 욕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나요? 모두 체크해 주세요.

- 1)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에스크 등)를 통해서
- 2) 커뮤니티 동호회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클럽 등)에서
- 3)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틱톡 등)를 통해서
- 4) 메타버스(제페토, 로블록스, 이프랜드 등) 플랫폼에서
- 5) 개인 홈페이지에서
- 6) 이메일을 통해서
- 7) 온라인 게임에서
- 8) 기타(자세히:            )

20.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해 "누군가가 나(또는 나를 대신하는 온라인 캐릭터)의 사이버(게임) 머니, 스마트폰 데이터, 아이템 등을 빼앗은 적이 있나요?

- 1) 예    2) 아니오

20-1. (20번이 '예'인 경우만) 누군가가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나(또는 나를 대신하는 온라인 캐릭터)의 사이버(게임) 머니, 스마트폰 데이터, 아이템 등을 빼앗았나요? 모두 체크해 주세요.

- 1)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에스크

- 등)를 통해서
- 2) 커뮤니티 동호회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클럽 등)에서
  - 3)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틱톡 등)를 통해서
  - 4) 메타버스(제페토, 로블록스, 이프랜드 등) 플랫폼에서
  - 5) 개인 홈페이지에서
  - 6) 이메일을 통해서
  - 7) 온라인 게임에서
  - 8) 기타(자세히:            )

21.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해 "누군가가 내(또는 나를 대신하는 온라인 캐릭터)가 원치 않는 말/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나요?

- 1) 예    2) 아니오

21-1. **(21번이 '예'인 경우만)** 누군가가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내(또는 나를 대신하는 온라인 캐릭터)가 원치 않는 말/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심부름을 시켰나요? 모두 체크해 주세요.

- 1)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에스크 등)를 통해서
- 2) 커뮤니티 동호회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클럽 등)에서
- 3)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틱톡 등)를 통해서
- 4) 메타버스(제페토, 로블록스, 이프랜드 등) 플랫폼에서
- 5) 개인 홈페이지에서
- 6) 이메일을 통해서
- 7) 온라인 게임에서
- 8) 기타(자세히:            )

22. **(위의 14 ~ 21번 중 하나라도 괴롭힘을 당해서 '예'라고 답한 경우)**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나를 괴롭힌 사람은 주로 누구였나요?

- 1) 연예인, 스포츠 선수, 정치인 등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



이번에는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힌 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비밀을 지키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을 것입니다.

25.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해 “다른 사람(또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온라인 캐릭터)를 욕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 적”이 있나요?

1) 예    2) 아니오

25-1. (25에서 ‘예’인 경우만)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다른 사람(또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온라인 캐릭터)에게 욕을 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했는지 모두 체크해 주세요.

- 1)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에스كد 등)를 통해서
- 2) 커뮤니티 동호회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클럽 등)에서
- 3)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틱톡 등)를 통해서
- 4) 메타버스(제페토, 로블록스, 이프랜드 등) 플랫폼에서
- 5) 개인 홈페이지에서
- 6) 이메일을 통해서
- 7) 온라인 게임에서
- 8) 기타(자세히:            )

26.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해 “다른 사람(또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온라인 캐릭터)에 대해 거짓된 이야기나 과장된 이야기를 퍼뜨린 적이 있나요?”

1) 예    2) 아니오

26-1. (26에서 ‘예’인 경우만)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다른 사람(또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온라인 캐릭터)에 대해 거짓된 이야기나 과장된 이야기를 퍼뜨렸나요? 모두 체크해 주세요.

- 1)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에스كد

등)를 통해서

- 2) 커뮤니티 동호회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클럽 등)에서
- 3)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틱톡 등)를 통해서
- 4) 메타버스(제페토, 로블록스, 이프랜드 등) 플랫폼에서
- 5) 개인 홈페이지에서
- 6) 이메일을 통해서
- 7) 온라인 게임에서
- 8) 기타(자세히:            )

27.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해 "다른 사람(또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온라인 캐릭터)이 싫어하는데도 이메일이나 쪽지를 계속 보내거나 블로그, SNS 등에 계속 방문해 글이나 사진을 남긴 적이 있나요?

- 1) 예    2) 아니오

27-1. (27에서 '예'인 경우만)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다른 사람(또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온라인 캐릭터)이 싫어하는데도 이메일이나 쪽지를 계속 보내거나 블로그, SNS 등에 계속 방문해 글이나 사진을 남겼나요? 모두 체크해 주세요.

- 1)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에스크 등)를 통해서
- 2) 커뮤니티 동호회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클럽 등)에서
- 3)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틱톡 등)를 통해서
- 4) 메타버스(제페토, 로블록스, 이프랜드 등) 플랫폼에서
- 5) 개인 홈페이지에서
- 6) 이메일을 통해서
- 7) 온라인 게임에서
- 8) 기타(자세히:            )

28.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해 "다른 사람(또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온라인 캐릭터)이 싫어할 줄 알면서도 선정적인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보내거나 보내달라고 한 적이 있나요?

1) 예 2) 아니오

28-1. (28에서 '예'인 경우만)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다른 사람(또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온라인 캐릭터)이 싫어할 줄 알면서도 선정적인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보내거나 보내달라고 했나요? 모두 체크해 주세요.

- 1)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에스크 등)를 통해서
- 2) 커뮤니티 동호회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클럽 등)에서
- 3)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틱톡 등)를 통해서
- 4) 메타버스(제페토, 로블록스, 이프랜드 등) 플랫폼에서
- 5) 개인 홈페이지에서
- 6) 이메일을 통해서
- 7) 온라인 게임에서
- 8) 기타(자세히:            )

29.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해 "온라인 공간에 다른사람(또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온라인 캐릭터)의 신상정보(이름, 사는 곳, 학교, 사진 등)을 퍼뜨린 적이 있나요?"

1) 예 2) 아니오

29-1. (29에서 '예'인 경우만)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온라인 공간에서 다른 사람(또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온라인 캐릭터)의 신상정보(이름, 사는 곳, 학교, 사진 등)를 퍼뜨렸나요? 모두 체크해 주세요.

- 1)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에스크 등)를 통해서
- 2) 커뮤니티 동호회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클럽 등)에서
- 3)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틱톡 등)를 통해서
- 4) 메타버스(제페토, 로블록스, 이프랜드 등) 플랫폼에서
- 5) 개인 홈페이지에서
- 6) 이메일을 통해서

- 7) 온라인 게임에서
- 8) 기타(자세히:            )

30.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해 "여러 명이 같이 다른 사람(또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온라인 캐릭터)을 놀리거나 욕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적이 있나요?

- 1) 예      2) 아니오

30-1. (30에서 '예'인 경우만)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 명이 같이 다른 사람(또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온라인 캐릭터)을 놀리거나 욕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나요? 모두 체크해 주세요.

- 1)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에스크 등)를 통해서
- 2) 커뮤니티 동호회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클럽 등)에서
- 3)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틱톡 등)를 통해서
- 4) 메타버스(제페토, 로블록스, 이프랜드 등) 플랫폼에서
- 5) 개인 홈페이지에서
- 6) 이메일을 통해서
- 7) 온라인 게임에서
- 8) 기타(자세히:            )

31.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해 "다른 사람(또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온라인 캐릭터)의 사이버(게임) 머니, 스마트폰 데이터, 아이템 등을 빼앗은 적이 있나요?

- 1) 예      2) 아니오

31-1. (31에서 '예'인 경우만)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다른 사람(또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온라인 캐릭터)의 사이버(게임) 머니, 스마트폰 데이터, 게임 아이템 등을 빼앗았나요? 모두 체크해 주세요.

- 1)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에스크 등)를 통해서

- 2) 커뮤니티 동호회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클럽 등)에서
- 3)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틱톡 등)를 통해서
- 4) 메타버스(제페토, 로블록스, 이프랜드 등) 플랫폼에서
- 5) 개인 홈페이지에서
- 6) 이메일을 통해서
- 7) 온라인 게임에서
- 8) 기타(자세히:            )

32.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해 "다른 사람(또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온라인 캐릭터)이 하기를 원치 않는 말/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나요?

- 1) 예    2) 아니오

32-1. (32에서 '예'인 경우만)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다른 사람(또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온라인 캐릭터)에게 원치 않는 말/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심부름을 시켰나요? 모두 체크해 주세요.

- 1)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에스크 등)를 통해서
- 2) 커뮤니티 동호회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클럽 등)에서
- 3)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틱톡 등)를 통해서
- 4) 메타버스(제페토, 로블록스, 이프랜드 등) 플랫폼에서
- 5) 개인 홈페이지에서
- 6) 이메일을 통해서
- 7) 온라인 게임에서
- 8) 기타(자세히:            )

33. (25~32번에서 다른 사람(또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온라인 캐릭터)를 괴롭힌 적이 있어서 하나라도 '예'인 경우만) 내가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동을 한 사실을 주변에서 알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1) 아무도 모른다
- 2) 내가 한 행위를 상대방은 알고 있다
- 3) 친구들이 알고 있다
- 4) 부모 또는 형제자매 등 가족이 알고 있다
- 5) 선생님이 알고 계신다

34. 지금까지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다른 사람을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표현을 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나요?

인종, 국적, 종교, 성별, 장애, 신체나 외모, 가정형편, 학벌이나 학력, 출신 지역, 나이가 많음, 다문화 가정 출신, 성소수자(동성애자나 양성애자와 같이 이성 외에 같은 성별에 애정을 느끼는 사람)

- 1) 한 번도 없다    2) 거의 없다    3) 가끔 한 적이 있다
- 4) 자주 하였다    5) 거의 매일 하고 있다

35. 지금까지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촬영물이나 영상물 중 어느 것이라도 본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나요?

-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 혹은 타인의 성적인 행위를 촬영하여 인터넷에 퍼뜨린 사진이나 동영상
- 다른 사람의 사진을 성적인 내용의 사진과 합성하여 이름, 학교같은 정보와 함께 인터넷에 퍼뜨린 것
- 채팅 앱으로 음란한 행위를 녹화한 동영상

- 1) 한 번도 없다    2) 거의 없다    3) 가끔 본 적이 있다
- 4) 자주 본 적이 있다    5) 거의 매일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폭력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끝까지 잘 읽고 답변해 주세요.**

36.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중에 발생하는 사이버폭력에 대해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나 전화번호 등에 대해 알고 있나요?

- 1) 예    2) 아니오

37. **(36번의 '예' 응답자만)** 사이버폭력에 대해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나 전화번호 중 알고 있는 내용을 모두 체크해 주세요.

- 1) 푸른나무재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 [www.btf.or.kr](http://www.btf.or.kr) (전화: 1588-9128)
- 2)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www.cyber1388.kr](http://www.cyber1388.kr) (전화: 1388/ 문자 #000011388)
- 3) 안전Dream센터(구 경찰청 학교폭력 신고센터) [www.safe182.go.kr](http://www.safe182.go.kr) (전화 : 117/ 문자 30117)
- 4) 학교폭력 피해자가족협의회: [www.uri-i.or.kr](http://www.uri-i.or.kr) (전화: 02- 582-8118)
- 5) Wee센터: [www.wee.go.kr](http://www.wee.go.kr) (전화: 1588-7199)
- 6)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s://cyberbureau.police.go.kr>(전화: 1566-0112)
- 7)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기관별로 번호가 다름
- 8)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https://d4u.stop.or.kr> (전화: 02-735-8994)

38. 사이버 폭력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1, 2, 3순위까지 골라주세요)

(1순위           , 2순위           , 3순위           )

- 1) 사이버폭력을 재미나 장난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 2) 가해자들의 나쁜 생각과 행동 때문에
- 3) 피해자들이 원인을 제공하여서
- 4)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충실하게 관리하지 않아서

- 5) 관련된 법이나 제도가 부족해서
- 6) 예방교육이 부족해서

39. 사이버폭력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1, 2, 3순위까지 골라주세요)

(1순위           , 2순위           , 3순위           )

- 1) 학교에서 더 많은 아동청소년에게 효과적인 예방 교육을 하는 것
- 2) 국가에서 더 많은 어른들에게 효과적인 예방 교육을 하는 것
- 3) 보호자들이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을 잘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
- 4) 아동청소년들 스스로가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괴롭히는 행동을 보면 신고하는 것
- 5)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인터넷에서의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철저히 관리하고 규칙을 만드는 것
- 6) 관련된 법이나 제도를 통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설문 참여에 관한 사례로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래에 정보제공 동의와 모바일 상품권을 받으실 휴대폰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귀하는 동의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당사(아동단체협의회)가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하는자: 아동단체협의회
- 수집항목: 휴대폰 번호
- 이용목적: 설문 참여 사례비(모바일 상품권) 발송
- 보유기간: 모바일 상품권을 발송할 때까지

상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설문 참여 사례비(모바일 상품권) 지급이 제한됩니다.

1)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네       아니오

2) 상품권 기프티콘을 받으실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예: 010-0000-0000)

---

## [참조 2] 사이버상 폭력 현황 개방형 설문

### 개방형 질문

질문 1. 혹시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것 말고도, 여러분들 사이에서 알려진 새로운 사이버 폭력 내용(예. 집단 따돌림)이나 발생 공간(예. 페이스북)이 있다면 어른들에게 알려줄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질문 2. 어떻게 하면 아동, 청소년들이 사이버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요? 어른들(부모님, 선생님, 정치인 등)이나 다른 아동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나요?

### <<참고자료>>

#### **\*\*설문내용에 포함된 사이버 폭력 내용\*\***

- 1) 욕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 것(언어폭력)
- 2) 거짓되거나 과장된 이야기를 퍼뜨림(명예훼손)
- 3) 싫어하는데도 이메일이나 쪽지를 계속 보내거나 블로그, SNS 등에 계속 방문해 글이나 사진을 남기기(스토킹)
- 4) 싫어할 줄 알면서도 선정적인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보내거나 보내달라고 함(성폭력)
- 5) 신상정보(이름, 사는 곳, 학교, 사진 등)를 아무에게나 퍼뜨리기(개인정보 유출)
- 6) 여러 명이 같이 한 사람을 놀리거나 욕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집단 따돌림)
- 7) 사이버(게임)머니, 스마트폰 데이터, 아이템 등을 빼앗기(갈취)
- 8) 원하지 않는 행동을 강요하거나 심부름 시키기(강요)
- 9) 아래와 같은 이유로 다른 사람을 조롱하거나 비난하기(디지털 혐오)

인종, 국적, 종교, 성별, 장애, 신체나 외모, 가정형편, 학벌이나 학력, 출신 지역, 나이가 많음, 다문화가정 출신, 성소수자(동성애자나 양성애자와 같이 이성 외에 같은 성별에 애정을 느끼는 사람)

10) 아래와 같은 행동(디지털 성범죄)

- 동의 없이 신체 혹은 성적인 행위를 촬영하여 인터넷에 퍼뜨리거나 가지고 있거나 보는 것
- 다른 사람의 사진을 성적인 내용의 사진과 합성하여 이름, 학교 같은 정보와 함께 인터넷에 퍼뜨리거나 가지고 있거나 보는 것
- 채팅 앱으로 다른 사람의 음란한 행위를 녹화하거나 가지고 있거나 그 영상을 보는 것

**\*\* 설문내용에 포함된 사이버 폭력 발생 공간 \*\***

-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에스크등)
- 커뮤니티 동호회 (네이버, 다음 카페, 클럽 등)
-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틱톡등)
- 메타버스 (제페토, 로블릭스, 이프랜드등)
- 개인 홈페이지
- 이메일
- 온라인 게임



---

# 03

---

## 권역별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



# 경기1 LENS

LENS	강가은, 최재혁, 양준석
코디 네이터	이지나

활동주제	
공통주제	사이버(온라인)상에서 아동이 마주하는 폭력
권역주제	선거연령 하향을 통한 아동 참정권 및 인권보장

## 모니터링 활동

Step1. 주제선정 및 계획세우기
<p><b>- 주제정하기 &amp; 계획세우기</b></p> <p><b>1. 주제선정 이유</b>          아동들이 제대로 된 정치적 판단능력, 사회적 현상 등을 인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로 선거연령을 낮추는 의견에는 많은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다. 이에 아동 당사자들은 정책 형성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실현, 우리 사회가 아동들의 목소리를 좀 더 반영하길 원하여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p> <p><b>2. 계획세우기</b></p> <p>- 8월(자료조사 및 설문지 문항 정하기)          : 아동들의 정치적 관심 및 판단능력, 사회적 현상 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지 등에 관한 자료조사 및 설문지 문항을 설정</p>

- 9월(설문조사 배포 및 결과 분석 & 의견공유)  
: 설문조사 결과에 공유, 아동 당사자들의 의견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 10월(의견서 작성)  
: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견서를 전달, 불가능할 경우 카드 뉴스를 제작하여 아동들이 사회적 인식이 가능하고, 자신들의 판단능력이 있음을 알림

### 주제 도출 경과

경기 1권역 아동들은 자신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사회에 전달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보였음 → 실질적으로 정책이 바뀌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함 → 사회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의회가 있고, 여기에는 교육의회와 해당 지자체에서 하는 기본적 청소년의회가 있어 청소년들의 의견을 전달할 창구가 존재함을 인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실질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고 싶다는 의견 多 → 이에 본질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 아동들을 제약하는 것이 뭔가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고, 선거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옴 → 선거권 연령을 낮춰 아동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분에서는 아동들이 활동하고 의견을 내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음.

### Step2. 1차 모니터링단 회의

#### - 자료조사 및 설문조사 문항 정하고 배포

아동의 인식과 어른들의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각각 아동용과 어른용으로 구분하여 만들

1. 회의 일시: 2022년 9월 3일
2. 회의 방식: 비대면 (카카오 단체 보이스트)

#### 설문조사 공통문항

- 청소년이 투표하는 것이 정치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나요?
  - 현재 대한민국 선거연령은 만 18세입니다. 이 연령 제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청소년이 투표하는 것에 관한 인식조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만약 긍정적인 의견이 대다수라면 선거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는 뜻이고 그 반대라면 청소년이 투표하는 것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어서 이러한 질문을 공통질문에 넣음.

**어른용**

- 청소년이 제안한 의견이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 청소년이 투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동용**

-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 청소년이 제안한 의견이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 선거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 청소년이 원하는 것을 선거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자료조사**

특성별(1)	특성별(2)	2020			
		전혀 없다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투표할 것이다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 ▼ ▢	▲ ▼ ▢	▲ ▼ ▢	▲ ▼ ▢	▲ ▼ ▢	▲ ▼ ▢
전체	소계	1.5	45.6	49.7	3.2
연령별	만9-12세	-	-	-	-
	만13-18세	1.6	46.0	48.1	4.4
	만19-24세	1.5	45.4	50.8	2.3

(출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2020년에 선거 의향을 묻는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청소년의 48.1%가 반드시 투표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음.
- 현재 2022년 초,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가입 연령이 만16세로 하향 그러나 교육현장과 일부 정당활동에 있어서 완전한 참정권 미보장의 현실에 마주하고 있음.
- 참정권은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공민권 또는 민권이라 함.
- 일본의 사례: 아동의 주권자 교육이 정치용어와 같이 지식습득에 그치고, 학교에서 정치활동 규제가 심하여 일상에서도 정치참여가 거의 불가능하여 청소년 투표율이 급락했음을 근거로, 아동이 정치에 대해 일상에서도 참여를 해야 한다는 의견.

### Step3. 2차 모니터링단 회의

#### - 1차 활동 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유 & 의견 나누기 및 최종 활동 일정 정하기

1. 회의 일시: 2022년 10월 6일

2. 회의 방식: 비대면 (카카오 단체 보이스트)

#### - 아동용 설문조사

청소년이 투표하는 것이 정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71.4%로 가장 많았으며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한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85.7%로 나왔음. 청소년이 투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모든 응답자가 중요하다고 답하였음.

#### - 어른용 설문조사

청소년이 투표하는 것이 정치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응답과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음. 선거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답변에는 '주변인들의 생각과 미디어에 쉽게 의견이 바뀌는 시기', '조금 더 성숙해진 다음에 투표하는 것이 낫다.' 등의 의견이 있었음.

- 다만,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수가 현저히 적어 선관위에 보낼 보고서에는 작성하지 못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참고용으로만 사용하기로 했음.

- 현행 정당법 개정안(정당 가입 연령 만 16세)에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부분을 삭제 → 표현의 자유, 정당 가입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

- 만 18세 이상의 국민에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을 가지는 것은 유지하고, 교육감 선거에 한하여 만 16세로 선거연령 하향을 하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

- 아동이 중앙선관위원회의 문의한 결과, 선관위 대표주소로 보내면 총무과에서 일괄 접수 후 담당 부서에 전달, 내용에 따라 답변받을 수 있다고 함.

### Step4. 활동결과 및 아동 제안

#### 공통주제: 사이버(온라인)상에서 아동이 마주하는 폭력

- 아동들이 사이버 폭력을 받는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면 좋겠다. (사이버폭력 피해 시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

-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아동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교육이 좋을 것 같다.

- 예전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폭력이라는 점에서 어른들이 생각하는 피해의 정도와 아동들이 생각하는 피해의 정도가 다른 것 같다. 사이버 폭력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

**권역별 주제: 선거연령 하향을 통한 아동 참정권 및 인권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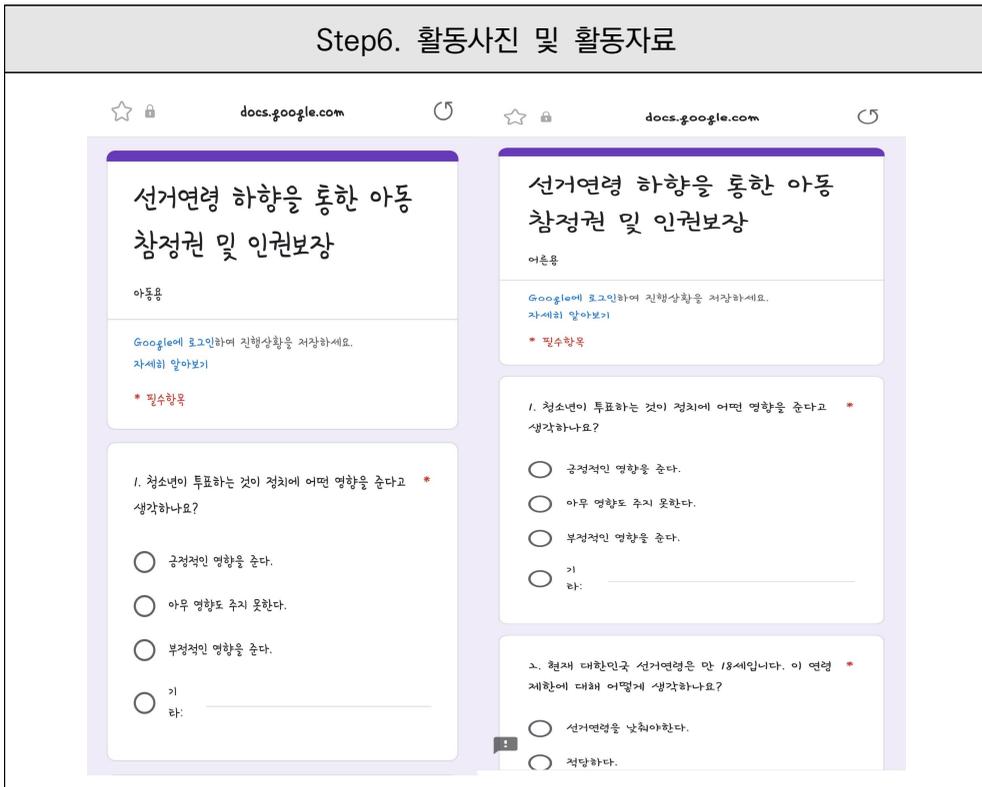
- 아동청소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보다 많은 청소년들의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어른들끼리 정책을 만들고, 무조건 따라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닌, 아동 당사자의 입장에서 쉽게 설명해주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해시키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 현행 정당법 개정안(정당 가입 연령 만 16세)에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부분을 삭제하여, 표현의 자유, 정당 가입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되면 좋겠다.
- 만 18세 이상의 국민에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을 가지는 것은 유지하고, 아동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교육감 선거에 한하여, 만 16세로 선거연령 하향을 하면 좋겠다.

**Step5. 활동소감(LENS, 코디네이터)**

- **강가은:** 우선 꽤 긴 시간 동안 활동을 통해서 단순 내 의견뿐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여러 아동들이 현재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고, 이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내가 아쉬워요 라는 한마디보다는 아동들을 조사해보니 이리이러한 문제점을 모두 느끼고 있었고 현재 아동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말로 바뀌어가며 어느순간 생각보다 내 말에 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렸고 그 무게감이 꽤 크구나 라는 점을 느껴서 책임감이 더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시험기간이 겹치고 처음 겪어보는 고등학교 1학년 시기다보니 정신없이 흘러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기는 부끄러운 스스로의 결과를 냈는데 그래도 조원분들과 코디네이터 선생님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 **최재혁:** 일단 여건이 어려웠지만 이렇게 참여할 수 있었어서 좋았습니다 학생이라는 신분에 있어서 공부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회 곳곳의 편협한 시선을 깰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도 생각합니다.  
 시간도 많지 않았고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에 대면활동은 하지 못했고 통화로만 회의를 했지만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서 완성한게 부듯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 많은 학생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기회를 만들어 주셨음 합니다.

- **이지나 코디네이터:**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활동 중간중간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도 생겨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그 속에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것처럼, 아동을 건너뛰고 바로 어른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 모두 아는 사실이지만 어른이 되면서,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듯 아동들의 권리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 또한 바쁘다는 핑계로 잊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활동을 하면서 다시금 저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고, 아동 인권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경험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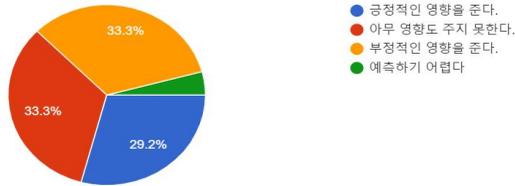
아동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아동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되었고 이 활동을 통해 조금 더 성장한 것 같아 뿌듯한 마음도 듭니다. 이번 활동을 함께해준 경기 1권역 친구들에게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1. 청소년이 투표하는 것이 정치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나요?

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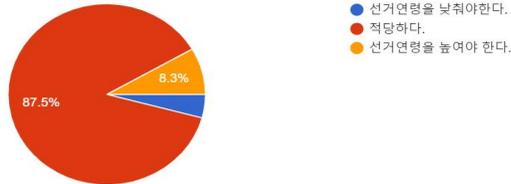
응답 24개



2. 현재 대한민국 선거연령은 만 18세입니다. 이 연령제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복사

응답 24개



2-1

왜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응답 2개

주변만 봐도 어린친구들이 인스타그램 특히 페이스북에서 정치선동 뉴스보도들을 보고 생각이 주체적이지 못하고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조금더 성숙해진 다음에 투표하는게 국가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함

청소년기는 주관을 갖기보다 주변인들의 생각과 미디어에 쉽게 의견이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올바른 정치 성향을 가진 성인과는 다르다고 생각함

선거연령 하향을 통한 아동 잠정권 및 인권보장

3. 청소년이 제한한 의견이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복사

응답 24개

1. 청소년이 투표하는 것이 정치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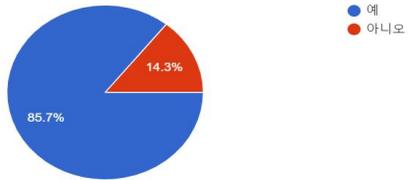
복사

응답 7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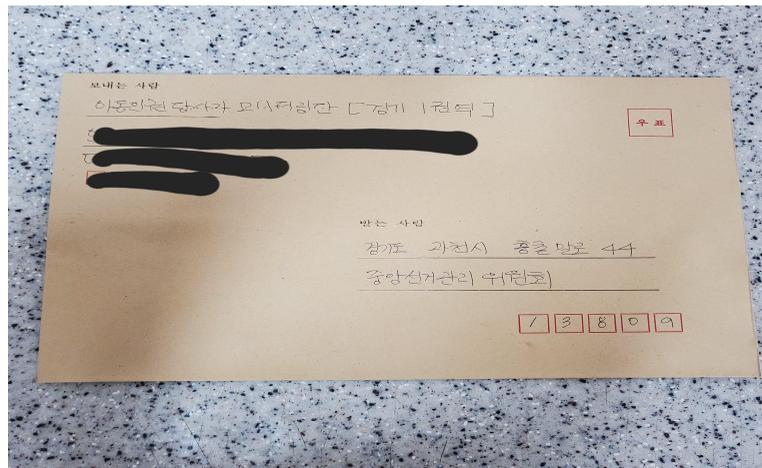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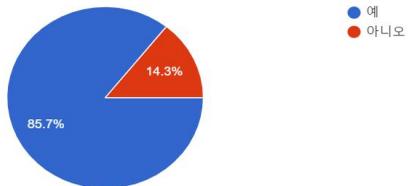
3.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응답 7개

복사



3.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응답 7개

복사



- 중앙선거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https://forms.gle/P6jhy8fMwMAYqJeG7> (아동용 설문조사)

<https://forms.gle/yzCadHafWgFi126GA> (어른용 설문조사)

# 경기2 LENS

LENS	남동은, 백재희, 윤원형, 장서원
코디 네이터	이솔

활동주제	
공통주제	사이버(온라인)상에서 아동이 마주하는 폭력
권역주제	학교밖청소년 문제의 인식 실태 및 현황과 지원방법

## 모니터링 활동

**Step1. 주제선정 및 계획세우기**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양한 차별과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에 현재 지원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안전한 성장이 저지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비행청소년’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사회에 만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 문제의 인식 실태 및 현황과 지원 방법”을 권역주제로 선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의 현황, 그리고 효과적인 지원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발대식에서는 팀 내 역할을 분담하고 권역별 주제에 대한 대략의 조사 방향성과 설문조사 방식을 결정하였다. 토의 끝에, 설문조사는 참여 아동들의 편의를 위하여 종이로 프린트한 질문지로 결정하였다.

## Step2. 1차 모니터링단 회의

### 〈활동 개요〉

#### 1. 회의 일정 및 방법

- 8/13(토): 첫 번째 회의, ZOOM meeting을 통해 비대면 회의 진행함
- 모니터링단이 각자 생각한 권역별 주제 후보들 중 투표를 진행함.
- 선정된 주제에 대한 조사 방법을 구체화하고 4개의 소주제로 분류함.
- 8/27(토): 두 번째 회의, ZOOM meeting을 통해 비대면 회의 진행함
- 각자 맡은 소주제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발표함. - 발표가 끝난 후, 설문지에 들어가야 할 질문 내용들에 대해 토의함.
- 9/17(토): 세 번째 회의, ZOOM meeting을 통해 비대면 회의 진행함
- 각자 설문조사에서 받은 답변들을 모으고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함.
- 조사 내용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활동 보고서를 작성함.

#### 2. 역할 분담

- (소주제 1) 학교 밖 청소년들의 유형과 원인에 대하여 : 백재희
- (소주제 2) 학교 밖 청소년들이 노출된 위험에 대하여 : 장서원
- (소주제 3)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 남동은
- (소주제 4)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사업 또는 지원정책 : 윤원형

#### 3. 설문조사 방법

- 각자 맡은 소주제에 대해 자료 조사한 후, 필요한 질문 내용들을 3개씩 구상함.
- 자료조사와 질문 리스트를 발표한 후, 토의를 통해 설문지를 완성함.
- 완성된 설문지는 A4 용지에 인쇄하여 답변을 수기로 작성하도록 함.

## 〈활동 결과〉

### [ 1. 학교 밖 청소년들의 유형과 원인에 대하여 ]

#### 1.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 조사

- 1)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서 대학 준비하면서 학교를 그만둔다.
- 2) 공부를 너무 잘해서 수준에 맞는 공부를 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는다.
- 3)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학교를 그만둠.
- 4) 가출해서 청소년 쉼터에 있는 경우
- 5)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집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

#### 2. 설문조사 답변내용 분석

- (1-1) 학교 밖 청소년이 우리나라에 몇 명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10만명, 25만명, 청소년의 2~3%, 5만명, 1천명, 잘 모르겠음
- (1-2) 학교 밖 청소년들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공교육 시스템의 한계 및 상담영역의 개선필요/ 제도권 교육의 폭력성과 부족한 인권감수성 / 집안 사정에 따라 학교를 다닐 형편이 못되는 경우 / 제도권 학교 교육이 맞지 않아 공교육의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 / 주간에 보호자의 부재, 가정환경
- (2-1)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에 비해 위험에 더 노출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매우그렇다.(1) 그렇다(4), 보통(0),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지 않다(0)
- (2-2)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장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각종 범죄, 폭력, 자율성, 사회적 차별, 범죄연루
- (3-1)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 중 어떤 것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나요? : 자립등, 지원 체계 부족, 학교 밖 청소년을 향한 사회적 인식, 학력격차, 학교 정규교육에 부적응했다는 편견,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상의할 어른이 없음, 경제적 어려움
- (3-2) 학교 밖 청소년들이 쉽게 우울증을 경험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돌봄, 보살핌 필요, 친구들을 사귀기 어려움, 모르겠다. 제도권에 의해 제공되는 시스템으로부터 구조적으로 떨어져 있음
- (4-1)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정부사업 또는 지원정책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 보통(2), 그렇지 않다(3) 매우 그렇지 않다(1)
- (4-2) 학교 밖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다양한 형태의 교육 인정, 일자리,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대안학교, 홈스쿨에 대한 재정적 지원, 단체모임,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경험과 활동, 청소년 보호시설 확대

## [ II. 학교 밖 청소년들이 노출된 위험에 대하여 ]

### 1. 폭력의 사각지대에 노출

- 2017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검거자는 2012년 2만3천877명에서 2016년 1만2천805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나, 학교밖 청소년 검거자는 2012년 2천55명에서 2016년 5천125명으로 2배 이상 증가
- 소년범중 학교밖 청소년은 2012년 전국 35%에서 2016년 42%로 증가
- 부산, 강릉 청소년 집단폭행사건의 피,가해자 대부분이 학교밖 청소년

### 2. 학교밖 청소년은 위기 청소년으로 분류되며, 성폭력 노출 위험이 높음

청소년 위기수준 분포 (단위: %)



자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고위험군 위기·취약 청소년 10명 중 2명이 아르바이트 등 직장에서 성희롱·성폭행 피해 (전국 단위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결과)

### 3. 도박 등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합계	83	71	72	91	64	381
재학중	45	31	33	43	37	189
학교밖	38	40	39	48	27	192
학교밖비율	45.8%	56.3%	54.2%	52.7%	42.2%	50.4%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합계	1,513	2,339	3,400	3,126	2,572	12,950
재학중	1,499	2,286	3,309	3,185	2,538	12,817
학교밖	14	53	91	59	34	251
학교밖비율	0.9%	2.3%	2.7%	1.9%	1.3%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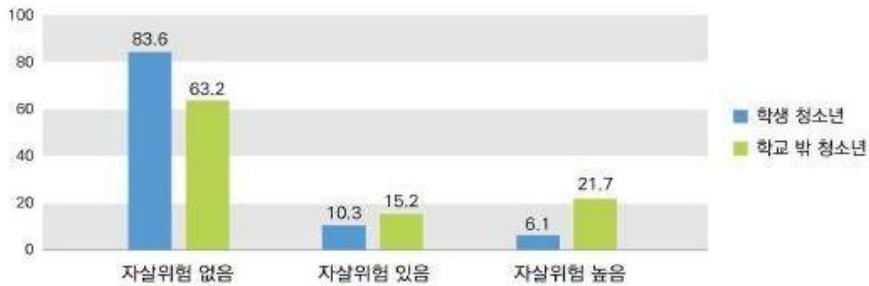
[청소년 불법도박 검거 건수]  
(출처: 경찰청)

[청소년 도박관련 상담 실적]  
(출처: 시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

- 2017~2021년 최근 5년간 청소년(만 14세~19세)의 불법도박 검거 인원은 총 381명이며, 이 중 학교밖 청소년이 192명(50.4%)으로 절반 이상
- 상담 프로그램이 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밖 학생 대상 상담실적 비율은 2%가 되지않음

### [ III.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

2022년 기준 학생 청소년 10명 중 적어도 1명 이상은 우울과 불안, 자살 위험성의 임상적인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의 17.4%와 130%가 각각 13.0%가 각각 우울과 불안 증상에 노출돼 있었고, 16.4%는 자살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우울, 불안, 자살 위험성 등 대부분 정신건강 문제에서 여자 학생 청소년이 남자 학생 청소년보다 중증도가 높았으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중증도도 상승했다.



그림III-67 학생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자살 위험성 분류 비교(단위: %)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의 학생 청소년 5937명, 학교 밖 청소년 752명 등 총 6689명을 대상으로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학교 밖 청소년 10명 중 적어도 3명은 우울, 불안, 자살 등에서 경도 이상의 임상적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35%는 경도 이상의 우울 증상, 29%가 경도 이상의 불안 증상을 겪고 있으며 36.8%는 자살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2022년 기준)

#### 학교를 그만둔 뒤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단위:%, 중복 응답



(2016년도 기준 학교를 그만둔 뒤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

**[ IV.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사업 또는 지원정책에 대하여 ]**

**학교 밖 청소년(위기청소년)을 위한 정책:**

1. 청소년쉼터
2. 청소년자립지원관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그 외의 여러 가지 지원:**

1.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지원
2.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비용의 지원
3.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의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의 지원
4. 취업을 위한 지식·기술·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비의 지원
5. 폭력이나 학대 등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의 지원
7. 상담지원
8. 교육지원
9.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10. 자립지원

### Step3. 2차 모니터링단 회의

#### < 활동 개요 >

#### 1. 회의 일정 및 방법

- 9/24(토): 첫 번째 회의, ZOOM meeting을 통해 비대면 회의 진행함
- 2차 활동의 주제와 방향성을 설정하고 역할을 분담함.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해 4개의 소주제를 설정함.
- 10/8(토): 두 번째 회의, ZOOM meeting을 통해 비대면 회의 진행함
- 각자 맡은 소주제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발표함.
- 학교 밖 청소년의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아이디어에 대해 토의함.
- 10/22(토): 세 번째 회의, ZOOM meeting을 통해 비대면 회의 진행함
- 각자 제작한 나만의 포스터와 캠페인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공유함.
- 조사 내용과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활동 보고서를 작성함.

#### 2. 역할 분담

- (소주제 1)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사업 (1) : 백재희
- (소주제 2)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사업 (2) : 윤원형
- (소주제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한계와 개선 방안 (1) : 장서원
- (소주제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한계와 개선 방안 (2) : 남동은

#### 3. 캠페인 활동 방법

- 각자가 떠올린 아이디어에 따라 나만의 캠페인 포스터를 제작함.
- 완성된 포스터를 학교 복도나 교실에 붙이고 급우들의 반응을 살핌.
- 캠페인 활동을 통해 느낀 점에 대해 서로 발표하고 공유함.

## 〈 활동 결과 〉

### [ 1.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사업 ]

#### 1. 여성가족부의 지원사업

-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운영
  - 청소년 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등의 프로그램 제공
- 2)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내일이룸학교’를 통해 맞춤형 직업훈련 실시
  - 만15세~24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이 대상
  - 단기 (3~6개월), 장기(6개월이상)의 프로그램 운영
  - 무료 직업훈련 및 취업처를 알선하고 월 30만원의 자립장려금 지급, 훈련기관에 따라 기숙사를 제공하기도 함.

#### 2. 교육부의 지원사업

- 1)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 시범운영
  -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 학생들이 학교 밖 학습 프로그램등을 이수하고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3. 시·도 교육청의 지원사업

- 2019년 기준으로 11개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학업 중단 학생) 지원 사업 진행중
- 1) 서울, 대구 강원도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인 ‘친구랑’ 운영으로 교육 진로 정서 건강지원
    - 목적: 친구랑은 개인별 맞춤형의 학습,상담, 진로를 지원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 모두가 각자의 꿈을 실현하여 학교나 사회에 복귀하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보호하기(출처: 친구랑 홈페이지)
  - 2) 서울시-> 시범 사업으로 ‘교육참여수당’ 지급 시행해서 만 9~18세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급중
    - 목적: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은 학교 밖 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교육복지요건을 조성하고자 함

3) 충청북도와 경상북도에서도 유사한 사업인 동행카드를 실시중

- 10만원씩 일년에 5회까지 충전해준다
- 목적: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통비 식비등을 보태주기 위해서
- 그 이외에도 검정고시 및 진로진학 지원 건강검진 지원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 중

**4. 시행기관 간 협업**

- 학교, 시·도 교육청 그리고 한국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 등이 협력중임
- 각 학교에서는 학업 중단 1주이내내 교육청으로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여부를 고지하고, 교육청은 한국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의 꿈드림 정보망에 학교 밖 청소년 정보가 연계함
- 이후 그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개별적으로 연락함
- 경찰청은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여 학교 밖 청소년 정보를 연계함

**[ II. 지원사업의 한계 및 개선 방안 ]**

**1. 대상자 발굴의 문제**

- 문제: 학교 밖 청소년 중 일부만 지원을 받고 있음. 학교밖 청소년은 약 39만명 이나, 지원 받고 있는 청소년들은 2019년 48250명 정도에 그침. 위의 자료는 꿈드림 센터 이용자인데, 그 이용자들은 그나마 나은 환경에 있고 열악한 환경의 청소년은 이용하기 어려움. 또한, 생계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참여하기 힘들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임.
- 해결방안: 학교 밖 청소년 정보 연계를 통해 소외된 청소년 없이 모두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2. 미흡한 성과의 문제**

- 문제: 지원사업의 수혜자 수는 점점 늘고 있지만 취업, 진학, 학업 복귀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이 없음.
- 해결방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평가가 필요함. 평가하여 가장 효과가 좋은 프로그램을 선별해 확산함. 평가 기준으로는 효과성, 효율성, 타당성, 공정성, 호응성, 적합성이 있음.

**3. 지원격차의 해소**

- 학교 밖 청소년에게만 교육참여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동행카드' 사업을 운영하는 시·도 거주 청소년들에게 식비 및 교통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가 지급되는 등 청소년의 거주지역, 혹은 지자체 장의 관심 여부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또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스마트기기를 무료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 청소년들은 학교 안에 있는 밖에 있는 다른 청소년들과 지원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다른 학생들과 평등하게 해주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원센터를 마련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4. 부처 간 협력 강화

-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점검·평가하고, 정책 대상자의 다양한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부처 간 협력을 필요로 하나 이에 대한 근거 법률이 미흡하다.
- 심의기구에 머무르고 있는 지원위원회가 실질적 실무그룹의 역할을 수행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협력과 통합을 관장할 수 있어야 부처 간 협력 사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생계, 주거, 교육, 취업, 질병 등의 문제를 부분적으로 혹은 전부 가지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부의 관계 부처와 민간단체가 어떻게 협력하고 소통할 것인지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 예를 들어서 미국은 2008 년 행정명령을 통해 [청소년 프로그램 실무그룹(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n Youth Program: IWGYP)]을 설치했다.
-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고 차별성이 없는 의례적인 지원사업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지원사업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평가하여 가장해야 한다.

#### Step4. 활동결과 및 아동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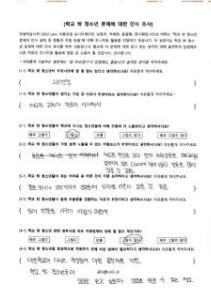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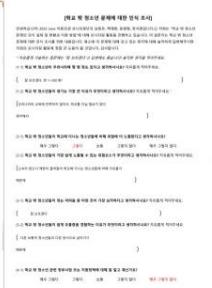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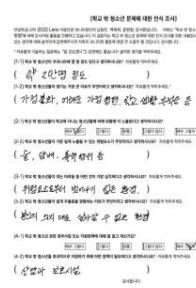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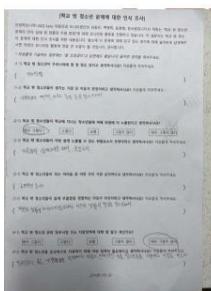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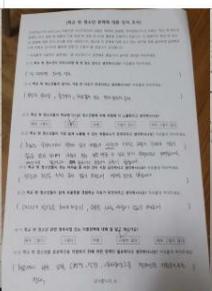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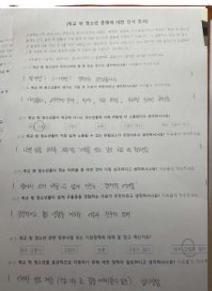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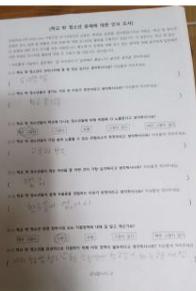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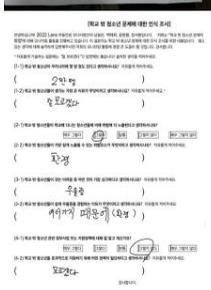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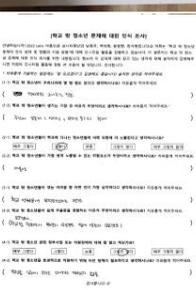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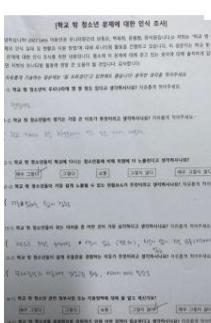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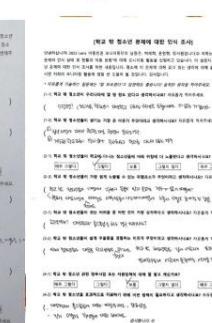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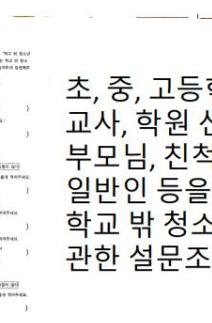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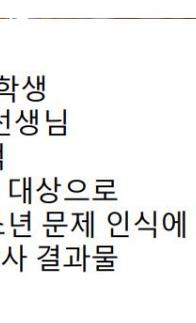
- **남동은:** 사이버폭력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선 아동 권리에 관한 교육을 아동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받아야 한다.
- **백재희:** 온라인 게임에서 사이버 폭력이 만연하다. 채팅 필터를 강화하여 온라인에서 청소년들을 더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 **윤원형:** 아동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는 대부분 잘 모르기 때문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지원 시설과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더 열심히 홍보하고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 **장서원:** 학교 밖에 지내면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나 학교 폭력 또는 가정 문제로 인해 학교를 벗어나는 아이들을 위한 상담소가 더 활성화 되어야 한다.

### Step5. 활동소감(LENS, 코디네이터)

- **남동은:** 학교를 그만 둔 뒤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중 가장 큰 것이 선입견, 편견, 무시라는 것이 충격적이었다.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아이들에 대해 선입견까지 갖고 있는 것은 정말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
- **백재희:**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협하지 않게 보호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황과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원인을 제대로 알고 사람들이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 **윤원형:** 학교 밖 청소년들도 보호 받아야 마땅한 아이들인데,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나라의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그들을 위한 더 효과적인 지원 정책들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다.
- **장서원:** 최근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연구하거나 뉴스로 보도한 자료가 생각보다 없어서 조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부산, 강릉 청소년 폭행 같은 사회적 이슈가 생겼을 때만 이 아니고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 **이슬 코디네이터 :** 아동들이 투표를 통해 직접 설정한 주제에 대해 직접 조사하고 토의를 하며 깊게 알아가는 과정을 지켜보니 매우 기특했다. 하지만 설문조사와 캠페인 활동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 너무 불편했다. 자료조사나 회의는 물리적으로 떨어진 공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각자 따로 따로 활동하면 설문조사와 캠페인 활동 등을 할 때에는 의욕이 떨어지는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활동해준 아동들에게 정말 감사하다.

# Step6. 활동사진 및 활동자료

## <설문조사>

**초, 중, 고등학생 교사, 학원 선생님 부모님, 친척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 문제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물**

### <나만의 캠페인 포스터>



## 서울1 LENS

LENS	이호연, 박서우, 정상윤, 정시현, 황서원, 송연서, 최서정, 윤현채
코디네이터	류윤식

활동주제	
공동주제	사이버(온라인)상에서 아동이 마주하는 폭력
권역주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린이의 놀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 모니터링 활동

### Step1. 주제선정 및 계획세우기

#### 1. 주제선정 이유

-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생활 속에서 어린이의 권리가 침해받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5학년 학급 설문조사를 통해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 결과 아파트 단지내 놀이터와 공원 등에서 자유롭게 놀 권리를 많이 침해받고 있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고, 아파트에서의 친구들과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2. 계획세우기

9월

- 사례 조사
- 캠페인, 포스터 홍보, 찬반 의견 수렴

10월

- 구체적 사례수집 및 캠페인 결과 보고(공유)
- 의견서 작성 및 학교 주변 아파트 단지 의견서 전달

### 3. 조사대상 및 방법

- 대상: 염리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
- 방법: 캠페인(찬반투표 진행)

#### Step2. 1차 모니터링단 회의

- 팀원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실제 학교 인근의 아파트 단지에서 학생들에게 놀이터를 개방하지 않거나, 놀이 시설 자체를 폐쇄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였고 구체적인 실제 사례들을 수집할 수 있었다.
- 급식실, 복도, 교실 등에서 단지내 놀 권리 확보에 대한 포스터를 제작하여 부착하였고 쉬는시간, 점심 시간에 미니캠페인을 진행하였다
- 일주일정도 캠페인 및 홍보기간을 가진 후에 5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하였다. 타 학급의 학우들도 자신들의 아파트 단지에서도 비슷한 피해를 경험했음을 제보해주기도 했고,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 찬반 투표 결과 및 사례를 보고서로 정리해서 학교 게시판에 부착하고, 학교 자치회와 인근 아파트에 우리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 Step3. 2차 모니터링단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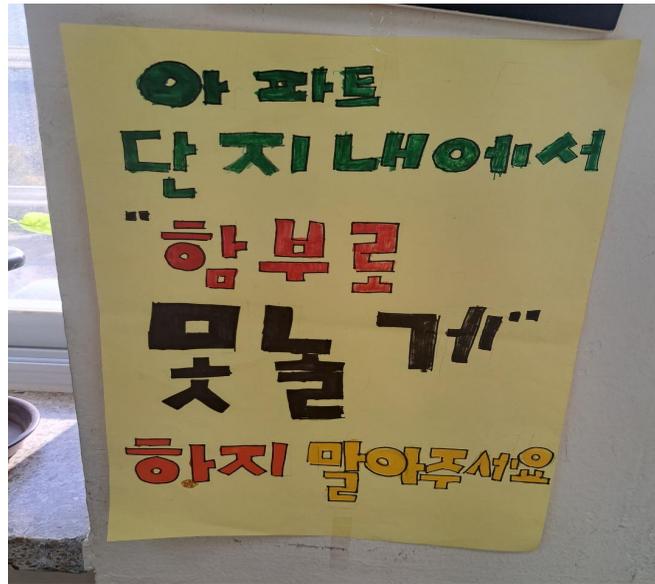
-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린이의 놀 권리가 침해된 구체적인 사례들을 수집해서 발표 자료를 만들었다.
- 교내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된 포스터 홍보와 미니 캠페인 결과를 정리해서 발표 자료에 반영했고, 벽보 스티커 투표로 진행한 의견 수렴 결과를 원그래프로 시각화 했다.
- 팀원들 역할 분담을 통해 자료팀과 발표팀으로 나누었고 자료 팀이 원데이터 분석과 발표 자료 제작, 발표팀은 준비된 자료로 프리젠테이션 연습을 실시하였다.

St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게시판을 통해 진행된 투표와 의견 수렴을 동아리 다른 팀에게도 공유하고, 활동 내용을 보고했다.</li> <li>- 팀원들은 힘을 모아 인근 아파트 단지의 관리실에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학교 주변 일부 단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공식적인 다른 루트를 찾는 중이다.</li> </ul>

Step4. 활동결과 및 아동 제안
<p>설문조사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아파트 단지내에서 놀권리를 보장하라는 1팀의 목소리를 교내 게시판에 포스터 홍보 등을 통해 다른팀에게도 공유하고, 활동 내용을 보고했다. 본 최종 결과를 실제 반영하기 위해 팀원들은 학교 학생회를 비롯하여 인근 아파트 단지의 관리실에 설문 결과 내용을 반영한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학교 주변 일부 단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공식적인 다른 루트를 찾고 있다.</p>

Step5. 활동소감(LENS, 코디네이터)
<p>최근 아동들의 인권 감수성을 강조하고 있고, 5학년 사회과, 도덕과에서 인권에 대한 내용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인권에 대해 보다 실제적으로 생각해보고 탐구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 인권동아리 LENS에 공모하여 활동을 하게 되었다. 아이들이 본인들 주변의 사례를 선택해 주제 선정, 실태 조사, 분석 및 자료 제작, 홍보 및 발표까지 일련의 프로젝트 과정에 참여하면서 협업 능력과 문제해결력을 신장하고 인권 민감성을 높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p> <p>특히 아파트 단지내의 아동의 놀권리에 대한 탐구는 꽤 고무적이었고 자신들의 문제에 목소리를 내었다는 점에서 본 활동이 매우 유의미했다고 생각한다.</p>

Step6. 활동사진 및 활동자료



## 서울2 LENS

LENS	김민규, 김재민, 김서현, 박태준, 이규현, 이소율, 이주연, 이채윤, 박서은
코디네이터	한윤주

활동주제	
공동주제	사이버(온라인)상에서 아동이 마주하는 폭력
권역주제	초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인가?

### 모니터링 활동

#### Step1. 주제선정 및 계획세우기

##### 1. 주제선정 이유

초등학생이 겪는 학업 스트레스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불안 및 우울 등 심리정서적 문제로 이어질 정도로 심각합니다. 따라서 아동 스스로 학업 스트레스의 원인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탐색해보는 기회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위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2. 계획세우기

9월

- 활동 계획 설정 및 자료 수집 방법 선택(설문조사, 투표, 인터뷰...)
- 설문조사 문항 구성

10월

- 자료 수집을 통한 결과 도출
- 최종 보고서 작성

### 3. 조사 대상 및 방법

- 대상 : 학생, 학부모, 교사
- 방법 : 초등학생 적정 학습 시간, 학원 운영시간에 대한 토의 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할 예정

## Step2. 1차 모니터링단 회의

**회의 일시 : 2022.10.7(금) 10:40-12:00**

**회의 방식 : 대면 (염리초등학교)**

### 회의 내용

#### 1)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업스트레스 설문조사

1차 모니터링 회의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 정도에 관한 설문조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다. 설문조사지와 양게트 판을 활용한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LENS 단원이 구성한 문항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 2) 추후 활동 계획하기

진행할 설문조사 결과 수집 후 학업 스트레스와 관련한 캠페인을 구성하였다. 첫째,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나만의 방법은?’이라는 캠페인을 계획하였다. 서로의 학업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공유함으로써,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고자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위 활동은, 투표함을 활용하여 친구들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여 포스터를 제작하는 활동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구성하였다.

### Step3. 2차 모니터링단 회의

**회의 일시 :** 2022. 11. 1(화) 09:00-10:30

**회의 방식 :** 대면 (염리초등학교)

#### 회의 내용

- 1)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 정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수집 : 초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5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 정도가 아주 많음, 많음, 별로 없음, 없음 순으로 나타났다.
- 2) 학업스트레스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앙케트(스티커판) 설문조사 결과 수집 : 학업스트레스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앙케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예'라고 답변한 학생들의 수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나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 공유하기 : 학업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기 위하여 아동의 스트레스 방법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좋은 스트레스 해소방법을 배워보았다.
- 4) 활동 소감 포스터 제작하기 : 지금까지 LENS 단원으로써 '초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주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함께 지금까지 했던 활동을 상기하고, 서로의 소감을 들어보면서 직접 포스터를 제작하는 시간을 가졌다.

### Step4. 활동결과 및 아동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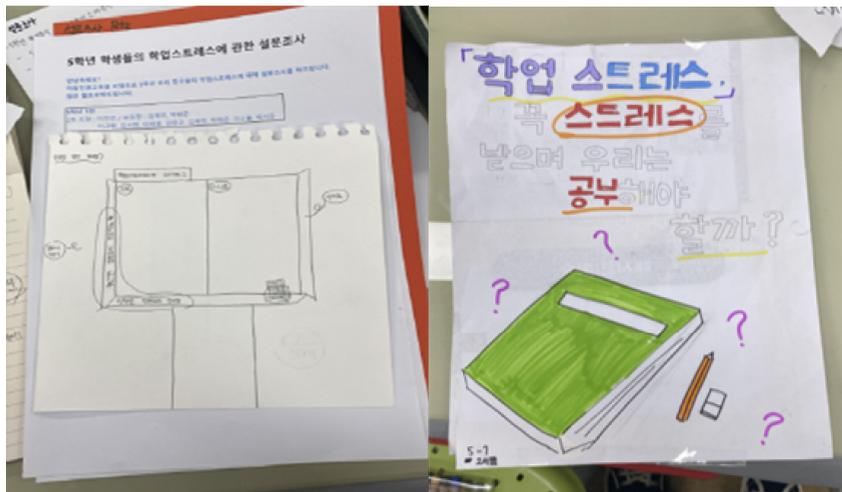
#### 권역별 주제 : 초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인가?

- 현재 초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많음을 인식하고 아동의 건강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초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을 인지
  - 초등학생 5학년을 대상으로 학업 스트레스 정도 및 학원, 선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과 문항 구성 제안
- ex) 현재 다니고 있는 학원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자신의 학업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요?  
무슨 과목의 학원에 다니나요?  
학원에서 얼마나 선행을 하나요?

### Step5. 활동소감(LENS, 코디네이터)

- **이소율:** 이 활동을 하면서 다른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 스트레스 해소방법을 알 수 있었다.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 **김서현:** 이 활동을 하면서 5학년의 스트레스가 얼마인지 알 수 있었고 초등학생 5학년들의 스트레스가 놀라웠다.
- **박태준:** 저의 스트레스 해소방법은 제 친구들과 노는 것과 강아지와 노는 것입니다. 모두 행복하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민규:** LENS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이채윤:** 써클 활동을 하면서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봐서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 번에도 또 LENS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 **이주연:** 이 활동을 하면서 5학년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얼마만큼 많은지 알 수 있었다.
- **김재민:** 이 활동을 하면서 어린이들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5학년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 **이규현:**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아동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었다.
- **한윤주 코디네이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배우는 학생으로서, 아동이 나아가 더 밝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좋은 환경,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에 앞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아동이 행복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 생각하여, LENS 코디네이터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LENS 단원들이 활동을 너무 어려워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마음에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만난 LENS 단원들은 누구보다 열정적인 모습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보여주었습니다. 3개월 간의 LENS 아동인권 코디네이터의 활동은 아동이 권리의 주체자로서 자신이 있을 세상을 탐색하고 바꾸어 나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Step6. 활동사진 및 활동자료



## 서울3 LENS

LENS	이성흙, 전우빈, 박서준, 박지인, 김원지, 권서울, 김지원, 장재의
코디 네이터	박나영

활동주제	
공동주제	사이버(온라인)상에서 아동이 마주하는 폭력
권역주제	급식실 내 대화 규칙

### 모니터링 활동

#### Step1. 주제선정 및 계획세우기

##### 1. 주제선정 이유

코로나 19 발생 이후 급식실 내에서는 모든 대화가 금지되었다. 해당 반에서는 급식실에서 식사시 대화만이 아니라 식사전후 마스크 착용시에도 대화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시에는 수업 후 남아서 벌칙을 받는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현재 급식실 내의 대화규칙에 의문을 가져 이 주제를 권역주제로 선정하여 현 실태를 조사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어떠한 방식과 규칙으로 정할지 논의하고자 한다.

##### 2. 계획세우기

9월

- 주제 선정
- 팀 내 역할분담
- 설문장소 및 설문지 내용과 방법 정하기
- 조사 내용 토의 후 활동 보고서 작성

10월

- 권역별 주제에 대한 설문조사 및 설문 결과 분석
- 새로운 규칙과 벌칙 선정하기
- 조사 내용 토의 후 활동 보고서 작성

### 3. 조사 대상 및 방법

- 대상 : 학생, 교사
- 방법 : 먼저 설문조사를 학급에서 진행할 것인지, 급식실 앞에서 전교생에서 투표를 받을 것인지 정할 것이다. 설문에서는 급식실에서 마스크 착용시에는 대화를 허용할 것인지 허용하지 않을 것인지 조사할 것이다. 또한, 마스크 미착용시와 대화시(마스크 착용시 대화 비허용시)에 현재 벌칙에 만족하는지, 불만족스럽다면 어떠한 벌칙을 하고 싶은지 조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 규칙을 지키기 위해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고자 한다.

### Step2. 1차 모니터링단 회의

1. 회의 일시 : 2022. 10. 7(금) 10:40-12:00

2. 회의 방식 : 대면

3. 회의 장소 : 염리초등학교

#### 4. 회의 내용

먼저, 이전 활동시간에서 정한 5학년 학급 설문조사를 통해 투표를 진행하였다. 진행결과 급식실 내 마스크착용시에 대화 찬성이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활동에서는 학급내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먼저, 마스크 미착용 후 대화시에 어떤 벌칙을 할지, 관리자를 선정하는데 동의하는지와 그 선정방법에 대해 투표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를 선정하기에 앞서 마스크 착용 후 대화의 장단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일단 마스크 착용시 대화에 대해 주제에 3분단 자체에서도 소수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5학년 전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는 우리반 학급 내 규칙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으로는 학급 내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설문조사지 작성 후 학급 내 칠판에 부착하였다.

Step3. 2차 모니터링단 회의
<p><b>1. 회의 일시 : 2022. 11. 1(화) 09:00-10:20</b></p> <p><b>2. 회의 방식 : 대면</b></p> <p><b>3. 회의 장소 : 염리초등학교</b></p> <p><b>4. 회의 내용</b></p> <p>먼저, 이전 활동시간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3서클 신문을 제작하였다.</p> <p>1) 미착용/착용시 대화(5학년 전체)</p> <p>2) 미착용시 대화벌칙에 대한 조사(5학년 전체)</p> <p>3) 관리자 형태(5학년 전체)</p> <p>설문조사를 바탕으로 3서클 신문 “급식실 규칙”을 제작하여 교실 칠판 앞에 붙여 모두가 볼 수 있게 게재해 놓았다.</p> <p>결과로는 마스크 미착용시 대화 찬성, 미착용시 대화벌칙은 한 마디당 5분씩 추가되는 형식으로 방과후 남기, 관리자 형태는 서로서로 감시가 많은 지지를 받았다.</p>

Step4. 활동결과 및 아동 제안
<p><b>&lt;권역주제 : 급식실 대화 규칙&gt;</b></p> <p>① 찬성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식실과 교실은 동일한 공간으로서, 마스크를 착용한 후에 대화를 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생각한다.</li> <li>- 다른 반 친구와 대화를 할 수 있어 교우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li> <li>- 급식실에서 심심하지 않고 즐겁게 있을 수 있다.</li> <li>- 쉬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급식실에서 대화가 가능하면 대화시간 확보가 가능하다.</li> </ul> <p>② 반대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식실 내가 시끄럽고 소란스러울 수 있다.</li> <li>- 코로나 전염가능성이 있다.</li> <li>- 우리 반 규칙이기 때문에 다른 반에게 질서 없는 반처럼 보일 수가 있다.</li> </ul>

### Step5. 활동소감(LENS, 코디네이터)

평소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프로젝트를 발견하여 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동과 마주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하였지만, 직접 아동을 마주하였을 때 먼저 다가와주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어서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자기들이 생각하였을 때 아동 인권에 대해 이미 생각하고 이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저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도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 Step6. 활동사진 및 활동자료



### < 급식실 규칙 >

(선택사항일 때의 조건입니다.)

1. 마스크를 착용하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화할 경우, 한마디에 남은 것 50씩 추가됩니다.
3.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대화하는 것은 서로서로 감시합니다!

× × 선생님의 의견에 따라 규칙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

× × 선생님의 의견에 따라 규칙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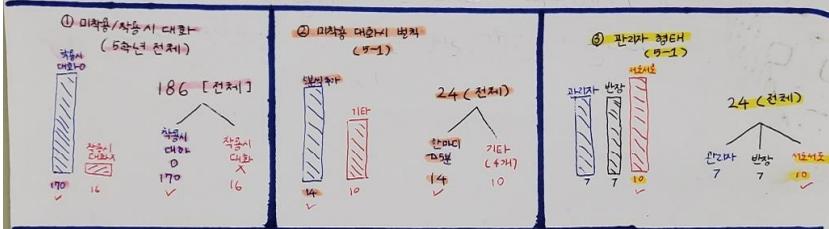
made by. 3서클



# 3서클 신문

## [급식실 규칙]

최근 저희 3서클이 5학년 1반을 대상으로 급식실 규칙 관련 여론 조사를 했는데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공통 \*

(선생님이 허락하신 때의 조건입니다)

- ★ 마스크를 착용하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 ★ 만약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화할 경우, 한마디에 남는 것 (5분) 추가됩니다.
- ★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대화하는 것을 강아내는 것은 서로서로 합니다!

이 규칙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써주세요.

좋아요 ^^	모름	별로
--------	----	----

기타 피드백 [리뷰쓰기]

## 강원 LENS

LENS	김예소, 구예나, 박수안, 유동진, 유서진, 김서윤, 이가현, 이시은
코디 네이터	반기병

활동주제	
공동주제	사이버(온라인)상에서 아동이 마주하는 폭력
권역주제	온·오프라인 아동 공공이용시설(도서관, 청소년시설 등) 및 사이트(게임, 카페 등)의 유해환경 조사

## 모니터링 활동

### Step1. 주제선정 및 계획세우기

#### 1. 주제선정 이유

춘천지역을 중심으로 아동 공공이용시설이 아동이용 친화적인지 오프라인 조사 실시 및 비교군 대조를 위한 도내 타지역 1곳을 임의로 선정하여 진행  
아동이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위반사항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 2. 계획세우기

9월

- 활동계획서 작성
- 9월회의 진행
- 온라인 설문조사 질문제작
- 오프라인 조사지역 역할분담

## 10월

- 10월회의 진행
- 온라인 미디어모니터링 교육
- 온라인 모니터링 실시
- 조사 결과 공유 및 취합
- 최종보고서 작성

### 3. 조사 방법

- 방법 : 춘천지역을 중심으로 아동 공공이용시설이 아동이용 친화적인지 오프라인 조사 실시 및 비교군 대조를 위한 도내 타지역 1곳을 임의로 선정하여 진행
- 아동이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위반 사항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 주제 도출 경과

### (권역별 주제)

온·오프라인 아동 공공이용시설(도서관, 청소년시설 등) 및 사이트(게임, 카페 등)의 유해 환경 조사

#### 1. 주제 도출 과정

- 공통주제인 사이버상 아동이 마주하는 폭력이라는 것을 이야기 하다. 쌍방이 소통하면서 이루어지는 폭력뿐만 아니라 인터넷 검색 혹은 게임, SNS를 하다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유해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에 강원권역에서는 아동이 인터넷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유해환경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정부기관에 시정조치를 하는 활동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또한 아동은 노인, 장애인과 더불어 교통약자입니다. 이에 지역에서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또는 아동 or 청소년이라는 이름이 붙은 공공기관을 찾아 해당 시설이 아동에 친화적인지 알아보는 활동과 강원도 각 지자체별 아동청소년시설에 대한 설치유무, 개수, 아동청소년인구당 시설에 비율 등을 조사해 지자체별 차이를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 2. 현황 및 문제점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청소년기본법을 보면 국가 및 지자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데 이를 잘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지키고 있다면 도내 지자체별 차이는 어떠한지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 Step2. 1차 모니터링단 회의

1. 회의 일시 : 2022.09.04.

2. 회의 방식 : 대면

3. 회의 장소 :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

4. 회의 참석자 : 김예소, 구예나, 박수안, 유동진, 유서진, 김서윤, 이시현

### 5. 회의 내용

- ① 권역 주제 도출
- ② 앞으로의 활동계획 논의

### 6. 활동내용

- ① 온라인 유해환경 조사
- ② 오프라인 아동이용시설 조사

## 7. 활동 세부사항

### ① 활동 내용

- 인터넷 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유해환경 조사
- 지역 내 아동이용시설 탐방

### ② 활동 결과

- 온라인 모니터링 (2차 회의 결과 첨부자료 참고)
- 단원의 사정으로 오프라인 모니터링 미실시

## Step3. 2차 모니터링단 회의

1. 회의 일시 : 2022.10.09.

2. 회의 방식 : 대면

3. 회의 장소 :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

4. 회의 참석자 : 김예소, 구예나, 박수안, 유동진, 유서진, 김서윤, 이시현

### 5. 회의 내용

- ① 온라인 모니터링 활동 공유
- ② 오프라인 모니터링 활동 독려
- ③ 추가활동 기획

### 6. 활동내용

- ① 온라인 유해환경 공유 및 신고
- ② 오프라인 아동이용시설 조사
- ③ 도내 청소년시설 현황 조사

### 7. 활동 세부사항

#### ① 활동 내용

- 온라인 모니터링 내용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 지역 내 아동이용시설 탐방하기
  - 도내 청소년인구 대비 시설 현황 조사
- ② 활동 결과**
- 도내 청소년인구 약 25만명, 청소년 시설은 65개로 약 3,850명당 1개소씩 설치가 되어 있으나 지역 편차가 심함(참고자료 참고)
  - 춘천 내 아동이용시설의 경우 대부분 버스정류소 인근 및 아파트단지 밀집구역에 설치되어 있었고, 장애아동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설치 및 시설 내 문턱이 없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이름을 딴 청소년도서관의 경우 언덕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 언덕길을 약 3분가량 올라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음

Step4. 활동결과 및 아동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시간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이 성인인증 없이, 혹은 허술한 성인인증으로 접속하거나 배너형태로 보여지는 도박, 성매매, 불법의약품 등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문구 및 사진, 홈페이지 등이 너무 많았다. 이에 배너나 사이트를 만든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한 배너를 올리거나, 사이트를 검색하게 하는 원 사이트(네이버or구글 등)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다.</li> <li>- 대부분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아동청소년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 및 구조로 지어졌으나, 몇몇 시설들의 경우 입지조건 자체가 외곽에 있거나 언덕에 지어지다보니 찾아가기 힘들었다. 아예 행정복지센터처럼 동네에 필요한 공공시설이 들어올 때 아동이용시설도 같이 지어졌으면 좋겠다.</li> <li>- 법을 살펴보면 읍면동마다 하나씩 청소년문화의집, 시군구마다 청소년수련관을 짓게 되어 있지만 맨 뒤에 편법마냥 지을 수 있다.처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처럼 법을 만들어놔서 법을 잘 따르려는 지역은 청소년시설이 많이 있는 반면 아닌 지역은 할 수 있다. 라는 법을 이용해 청소년시설을 거의 짓지 않고 있었다. 법자체를 의무사항으로 지정해서 시군구마다 청소년수련관 1개 이상, 읍면동마다 청소년문화의집 1개 이상 짓도록 해야 한다. 만약 힘들다면 청소년인구를 비율로 나눠 3,000명~5,000명당 1개를 짓게 하던지 약간 강제적인 조항이 있었으면 좋겠다.</li> </ul>

### Step5. 활동소감(LENS, 코디네이터)

- **김예소:** 이번 활동을 통해 아동의 인권에 대해 어떤 것이 있는지 아동으로서 알게 되어  
서 좋았습니다.
- **구예나:** 온라인유해환경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 알게모르게 인터넷상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해사이트나 유해한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검토없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먹었다.
- **박수안:** 처음에는 인권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데 아동인권에 대해 친구들과 행사 때 설문  
독려를 하면서 아동인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을 토대로  
일상에서도 아동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할 것이다.
- **유동진:** 사이버폭력 설문을 하면서 친구들이랑 당연히 하게되던 욕과 비속어 사용에 대  
해 다시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친구들이랑 자연스럽게 하던 욕과 비속어 사용  
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해볼 것이다.
- **유서진:** 온라인유해매체에 대한 신고를 같이 해보면서 어떠한 것이 유해매체인지 알게  
되었고 이를 신고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제 인터넷을  
하다가 온라인유해매체가 보이면 신고해서 온라인 상 유해환경을 없애는데 동참할 것  
이다.
- **김서윤:** 이번 활동을 통해 아동인권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어 좋았고, 친구나 주변사람  
에게 아동인권에 대해 보다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 **이시현:** 생각한거 보다 다양한 인권의 세부내용을 알 수 있어서 좋았고, 다른 인권들에  
도 관심을 가지고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반기병 코디네이터:** 청소년기관에 일하면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권리 및 책임에  
대해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관심을 넘어 아동의 인권을 위해 무언가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다.  
신청 자체가 느려 많은 활동들을 이끌어 나가지 못해서 아쉬운 것도 많았고, 제출해야  
되는 계획서도 기관 업무에 치이다보니 자꾸 늦어지게 되고 해서 아쉬웠다.  
다음에도 이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더 준비를 해서 주어진 일정에 차질없이 진행하  
면 더욱 좋을 것 같다.

Step6. 활동사진 및 활동자료



2022년 온라인 미디어모니터링  
미디어 : 신문/인터넷/TV프로그램 등

조사자	유동진	
사이트(URL) / 방송사	http://opbook1.com/main.asp	
<b>조사내용</b>		
	내용	선택
평가항목	청소년 유해 정보 노출	C
	청소년 유해 사진 게시	C
	청소년 유해 물건 판매	C
	자극적인 용어·문구 사용	C
신고내용	불법·사행성 사이트 대대 게재·링크	C
	기타(신고사유에 상세히 적어주세요)	C

첨부자료(캡처화면)

--

## 충북 LENS

LENS	강다해, 김미진, 남진솔, 안지상, 이서진
코디 네이터	장채은

활동주제	
공동주제	사이버(온라인)상에서 아동이 마주하는 폭력
권역주제	학생 맞춤형 탄력적인 교육이 아닌 강제적인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 겪는 피해

## 모니터링 활동

### Step1. 주제선정 및 계획세우기

#### 1. 주제선정 이유

수업을 듣다 보면 이런 방식이 나와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음에도 학교에서는 프로그램에 강제로 참여하게 하는 등 모두 같은 방식(주입식)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고자 하기 때문

#### 2. 계획세우기

8월

- 권역별 주제 선정
- 대면 회의 일정 및 장소 확정
- 10월 일정은 단원들의 시험기간을 고려하여 9월 대면회의 시간에 정하는 것으로 결정
- 인터뷰 질문 구상을 위한 사전 자료조사

**9월**

- 자료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청주 소재 카페에서 대면 회의 진행 및 개선 방향을 포함한 인터뷰 질문 기획
- 대면 인터뷰 실행 계획 및 타임테이블 설정 등 진행

**10월**

- 인터뷰 진행 및 활동 보고서 작성
-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바라는 교육은 무엇이고 현 교육 방식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

**3. 조사대상 및 방법**

- 대상: 같은 학교 친구들
- 방법: 아이들이 현재 교육 방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는지, 이외 대면 회의 시간에 추가된 질문들을 바탕으로 대면 인터뷰 진행 예정

**주제 도출 경과**

**- 권역별 주제 선정 과정**

권역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평상시 생활 속에서 불편하거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학생들인 만큼 학교 수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다수의 학생들이 수업을 듣다 보면 이런 수업 방식이 나와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음에도 학교에서는 프로그램에 강제로 참여하게 하는 등 모두 같은 방식(주입식)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답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문자 그럴 것 같다는 추측성 답변이 돌아왔고, 그렇다면 친구들의 의견을 직접 물어보는 활동을 하는 것이 어떨겠느냐 문자 참가한 아동들 모두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친구들의 의견을 묻고 싶은지 묻고 상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인터뷰가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최종 선택되었습니다.

## Step2. 1차 모니터링단 회의

1. 회의 일시 : 2022.09.17.
2. 회의 방식 : 투썸플레이스 청주 분평대로점 대면회의
3. 회의 참석자 : 강다해, 남진솔, 김미진, 이서진

### 4. 회의 내용

- ① 인터뷰 세부 사항 확정
- ② 2차 모임 진행 내용 논의 및 2차 모임일 확정

### 5. 활동내용

- ① 인터뷰 질문, 기간, 방법, 인원수 논의
- ② 선정된 인터뷰 질문에 대한 LENS 단원들의 생각 토의

### 6. 활동 세부사항

#### 확정내용 요약

인터뷰 질문	하단부에 볼드체로 서술
인터뷰 기간	09.18~10.22 (2차 모임일 전)
인터뷰 방법	각 학급에서 1:1 대면으로 진행

1차 모니터링 회의에서는 아동들과 문답을 진행하며 인터뷰 질문, 기간, 방법을 선정했습니다.

기간은 2차 모임일 전인 10월 22일까지로, 방법은 각자 시간을 내어 학급의 친구들에게 1:1로 질문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개인이 면대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답을 받아 적어오는 방식이다 보니 인당 진행하기에 부담스럽지 않을 인원수를 물어 5명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선정된 인터뷰 질문과 질문별 아동들의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Q 01.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업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잘 하는 것이 다른데 똑같은 것으로만 배우는 것 같아 옳지 않은 것 같다
- 저한테 맞지 않는 수업을 들으려 하니 공부 더 싫어지는 것 같다

- 적성에 맞지 않는 공부를 하니까 적성을 찾기가 더 힘들어질 것 같다
- 너무 선생님 의견대로만 진행되는 것 같다

**Q. 자율 시간표를 시행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시행했으면 좋을까요?**

- 예체능 쪽으로 잘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걸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 자유시간에 자기가 맞는 것을 들을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 과목을 진로에 맞추어 선택해 듣거나 학교에서 적성에 맞게끔 추천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 자기 진로에 맞고 원하는 과목 위주로 해야하는 것은 맞는데 기본 교과는 배워야 한다. 무조건 문제풀고 강압적인 게 아닌 자율적으로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Q. 이런 방식으로 자율 시간표를 시행하면 수업이 더 재미있어질 것 같나요?**

- 자기한테 맞는 진로를 더 빨리 정할 수 있을 것 같다
- 맞는 진로에 관심을 갖고 더 노력하고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
- 이하 동의

Step3. 2차 모니터링단 회의

1. 회의 일시 : 2022.10.23.
2. 회의 방식 : 용암종합복지관 2층 사무실 대면회의
3. 회의 참석자 : 김미진, 이서진, 안지상
4. 회의 내용
  - ① 활동 결과 보고 및 공유
  - ② 최종 발표 참석 인원 확정
5. 활동내용
  - ① 인터뷰 결과에 공유
  - ② 선정된 인터뷰 질문에 대한 LENS 단원들의 견해 토의
  - ③ 최종 발표 관련 안내

## Step

### 6. 활동 세부사항

#### Q.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업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다해

-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한다. 쉬는시간에 비해 수업시간이 너무 길다.
- 우리학교는 정말 좋다고 생각한다. 초등학생땐 골고루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우리학교는 좋다고 생각한다.
- 현재 수업방식에 불만이 있다.
- 잘하고 있다. 아직은 쉬는 시간에 대해 만족 중이다.
- 별로다. 체육이 2개밖에 없고 너무 불공평하게 진행된다.

##### 미진

- 5명중 4명은 괜찮다, 적절하다고 답했고 1명은 조금 힘들다고 답했다.

##### 서진

- 만족스럽다.
- 수업 내용이 너무 복잡하다.
- 수학이 너무 많아 불만스럽다.
- 배우고 있는 내용이 너무 어렵다.
- 체육이 너무 많아 불만스럽다.

##### 지상

- 수업 시간이 45분인 건 너무 긴 것 같다.
- 창체 시간이 있지만 담임 선생님의 과목과 관련된 공부나 게임을 하거나 교장선생님 연설을 들어야 해서 재미가 없다.
- 자유시간이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휴대폰을 하거나 영상으로 된 연설을 듣는 것이 재미가 없어 다들 좋아하지는 않는다.

##### 진솔

-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업 방식은 학생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 주입식 교육이 많이 첨가된 것 같다
- 사교육을 유도하는 수업인 것 같다.
- 너무 많은 양을 빠르게 가르친다.
- 의미가 없는 교육 방식인 것 같다. 모두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같은 방식으로 교육해 맘에 들지 않는다.

**Q. 자율 시간표를 시행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시행했으면 좋을까요?**

**다해**

- 자유시간이 시간표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 자유시간때 체육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 자유시간이 시간표에 들어가는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으로 진행되면 좋겠다.
- 체육시간 한교시만 더 주면 좋겠고, 재밌게 놀면서 진행되면 좋겠다.
- 자유롭게 본인 적성맞게 진행되면 좋겠다.

**미진**

- 상관없이 해도 괜찮다 (2명)
- 학생들끼리 모여 동아리처럼 활동하면 친목에 더 좋을 것 같다.
-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서진**

-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원하는 대로 시간표를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재미있는 과목 위주로 수업을 듣고 싶다.
- 각 반에서 투표로 시간표를 정하고 싶다. (단체 시간표)
- 자유롭게 하고싶은 대로 수업을 듣고 싶다.

**지상**

- 수업 중 1시간 정도 자유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 자유시간을 동아리처럼 운영했으면 좋겠다.

**+) 해당 인터뷰에 대한 지상 학생의 의견 추가**

운호중의 경우 월요일을 제외하면 마지막 교시를 동아리 시간으로 운영 중이다. 애니메이션 동아리, 국악 동아리, 바느질 동아리 등 학기 초에 한 번씩 결정한다. 하지만 만족도는 낮게 나타나는데, 아이들이 하고싶어 하는 것은 E스포츠 등 몸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동아리 별로 인원 제한이 있어 가위바위보에서 지면 원하지 않는 동아리를 들어야 한다. 그림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림 동아리에 든 친구들도 있어 동아리 자체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진솔**

- 선택 과목이나 예체능 등 여러 활동을 선택해 들을 수 있도록 한다.
- 교과서 위주의 수업을 안 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 하고 싶은 것을 찾을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 정해진 시간 만큼은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처럼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선택할 수 있는 수업, 대학교 수강 신청과 같은 방식으로 수업을 한다.

**Q. 이런 방식으로 자율 시간표를 시행하면 수업이 더 재미있어질 것 같나요?**

다해

- 정말 놀면서 수업하면서 하면 자유시간이 있어도 좋을 것 같다.
- 자유시간표를 시행하면 불만사항이 없어질 것 같다

진솔

- 수업 시간에 잠이 덜 올 것 같다.
-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하니 흥미로울 것 같다.
- 더 재미있어질 뿐더러 학습효과가 올라갈 것 같다.
- 재미있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 미래의 나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더 쉬워질 것 같다.

미진, 서진, 지상 인터뷰 학생 모두 그럴 것 같다고 답함.

**1.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만족도 차이가 큰 학교 재학생 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이하 창체시간 운영 방식에 대한 추가 토의 진행**

**▶ 그렇다면 현재의 비효율적인 동아리 시간에 어떤 활동을 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나요?**

지상

- 대체로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림을 그리고 싶은 친구들을 분류해 미술 선생님에게 보낸다던지 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 신청자가 적은 동아리는 폐기하고 물리는 동아리를 한 두반 정도 더 개설하는 게 나을 것 같다.

**▶ 한솔초도 창체 시간이 존재하나요?**

미진

- 창체 시간이 존재한다. 2주에 한 번 학생들이 원하는 걸 2시간 정도 진행하는데 40분 수업 중 1,2교시를 전부 동아리 시간으로 제공한다. 학생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은 편이다.

▶ **창체시간에 무얼 하길래 학생들에게 반응이 좋은가요?**

미진

- 선생님께 옛날에 했던 놀이들을 배운다. (고무줄놀이, 비석 치기 등...) 그림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그림 동아리 만들어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요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나 학부모님께 도움을 받아 요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서진

- 한 주는 동아리를 하고 한 주는 창체로 밖에 나가서 논다. 미진의 말처럼 전통놀이를 많이 배운다.

▶ **운동중에 비해 한술초가 창체나 동아리 활동 면에서 자유롭고,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아 보여요. 두 학교 간 동아리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을까요?**

미진

- 한술초의 경우 동아리 별 인원 제한이 없고 우리가 원하는 동아리를 우리가 직접 개설하고 친구들을 모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불이나 칼처럼 위험한 것을 사용하는 동아리만 (요리 동아리) 활동 시 담당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이 도와주시고, 그 외 홍보 등은 전적으로 학생들이 진행한다.

지상

- 운호중도 학교에 건의해서 동아리를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기는 했었지만 개설된 동아리들이 빠르게 다시 없어졌다. 댄스 동아리도 그렇고, 유도에 관심이 있는 편이라 유도 동아리를 개설하고자 여쭙어 보았는데 선생님들이 유도는 위험한 만큼 전문적인 강사나 관장님을 불러올 수 없어 진행이 어렵다며 기각되었다.

한술초의 경우 기타 활동에 대해 앞서가는 것 같아 보인다. 기회가 많아 보여 부럽다.

서진

- 선생님들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걸 배우는 게 진짜 공부라고는 하지만 너무 많이 노는 것도 같다는 생각도 든다. 저의 경우 밖에 나가서 노는 것을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한다. 공부를 너무 하지 않는 것 같다며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기도 한다.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복지사님 말씀 첨언**

- 한술초가 공모 교장선생님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타 학교에 비해 외부 활동이나 기타 활동에 적극적인 편이다.

- ▶ 최종 발표는 2차 모임 당일 참석한 안지상, 김미진, 이서진 학생이 모두 참석 가능하다고 하여 위의 3명으로 확정 후 최종 발표를 위해 11월에 발표자들과의 모임을 한 번 더 가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요일만 주말로 정해둔 상태이고, 정확한 날짜는 발표 상세 일정 확정 후 정할 예정입니다.

#### Step4. 활동결과 및 아동 제안

- 중학교도 초등학교처럼 자유로운 학업 분위기가 보장되었으면 좋겠다.
- 대학교처럼 듣고싶은 과목을 직접 선택해 시간표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창체시간에 현재보다 유익한 진로 관련 활동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 한솔초처럼 학생들이 직접 동아리를 운영하는 방식이 더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 (한솔 초는 학생들이 동아리 설립부터 활동, 홍보까지 직접 하는 방식)
- 학생들의 가치관을 파악하여 이에 맞는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현재보다 더 많이 구성되었으면 좋겠다.

#### Step5. 활동소감(LENS, 코디네이터)

- **김미진:** 저는 이문제를 해결하고 실행할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다같이 합의하고 토의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저도 알아가는 시간이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 **이서진:** 자율시간표에 대해 더 생각하게 된 것 같았고, 평소에는 해본 적 없던 인터뷰도 직접 해보니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 **안지상:** 친구들이 인터뷰라면 장난처럼 받아들였는데, 단체에서 진행하는 것이라 이야기 하니 협조를 해주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 **장채은 코디네이터:**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주최를 맡는 것은 처음이라 걱정도 많이 했지만 아동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어 성공적으로 2회의 모임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비대면 강의에 적응하지 못해 휴학을 한 케이스라 월별 회의는 대면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는데, 아이들 쪽에서 먼저 대면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회의 진행을 위해 주말마다 시간을 내어 약속장소에 나와주었기에 저 또한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첫 코디네이터 활동이라 돌이켜보면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부족한 점이 눈에 보이게 되었다는 것은 더 나은 코디네이터가 되는 법을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동반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주도했기에 초등, 중등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진행을 하기위해 평소 진행하던 것에서 눈높이도 낮춰 보고, 어렵지 않은 단어로 설명하기 위해 회의 내용을 풀어서 살펴보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상 제기되는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계기 또한 이번 활동을 통해 경험할 수 있어 보람찼습니다.

### Step6. 활동사진 및 활동자료



## 총남1 LENS

LENS	방서윤, 최민서, 양희주, 김민준, 김도연, 최연수, 안태욱, 김희수, 고기연, 안서현, 이도현, 조서인, 조예나, 안수빈, 박중후, 김의현, 고동연, 안진성, 조민권
코디 네이터	유동환

활동주제	
공통주제	사이버(온라인)상에서 아동이 마주하는 폭력
권역주제	주말 청소년 전용 버스노선 마련

## 모니터링 활동

Step1. 주제선정 및 계획세우기
<p><b>1. 주제선정 이유</b>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청소년 활동 활성화</p> <p><b>2. 계획세우기</b></p> <p><b>8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역별 주제 선정을 위한 위원간 관심 주제 및 의견 취합</li> </ul> <p><b>9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말에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한하여 청소년 전용 버스 노선 확보 및 주말 이용 선호 관광지에 대한 요구 파악을 위한, 청소년 설문 조사 내용 구성</li> </ul>

**10월**

- 설문을 통하여 당진시 청소년이 희망하는 주말 청소년 전용 버스노선 요구를 바탕으로 버스 노선 마련 제안

**3. 조사대상 및 방법**

- 대상: 당진시 거주 청소년
- 방법: 각 위원들이 해당 권역을 구성하여, 권역별 학교를 직접 방문을 통한 설문조사의 목적에 대한 설명 후 설문조사 실시(주제별 1천부 이상 실시 예정)

**Step2. 1차 모니터링단 회의**

1. 청소년이 주말에 청소년 시설 및 관광지를 이용하지 않는 원인 파악
2.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시설 및 관광지 파악

**Step3. 2차 모니터링단 회의**

1. 주말에 청소년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당진 내 청소년 전용 관광버스 노선 구성
2. 당진시 거주 청소년의 버스노선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지 제작 및 배포

**Step4. 활동결과 및 아동 제안**

당진시 아동청소년이 주말 다양한 문화시설 이용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이동권 보장을 제안합니다.

- 주말 당진시 아동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문화시설 및 공간에 보다 자유롭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순환버스 마련
- 청소년이 주말에 관광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내 다양한 관광 명소까지 이동하는 청소년 전용 버스 노선 마련

### Step5. 활동소감(LENS, 코디네이터)

- **LENS:** 아동청소년은 이동을 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아동청소년 당사자가 직접 조사하고,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제안하는 과정이 의미 있었음
- **유동환 코디네이터:** 아동청소년들이 학업 이외에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코로나로 인하여 청소년의 활동이 상당히 위축되었던 부분이 다시 일상으로 회복되는 시점에서 구체적인 안건으로 제안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주제라고 생각함

### Step6. 활동사진 및 활동자료

☺ 각 문항을 읽으시고 일치하는 항목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 전용 버스란, 청소년들이 주말에 자주 이용하는 시설 및 장소로 이동하기 편하도록 주말에만 운영하는 버스입니다.  
또한, 주말에 아동·청소년들이 당진시에 아름다운 여행지를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버스입니다.

1. 여러분이 주말에 여가활동을 위하여 이동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 ① 오전10시 이전(10:00 이전)
- ② 오전10시 ~ 오전12시(10:00~12:00)
- ③ 오전12시 ~ 오후2시(12:00~14:00)
- ④ 오후2시 ~ 오후4시(14:00~16:00)
- ⑤ 오후4시 ~ 오후6시(16:00~18:00)
- ⑥ 오후6시 이후(18:00 이후)

2. 여러분이 아동·청소년 전용 버스의 정거장으로 가장 원하는 곳 중 두 곳 선택하세요. (2개 선택)

- ① 영화관 (cgv, 롯데시네마)
- ② 남산도서관
- ③ 수다버스
- ④ 청소년문화의집
- ⑤ 원하는 곳 ( )

3. 여러분이 2번 질문에서 그 시설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4. 여러분이 아동·청소년 관광 목적 버스가 만들어 진다면 방문하기를 원하는 장소를 두 곳 선택하세요. (2개 선택)

(아래 관광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뒷페이지 자료를 봐주세요)

- ① 왜목마을, 석문방조제
- ② 삼교호
- ③ 솔피성지
- ④ 박물관 (합덕 수리 박물관,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 ⑤ 원하는 곳( )

5. 여러분이 4번 질문에서 해당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6. 여러분은 아동·청소년 전용 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 ② 필요하다
- ③ 필요하지 않다
- ④ 매우 필요하지 않다

7. 위와 같이(6번과 같이)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8. 기타 시설에 관한 의견 또는 당진시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

◆응답자 기본 정보

다음은 응답자에 대한 기본 사항을 묻는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을 골라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소속 교급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8세      ② 9세      ③ 10세      ④ 11세      ⑤ 12세      ⑥ 13세  
⑦ 14세      ⑧ 15세      ⑨ 16세      ⑩ 17세      ⑪ 18세      ⑫ 19세

3. 거주 지역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합덕읍      ② 송악읍      ③ 고대면      ④ 석문면      ⑤ 대흥지면      ⑥ 정미면  
⑦ 면천면      ⑧ 순성면      ⑨ 우강면      ⑩ 신흥면      ⑪ 속산면      ⑫ 당진1동  
⑬ 당진2동      ⑭ 당진3동

『 본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충남2 LENS

LENS	김한규, 박민재, 유지연, 차서현, 허준서
코디네이터	유동환

활동주제	
공동주제	사이버(온라인)상에서 아동이 마주하는 폭력
권역주제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모니터링 활동

### Step1. 주제선정 및 계획세우기

#### 1. 주제선정 이유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청소년 활동 활성화

#### 2. 계획세우기

8월

- 권역별 주제 선정을 위한 위원간 관심 주제 및 의견 취합

9월

-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청소년문화활동 실태 조사를 위한 설문지 구성 및 설문 실시

10월

- 청소년문화활동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청소년이 선호하는 문화활동 프로그램 및 정책 제안

### 3. 조사대상 및 방법

- 대상: 당진시 거주 청소년
- 방법: 각 위원들이 해당 권역을 구성하여, 권역별 학교를 직접 방문을 통한 설문조사의 목적에 대한 설명 후 설문조사 실시(주제별 1천부 이상 실시 예정)

#### Step2. 1차 모니터링단 회의

1. 청소년이 주로 하는 청소년 문화활동 내용 파악
2. 청소년 문화활동의 위축이 청소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논의

#### Step3. 2차 모니터링단 회의

1. 당진시 청소년의 요구 파악을 위한 설문지 제작 오리엔테이션 진행
2. 청소년 문화활동 실태 조사를 위한 설문지 제작

#### Step4. 활동결과 및 아동 제안

당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다양하고 활발한 문화활동 여건 조성을 제안합니다.

1. 코로나 19로 인하여 상당히 위축된 청소년 문화활동 여건 개선
2. 당진시 청소년이 선호하는 청소년 문화활동 내용에 대한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대안 마련
3. 당진시 청소년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쉽게 접하고, 청소년으로 인한 문화가 활발하게 창출 및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 Step5. 활동소감(LENS, 코디네이터)

- **LENS:**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 하는 과정에 있어, 단순히 청소년참여위원회 의원의 의견 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했다는 부분에 있어 큰 의미를 있었음. 또한 당진은 도심과 외곽지역간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지역별 청소년의 요구사항이 큰 차이를 보이기에 이러한 과정이 더욱 큰 의미로 받아들여졌음.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진행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청소년 의견이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음
- **유동환 코디네이터:** 청소년이 본인들의 의견을 제안하기 위한 과정에 있어 방법의 선정과 타당성에 대하여 스스로 고민하고 논의를 통하여 결정했다는 점, 의견이 서로 상이한 상대방을 보다 타당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설득해 나가며 의견 조율을 하고 결론을 도출해가는 참여과정이 청소년의 성장에 있어 큰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함

### Step6. 활동사진 및 활동자료

문화활동이란 스포츠활동 스포츠관람 인터넷쇼핑 문화공연관람 문화예술 및 창작활동 OTT, 유튜브 시청, 영화시청, 자기계발활동 등을 의미함

1. 귀하의 일일 평균 문화활동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최근 1개월 기준)

- ① 1시간미만                      ② 1시간이상~2시간미만                      ③ 2시간이상~3시간미만  
④ 3시간이상~4시간미만      ⑤ 4시간이상~5시간미만                      ⑥ 5시간이상

2. 귀하의 현재 일일 평균 문화활동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1개월 기준)

- ①매우 충분하다                      ②충분하다                      ③부족하다                      ④매우 부족하다

3. 문화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시간이 부족해서  
②경제적 여유가 부족해서  
③ 같이 즐길 친구가 없어서  
④청소년 문화생활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⑤문화 시설의 접근성이 낮아서  
⑥기타( )

4. 귀하가 여가시간에 주로 하는 문화활동은 무엇입니까?

- ①스포츠 활동(농구 축구 야구 피구 배구 등)
- ②스포츠 관람(농구 축구 야구 피구 배구 등)
- ③인터넷 서핑
- ④문화공연(연극 뮤지컬) 관람
- ⑤문화예술 및 창작활동
- ⑥OTT, 유튜브 시청
- ⑦영화시청
- ⑧취미 자기계발활동
- ⑨컴퓨터 핸드폰게임
- ⑩쇼핑
- ⑪기타( )

5. 귀하가 현재 당진시 내에서 하고 있는 문화활동에 만족하십니까?

- ①매우 만족      ②만족      ③불만족      ④매우 불만

6. 당진시 소재 청소년문화의집(당진청소년문화의집, 합덕청소년문화의집, 송악청소년문화의집)의 이용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있다      ②없다

6-1.(①에 응답한 사람만) 당진시 소재 청소년문화의집(당진청소년문화의집, 합덕청소년문화의집, 송악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게 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 ①가족의 권유
- ②친구 또는 지인의 소개
- ③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 ④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
- ⑤홍보물(포스터)
- ⑥기타 ( )

## 전북 LENS

LENS	박윤아, 임하영, 최효주, 유현주, 임규리, 송나리, 최아라, 김윤주, 최민선, 용예은, 최지우, 채지우, 이채은, 장서연, 최봄, 장혜빈
코디 네이터	김지유

활동주제	
공통주제	사이버(온라인)상에서 아동이 마주하는 폭력
권역주제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학대의 종류를 예시를 들어서 아동과 시민에게 알리는 활동

## 모니터링 활동

Step1. 주제선정 및 계획세우기
<p><b>1. 주제선정 이유</b></p> <p>유튜브, V로그 등 시청각 자료 외 친구, 사제지간, 가족 간 일상생활에서 언어적, 정신적으로 무분별하게 아동학대를 일삼고 있음에도 아동학대라는 인식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아동학대의 종류와 예시를 들어 아동학대에 대해 알리는 활동을 통해 아동 스스로 아동학대에 대해 알고, 시민들도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p> <p><b>2. 계획세우기</b></p> <p>8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역별 주제선정, 세부 활동 내용 및 일정 정하기</li> <li>- '내가 생각하는 아동학대와 학대 사례' 조사하고 이야기 나누기</li> </ul>

9월

- 1. 몰랐지만 어렸을 때, 또는 현재 ‘내가 겪었던 아동학대 사례’
- 2. 어렸을 때, 또는 현재 인지하지 못한 채 ‘내가 행했던 아동학대 사례’ 조사하고 이야기 나누기

10월

- 조사하고 이야기 나누는 내용을 토대로 ‘아동학대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은?’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활동내용 전시

**3. 조사대상 및 방법**

- 대상: 본인 및 주변 지인
- 방법: 인터뷰 진행
  1. ‘내가 생각하는 아동학대란?’
  2. 몰랐지만 어렸을 때, 또는 현재 ‘내가 겪었던 아동학대 사례’
  3. 어렸을 때, 또는 현재 인지하지 못한 채 ‘내가 행했던 아동학대 사례’
  4. ‘아동학대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은?’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주제 도출 경과**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ZOOM회의를 통해 발대식을 진행했다. 단원들의 얼굴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고, 처음으로 가장 많은 단원들과 함께 활동하게 되어서 올해는 어떻게 활동하게 될지 고민이 됐다.

공동주제는 사이버(온라인)상에서 아동이 마주하는 폭력이라고 정해졌다. 아동인권모니터링단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권역별 주제를 정해 활동하는 시간이 되었다. 상호인사와 함께 내가 맡았던 전북지역에서는 18년도부터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설명을 해주고, 아동들이 활동하길 원하는 주제를 다양하게 말한 후 투표를 진행했다. 사이버상의 연령제한, 또래아동을 돕기위한 아나바다, 장애인 친구돕기,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정리 등의 의견 중 공동주제와 연관된 ‘아동학대 사례를 알아보고 아동과 시민들에게 알려보자!’ 는 주제로 정해졌다. 이 주제로 정해진 이유는 유튜브, V로그 등 시청각 자료 외 친구, 사제지간, 가족 간 일상생활에서 언어적, 정신적으로 무분별하게 아동학대를 일삼고 있음에도 아동학대라는 인식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의견과 함께 아동학대의 종류와 예시를 들어 아동 스스로 아동권리와 아동학대에 대해 알고, 시민들도 스스로의 언행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이유였다.

권역별 주제를 정한 후 아래와 같이 월별 활동계획을 세웠고, 비대면으로는 부족한 부분들은 대면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구분	활동 기간	내용
활동계획	계획	8월	권역별 주제선정, 세부 활동 내용 및 일정 정하기, <u>'내가 생각하는 아동학대와 학대 사례'</u> 조사하고 이야기 나누기
		9월	1. 몰랐지만 어렸을 때, 또는 현재 <u>'내가 겪었던 아동학대 사례'</u> 2. 어렸을 때, 또는 현재 인지하지 못한 채 <u>'내가 행했던 아동학대 사례'</u> 조사하고 이야기 나누기
		10월	조사하고 이야기 나누는 내용을 토대로 <u>'아동학대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은?'</u> 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활동내용 전시
	조사 대상 및 방법	본인 및 주변 지인들 인터뷰	1. <u>'내가 생각하는 아동학대란?'</u> 2. 몰랐지만 어렸을 때, 또는 현재 <u>'내가 겪었던 아동학대 사례'</u> 3. 어렸을 때, 또는 현재 인지하지 못한 채 <u>'내가 행했던 아동학대 사례'</u> 4. <u>'아동학대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은?'</u> 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 Step2. 1차 모니터링단 회의

발대식 이후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모임계획을 짜던 중 1차 보고서와 2차 보고서의 제출 일자와 공통주제 설문 및 개방형 설문조사 실시 등의 전체 일정에 대해 공유해주었다. 8월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권역별 주제가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학대의 종류를 예시로 들어 알리는 활동을 하자' 는 주제로 정해진 후, 광범위한 아동학대 사례 중 활동 방향을 정하기 위해 단원들과 시민들이 모두 와닿을 만한 세부 활동 주제를 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아동학대와 학대 사례'를 조사하고 이야기 나누는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 조사 및 활동 기간을 길게 가져 결과를 도출하려던 계획을 수정하여 캠페인이 아닌 전시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아동들의 중간고사 기간 및 학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래서 8월에 2번의 모임과 9월에 1번의 모임으로 1차 활동 및 보고서 제출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아동들과 어렸을 때, 또는 현재 '내가 겪었던 아동학대 사례' 와 '내가 행했던 아동학대 사례' 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공통적으로 훈육과 학대의 경계에서 성장한 경험들이 있었고, 훈육과 학대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 것인지 또 다른 의문이 들었다. (단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내용들은 먹기 싫은 음식 억지로 먹기, 선생님이 하라는 활동이 끝나기 전까지는 공동체 활동에서 제외되거나 벌 받기, 친구들과 놀지 못하게 하고 억지로 학원보내기 등이 있었다.)

당시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주로 신체적인 학대였고 훈육 과정에서의 폭력은 어느 정도 용인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현재의 시점으로 보면 무지에서 오는 아동학대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현재는 훈육과 체벌을 지양하고 금기시하며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 사례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다음 활동은 훈육과 학대의 구분에 대한 생각과 아동학대의 개념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례들을 전시하여 알리기 위한 활동을 하기로 하고 1차 활동을 마쳤다.

### Step3. 2차 모니터링단 회의

아동의 권리와 현재 추세, 현재 이슈가 되는 다양한 아동학대 사례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 해보며 학대와 훈육의 경계에서 아동들끼리도 의견이 분분했다. 아동학대 사례의 기사를 찾아보면 일부러 아동을 학대하고 방임하는 경우도 있었고, 무지에서 오는 학대와 단순한 실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생계의 어려움과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아동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환경에 처한 부모들의 사례도 많았다. 단원들과 얘기를 나눠보니 다방면으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상황들이 많아서 무조건 아동학대로 보아야 하는지, 훈육의 과정인지, 사회적 어려움에 따른 역할의 부재인지에 따라 생각하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으로 봐야 할 것인지 의문이 강하게 들었다.

이에 여태까지 정리했던 아동학대의 개념과 통계, 다양한 사례를 예로 들어 직접 아동청소년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내용의 전시와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단원들이 모두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다행히 전시와 캠페인을 진행할 장소를 학교로 정했고, 학교에서도 흔쾌히 양해해주셔서 진행할 수 있었다. 학교에서 1차로 전시와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2차로 변화가 길거리에서 부스운동을 하며 캠페인활동을 진행하였다.

전시 및 캠페인을 진행하며 느낀 것은 참여하는 아동청소년과 시민들 모두 아동권리와 학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다양하게 접하다 보니 다행히 시민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있었다.

한편, 준비해간 여러 개의 우드락 중에서 우리가 모두 고민했던 훈육과 학대의 경계에 있는 사례 글에 ‘학대이다’ 와 ‘훈육이다’ 부분에 스티커를 붙이고 왜 그렇게 생각했냐고 답하는 활동이 가장 큰 이슈였다. 사례의 내용은 늦은 밤 이성친구에게 신체사진을 보낸 딸을 보고 때린 아버지의 행동을 학대로 볼지 훈육으로 볼지 생각을 말하는 거였는데 학대라는 의견이 57%, 훈육이라는 의견이 43%로 거의 비슷했다. 그중 중학생대다수는 학대라는 의견이, 고등학생 및 성인들은 훈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조금 더 많았다. 같은 사례를 놓고 보는 관점과 생각이 다 다르고, 모두의 생각이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도 아동학대 관련 기사와 사례를 접할 때마다 어떤 아동권리가 침해되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다방면으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게 될 것 같다.

#### Step4. 활동결과 및 아동 제안

##### ■ 공통주제: 사이버(온라인)상에서 아동이 마주하는 폭력

- 섯다운제의 도입으로 주춤했던 사이버상 폭력은 최근 코로나로 인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SNS 모두 성인인증을 하지 않아도 무분별한 정보와 자극적인 콘텐츠와 수위높은 유해영상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보장이 잘 되어있는 사이트의 경우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시청하는 아동들도 꽤 있는 현실입니다. 게임을 하는 아동들은 언어적 폭력에도 노출되고 잔인하고 자극적인 연령제한이 있는 게임이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아동이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모든 콘텐츠와 전자 기기에서 멀어질 수는 없기에 국가에서 제제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회사, 게임회사, 통신사 등 전반적으로 사전에 아동들이 무분별한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인터넷 채팅으로 주고받는 폭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단속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동들에게 꾸준한 인권교육과 인성교육을 실시하며 상대를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실천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 ■ 권역별주제: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학대의 종류를 예시를 들어서 아동과 시민에게 알리는 활동해보자!

- 아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고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찾아보면서 어떤 인권이 침해되었는지 생각해보고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교과과정이나 아동인권과 관련된 교육과 행사들이 늘어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동학대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복합적인 문제점을 어떻게 접근해서 해석해야 하는지, 아동학대 이후 학대한 사람의 처벌 및 학대당한 아동의 처우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실질적인 교육이 진행된다면 좋겠습니다.

#### Step5. 활동소감(LENS, 코디네이터)

- **임규리:** 아동학대라는 사회 문제 중 하나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친구들과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활동은 렌즈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직에서도 해왔을 텐데 그럼에도 꾸준히 증가하는 사례를 보면 아쉽기도 하고 이게 과연 호소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박윤아:** 렌즈활동이 아니었다면 아동학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심각성을 아직까지도 몰랐을것이다. 직접 아동학대에 대해 많은것들을 찾아보고 알아갈때마다 부딪함을 느꼈다. 또 캠페인을 할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동학대의 뜻, 심각성, 마지막으로 간단한 퀴즈까지 설명하면서 더더욱 부딪함과 많은사람들에게 아동학대에 대해서 알려서 나도 같이 좋았다. 또 활동을하고 보고서를 쓰는건 귀찮았지만 막상 쓰고나면 성취감을 느꼈다. 나중에 또 기회가 생긴다면 또 다시 렌즈활동 하고싶다!
- **임하영:** 렌즈 활동을 통해서 아동학대의 정의, 유형, 사례 등등 많은 것들을 알게되었고 렌즈활동을 하면서 아동학대건수, 아동학대 사례 등 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갈수록 늘고 있는 아동학대건수를 보고서 우리가 뉴스와 같은 매체로 알게되는 아동학대 사건들은 수많은 아동학대건수 중 소수라고 느꼈다. 이러한 느낀점을 통하여 아동인권 캠페인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번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의 협동심도 기르고 활동보고서를 쓸 때는 내가 한 활동들을 돌아보며 부딪함을 느낄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활동은 여태껏 해본적에 없었어서 활동 중 어려움이 없지않아 있었지만 활동 과정에서와 캠페인 후 부딪함을 느낄수 있었고, 이번 활동이 사회적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나에게 너무 좋은 경험이 된것같다.
- **김윤주:** 이번에 렌즈 활동을 하게 되면서 아동학대에는 무슨 종류들이 있고 아동학대를 당할때는 그어떻게 해야하는지, 그 아동학대를 예방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예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색해보고 친구들과 공부도 해보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해서 우드락에 만든것이 정말 재밌었다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한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활동도 하게 되어서 정말 부딪했었다
- **최봄:** 이번 LENS 활동을 통해서 아동들이 직접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에 대해 함께 의논하며, 캠페인 활동도 하게 되어서 너무나 뜻깊고 부딪했습니다. 또한, 항상 좋은 시설과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주신 문화의 집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 앞으로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현주:** 이번 렌즈 활동을 통해 평소에 쉽게 해보지 못했던 활동들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다같이 힘을 모아 회의해서 우드락도 만들고 캠페인 활동을 하며 사람들에게 아동학대의 종류, 사례 등을 알리니 부딪하고 좋았다. 또 평소에는 자세히 생각해 보지 않았던 아동학대라는 주제를 렌즈 활동을 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고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서 좋았고, 이번 활동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아동 인권과 아동학대에 더더욱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최효주:** 8,9,10월 렌즈 활동을 하면서 같이 모여서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 관련 내용도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또 우드락을 꾸미고 길거리에서 캠페인을 하는 것이 처음 해보는거라 매우 새로웠고 재밌었고 부듯했다. 또 아동학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던 것에 감사하고 아동권리, 종류 등등 더 잘 알게 되었던 것 같다. 여러 문제들의 심각성을 느꼈고 이제는 더 관심을 가져 렌즈 활동때 배우고 깨달았던 내용들을 되새기면서 아동학대가 근절되기 위한 해결을 도와야겠다 !
- **송나리:** 저는 렌즈를 하면서 아동학대에 대해 정말 자세하게 알게되었고 캠페인을 하면서 다른친구들이 아동학대에 대해 알아가는 그 부분이 좋았어요 비록 보고서 제출하는 게 조금 싫긴했지만 비니도 감사하고 간식도 감사합니다♥
- **최아라:** 렌즈 활동으로 만들어진 '나'는 한줄로 표현하기 어렵다. 장기 프로젝트의 단점이 '시간이 충분하다는 착각'이라고 생각해온 나로써 이번 렌즈활동이 그런 선입견을 깨준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다.  
 그 누구도 충분하다고 착각 할 수 있는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 한 부원이 뺀 아이디어 하나에 다들 하나씩 살을 붙이며 그렇게 우리의 활동은 시작되었다. 그 중 가장 나의 기억에 남는 활동은 아무래도 일반 시민분들과 함께한 캠페인 활동이 아닐까싶다. 막연히 아동학대를 알리기 위한 방법만을 모색하던 우리가 찾은 가장 좋은 방법은 '캠페인'이었다.  
 물론 우리가 보다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 예를 들어 sns를 통하여 알릴 수도 있었지만, '편하다'라는 것이 문제였다. 결코 편하게 접하고 쉽게 접하여선 우리의 진실된 용기가 보이지 않을 것 같았다. 지금 이 순간에서 조차 부서진 마음을 안고서 울고 있을 아이들에게 성의를 보이고 싶었다.  
 한땀한땀 같이 고민한 흔적이 묻어나는 큰 우드락 몇개를 안고 시민분들과 캠페인을 진행하였을 땐, 너무 보람 차 부듯했다. 또한 활동 초기에 활동보고서를 작성해였을 땐 아동을 빈 종이로, 아동학대를 구겨져버린 종이로 비유 하며 '구겨진 종이는 다시 펴져도 곳곳에 흉터가 남기 마련이다. 아동학대에 있어서 완전한 치유는 없을 것이다. 눈물 젖은 종이는 번지기 마련이니까.' 라는 말을 적어 낸 적이 있었는데, 활동의 마지막을 향한 지금은 생각이 조금 달라졌다.  
 당시엔 막연히 아동학대는 근절되어야 한나라는 생각만 했다면 지금은 미래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젖은 종이는 번지기 마련이지만 쉽게 찢어지고 녹기도 한다. 그러니 우리 다같이 뜨거워지자, 다신 녹을 수 없게 뜨거워져 서로를 터질 듯 껴안아보자.  
 렌즈 = 시선, 아동학대 근절은 우리의 시선으로부터 시작된다. 다시 뜨거워질 우리는 분명 젖지 않을 것이다. 다들 주변을 관찰하자, 렌즈는 계속 될 거니까.

- **장서연:** 작년에 처음으로 렌즈 활동에 참여하였다보니 어리숙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부족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보완하여 활동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잘 이행된 것 같아 만족스럽다. 작년보다 인원이 많아 걱정도 되었지만 오히려 역할분담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되어 좋았다.
- **장혜빈:** 렌즈 활동을 통해 아동의 권리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렌즈 활동 친구들과 함께 학교와 시민들에게 아동의 인권에 대해 캠페인 할 것을 이야기도 나누고 캠페인도 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 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동 학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주위에서 아동학대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과 또 아동학대의 종류가 제가 생각 한 것 보다 훨씬 많다는 것 들을 렌즈 활동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정말 뜻 깊은 시간을 보내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 **이채은:** 렌즈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세우고 활동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과정을 걸치면서 부듯했고, 주제를 정하고 그에 맞는 활동을 하면서 재미를 느꼈다. 렌즈 활동을 통해 주변 문제의 심각성등을 알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 **채지우:**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LENS의 임원으로 활동했다. 이번 주제는 아동학대에 대한 것이었는데 아동학대와 그 종류, 사례에 대해 조사하고 방안도 찾아보며 마지막으로 캠페인을하며 이번 활동을 마쳤다. 아동학대가 생각보다 우리 주변 가까이 있다는것을 알았고, 더이상은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아동학대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번 LENS 활동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한 것 같아 부듯했다.
- **최지우:** 렌즈 활동을 하면서 아동들이 활동 주제를 정하고 직접 활동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의논하며 정하는 과정을 가지면서 아동인 우리가 주체적으로 활동을 이끌어나가는 부분에서 큰 부듯함을 느꼈고, 렌즈 활동을 통해 주변의 문제들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해보며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다.
- **용예은:** 저는 렌즈 활동을 참여하면서 아동학대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친구들과 직접 활동을 계획하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에 관한 캠페인을 계획할 때엔 참여도가 낮을까 봐 걱정도 많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아동학대를 알리는 작은 캠페인이 큰 영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가능성과 희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 **김지유 코디네이터**: 16명의 단원들과 함께 22년도 아동인권모니터링단 LENS 전북권역을 이끌어 가게 되었다. 18년도부터 전북지역 코디네이터를 해왔는데 이렇게 많은 아동이 활동을 하게 된 건 처음이었다. 올해는 어떤 아동들이 어떻게 활동하게 될지 인원이 많다보니 의견조율이 잘 안되면 어쩌나 고민하며 발대식을 진행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보여주지 않던 단원들이 권역별 회의를 진행할 때 돌아가며 인사를 하니 한명두명 얼굴을 보여주었다. 우려와 다르게 다양한 활동주제가 나왔고 권역별 회의시간이 부족할 정도여서 따로 단독방을 통해 소통했다. 그렇게 권역별 주제를 선정하고 활동계획을 세우고 대면으로 만난 날, 어색하지만 설레는 표정의 아동들과 수다를 떨며 세부계획을 세워나갔다. 그렇게 3개월을 함께한 아동들의 소감을 받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지금 끝났다라는 후련한 마음과 함께 가슴한켠이 뭉클하다.

결코 쉽지않았던 기간과 활동, 공통주제 설문과 인터뷰 설문, 월별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간이 될 때마다 단독방과 개인톡은 몇십건이 쌓여있었고 일일이 피드백을 해주며 나도 바쁘게 달려왔다. 내가 쓰는것도 힘든데 활동하는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동인권에 대해 알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아동들이 서로 분담하여 활동을 준비하고 마치며 한 달 한 달 활동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지켜보니 기특했고, 고맷웠다. 재미있는 활동이 아닌데도 다같이 모여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토론할때도, 전시회를 준비하고 보고서를 작성할때도 깔깔웃으며 즐겁게 활동했던 아동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맛있는 간식과 아낌없는 지원이었다.

단원들 한명 한명 소감을 받아 정리해보니 렌즈 활동에 참여하면서 단원들 스스로 활동하는 자체에 의의를 두고 힘들었던 과정들보다 아동권과 아동학대에 대해 생각해보고 앞으로도 관심을 가질거라는 인식의 변화가 뭉클하다. 기특하기도 하고, 단원들에게 배우는 것 같다. 18년도부터 전북지역 코디를 하면서 나 역시도 보고서를 쓰는게 힘들고, 보고서쓰려고 활동하는 건 아닌가 회의감이 든 적도 있었는데 단원들과 활동하고 마무리를 할 때마다 감동을 받는다. 내가 이래서 계속 렌즈활동을 하고있고 코디로써 새로운 단원들을 맞이하고 있나보다.

올해는 렌즈활동을 하면서 조금 다르게 느껴진게 한가지 더 있다. 아동학대를 받았거나 행했던 경험에서 실제 사례들을 조사하고 서로 생각을 말하는 활동에서 아동의 권리가 침해된 상황을 무조건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지, 정서적·신체적·사이버상에서의 폭력에 노출된 모든 상황을 모두 아동학대로 보고 신고하거나 처벌을 해야 되는지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모호한 경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동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을지, 사회적 상황은 어디까지 고려하며 어떤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을지 다방면으로 '제대로 살펴볼 수 있는 눈'을 조금 더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Step6. 활동사진 및 활동자료







## 전남 LENS

LENS	김은후, 김민아, 김도연, 이서현, 김규린, 정나래
코디 네이터	임소현

활동주제	
공동주제	사이버(온라인)상에서 아동이 마주하는 폭력
권역주제	아동들이 지역(동네)에서 보내는 생활환경은 안전한지에 대해 활동을 통해 알아보고 아동과 시민에게 알리는 활동

## 모니터링 활동

### Step1. 주제선정 및 계획세우기

#### 1. 주제선정 이유

아동들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동네-광주 남구 봉선1동 일대)에서 통학뿐만 아니라 학원, 놀이터 등 다양한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과연 아동들의 놀고 쉴 공간들이 안전한지 파악하고자 한다. 아동이 직접 자신의 지역(동네)를 탐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구축되어 있는지 실태 파악 후 이에 대한 내용을 아동 및 시민들에게 홍보 및 알리고자 한다.

#### 2. 계획세우기

8월

- 권역별 주제선정, 세부 활동 내용 및 일정 정하기,
- 광주 남구 봉선1동에 대한 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아동 자신(LENS단원)이 자주 가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조사하고 이야기 나누기

**9월**

- LENS단원들이 공통적으로 자주 가는 장소 파악 후 탐방하기
- 탐방한 장소의 문제점에서 아동들에게 위험이 될만한 요소 파악하기
- 위험 요소와 관련하여 광주 남구 봉선1동 생활환경 조사하기

**10월**

- 조사하고 이야기 나눈 내용을 토대로 '생활환경'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 논의
- 관련 활동내용을 아동 및 지역주민에게 홍보 및 전시

**3. 조사대상 및 방법**

- 방법: 1. LENS단원들이 공통적으로 자주 가는 장소 파악 후 탐방
- 2. 탐방 후 LENS단원들과 생활환경 문제점 논의
- 3. 생활환경 문제점 실태를 알리는 전시물 제작 후 아동 및 지역주민에게 홍보

**주제 도출 경과**

**(공통주제) 사이버(온라인)상에서 아동이 마주하는 폭력**

- 봉선청소년문화의집에 방문하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설문 홍보 및 독려하기 위해 포스터를 인쇄하여 관내 게시판, 청소년 이용 공간에 게시하였다. 또한, 봉선청소년문화의집 주관 행사인 남구청소년어울림마당(10월 22일 토요일)에서 권역 주제 설문조사 활동 실시했다.

**(권역별 주제) 아동들이 지역(동네)에서 보내는 생활환경은 안전한지에 대해 활동을 통해 알아보고 아동과 시민에게 알리는 활동**

**1. 준비과정**

- 아동들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동네-광주 남구 봉선1동 일대)에서 통학뿐만 아니라 학원, 놀이터 등 다양한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과연 아동들의 놀고 쉴 공간들이 안전한지 파악하고자 한다. 아동이 직접 자신의 지역(동네)를 탐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구축되어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자 했다.
- LENS단원들이 공통적으로 자주 가는 장소가 어디인지 살펴보면 자신의 주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다. 단원들이 자주 가는 장소를 탐방하고 그곳에서 어떠한 것이 아동들에게 위험이 될만한 요소인지 생각했다.

- 위험 요소와 관련하여 광주 남구 봉선1동 생활환경을 조사하면서 쓰레기 문제가 아동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쓰레기를 올바르게 배출하는 방법을 아동, 청소년의 목소리로 알려야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 조사하고 이야기 나누는 내용을 토대로 '생활환경'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광주 자치구 중 남구만 유일하게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요일별, 품목별 배출하고 있음을 아동, 청소년, 지역주민에게 홍보하고 이를 전시하는 활동을 계획했다.

## 2. 현황 및 문제점

- LENS 단원들이 자신의 동네에서 아동들의 위협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해보고 그에 따른 의견과 정보들을 아동, 청소년, 시민분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했다. 실제로 아동을 포함한 시민분들의 의견을 조사하는 활동하기로 했다. 그 의견을 바탕으로 추후 활동 또한 논의해보기로 했다.
- 우리 동네 봉선동에서 아동들이 보내는 생활환경은 안전한지 의견조사 활동을 실시했다. 아동, 청소년 및 시민들이 모이는 장이었던 남구청소년어울림마당(22.10.22) 행사에서 청소년 부스로 참여하여 의견조사 설문에 대해 설명하며 조사활동을 펼쳤다.
- 그 결과 38개의 의견이 나왔고, 크게 불법주정차, 신호등 및 횡단보도 설치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문제, 쓰레기 문제, 담배와 매연 문제, 시설 부족(놀이터 등)의 문제가 봉선동에서 아동들에게 위협을 주는 환경에 대한 의견이었다.
- 그중 LENS단원들 또한 아동들의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을 쓰레기 문제라 논의해 활동하였고, 추후에는 해당 장소 탐방 후 세세한 문제점을 파악할 예정이다

### Step2. 1차 모니터링단 회의

1. 회의 일시 : 2022.08.17.
2. 회의 방식 : 대면
3. 회의 참석자 : 김은후, 김민아, 김도연, 이서현, 김규린, 정나래
4. 회의 및 활동 내용
  - ① 권역별 주제선정, 활동계획 등
  - ② LENS 단원 개인이 자주 가는 장소 조사

## 5. 활동내용

- ① 권역별 주세 선정-아동들이 지역(동네)에서 보내는 생활환경은 안전한지에 대해 활동을 통해 알아보고 아동과 시민에게 알리는 활동
- ② LENS 단원 개인이 자주 가는 장소 조사
  - 공통적으로 자주 가는 장소를 찾아본 결과 총 12개의 장소가 나왔다.
  - 모아아파트, 라인아파트, 초록공원, 봉선근린공원, 봉선시장, 광장분식, 솔마트, 통큰마트, 고봉민 김밥, 이마트24, 봉선초등학교, 봉선청소년문화의집(총 12곳 선정, 남구 봉선1동 기준)

1. 회의 일시 : 2022.09.17.

2. 회의 방식 : 대면

3. 회의 참석자 : 김은후, 김민아, 김도연, 이서현, 김규린, 정나래

## 4. 회의 및 활동 내용

- ① LENS 단원 공통적으로 자주 가는 장소 탐방

## 5. 활동내용

- ① 공통장소 12곳 밀집 지역을 탐방
- ② 탐방 코스 : 봉선청소년문화의집 → 롯데리아 봉선점 사거리(고봉민 김밥) → 봉선시장 → 초록공원(봉선1어린이공원)
- ③ 아동, 청소년을 위협하는 요인 - 쓰레기 문제, 아동들에게 익숙한 공간이 쓰레기로 인해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 Step3. 2차 모니터링단 회의

1. 회의 일시 : 2022.10.01.

2. 회의 방식 : 대면

3. 회의 참석자 : 김은후, 김민아, 김도연, 이서현, 김규린, 정나래

#### 4. 회의 및 활동 내용

- ① LENS단원들이 탐방한 장소의 발견한 문제점에서 아동들에게 위험이 될만한 요소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관련 활동내용을 아동 및 지역주민에게 홍보 및 전시

#### 5. 활동내용

##### ① 전시 내용

- 광주 자치구 중 남구 지역은 유일하게 재활용 가능자원에 대한 품목별 요일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주민홍보와 수거체계의 확립에 있어 다소 미비한 부분 때문에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파악
- LENS단원들의 목소리로 아동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캠페인 활동을 진행

##### ② 전시 방법

- 광주 남구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품목별 요일제 시행을 홍보하기 위해 폐박스와 우드락 등을 이용해서 전시물을 제작
- 관련 전시는 관내 1층과 2층에 비치하여 기관을 방문하는 아동 및 청소년, 시민분들에게 홍보

1. 회의 일시 : 2022.10.20.

2. 회의 방식 : 대면

3. 회의 참석자 : 김은후, 김도연, 김규린

#### 4. 회의 및 활동 내용

- ① 우리 동네 봉선동에서 아동들이 보내는 생활 환경은 안전한지 의견 조사 및 공통주제 설문을 위한 준비 활동

#### 5. 활동내용

##### ① 설문을 위한 준비 내용

- 공통주제인 사이버(온라인)상에서 아동이 마주하는 폭력 설문을 홍보하고 독려하기 위해 관내 게시판(1층 청소년 이용 공간, 게시판)에 부착
- X배너 설치 및 포스터 부착, 배부 활동
- 유관기관(광주 남구 봉선동 소재 지역아동센터) 협조 요청
- 의견 조사를 위해 하드보드지를 활용해 의견 조사판 제작(시민분들이 포스트잇에 자신의 의견을 적어 붙일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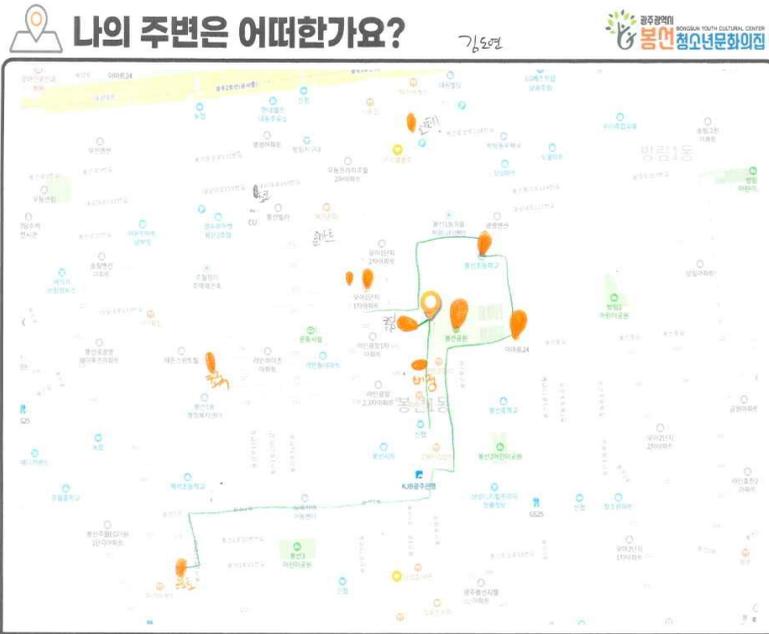
1. 회의 일시 : 2022.10.22.
2. 회의 방식 : 대면
3. 회의 참석자 : 김은후, 김도연, 김규린, 정나래
4. 회의 및 활동 내용
  - ① 우리 동네 봉선동에서 아동들이 보내는 생활 환경은 안전한지 의견 조사
  - ② 공통 주제 설문 활동
5. 활동내용
  - ① 권역별 주제 및 공통 주제 설문 활동
    - 10월 22일 토요일에 있었던 기관 행사(남구청소년어울림마당)에서 부스에 참여
    - X배너 및 칠판을 활용해 아동, 청소년, 시민들이 설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
    - 공통주제 설문 홍보 및 독려 활동 진행
    - 권역주제인 우리 동네 봉선동에서 보내는 생활 환경은 안전한가요? 안전하지 않다면 무엇인가요? 아동, 청소년, 지역주민들에게 의견을 조사하는 활동을 전개

Step4. 활동결과 및 아동 제안
<p><b>1. 공통 주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청소년들이 휴대폰, 태블릿과 같은 모바일 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이버상에서 아동,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는 유튜브, 틱톡 등의 영상 매체입니다. 필터링 없이 무분별하게 자극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경우가 많고, 옳고 그른것인지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li> <li>- 보호자들의 보호 아래에서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사이버상에서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을 마주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li> <li>- 아동, 청소년들과 뗄 수 없는 관계인 사이버 세계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제도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li> </ul> <p><b>2. 권역 주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들이 지역(동네)에서 보내는 생활환경은 안전한지에 대해 활동을 통해 알아보고 아동과 시민에게 알리는 활동을 위해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마을과 협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있는 마을공동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장이 있기를 바랍니다.</li> </ul>

### Step5. 활동소감(LENS, 코디네이터)

- **김규린** : 아동 인권 당사자 모니터링단 활동을 하면서 저희와 같은 아동, 청소년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어른들께서 저희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응원의 말을 해주시는 것을 듣고 더욱 아동 인권, 아동의 권리에 대해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은후** : 아동 인권 당사자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서 우리 동네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광주남구 봉선동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우리의 환경이 어떠한지 잘 모른 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우리 동네 문제점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에 부딪혔습니다.
- **김민아** : 아동 인권 모니터링을 하면서 아동,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이런 활동은 어른들만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활동을 하고 나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다른 지역 아동, 청소년 모니터링단들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더욱 기대됩니다.
- **김도연** : 아동 인권 모니터링 활동을 하면서 저희와 같은 아동들의 권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모니터링 활동을 더욱 참여해보고 싶고 아동을 위한 봉사활동을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 **정나래** : 우리 동네에 대해 우리가 생각한 부분과 아동, 청소년, 시민분들이 생각하는 문제들이 비슷한 부분도 있고 새로운 부분도 발견해서 신기했습니다. 어른들의 눈에서 보는 것이 다를 수도 있구나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활동을 하면서 시민분들께 저희의 활동을 알리고 싶습니다.
- **이서현** :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친구들과 함께 해서 즐겁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아동을 위협하는 요인을 찾기위해 직접 탐방에 나선 것이었는데, 매번 다니는 곳에서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 **임소현 코디네이터** : 아동, 청소년들에게 무조건적인 교육이 아니라 '왜' 우리가 이와 같은 활동을 하는지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 아동들이 익숙하기만 했던 자신의 동네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 전시와 캠페인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자신의 생활환경이 안전하지 않았던 부분을 탐방을 통해 직접 발견해보고, 이를 아동들만의 색깔로 표현하는 작업은 쉽지 않았지만 아동에게 삶에서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의견 조사를 통한 내용은 분류 후 참여 아동들과 아동의 생활 환경은 안전한가에 대한 내용을 조사 후 탐방해보고 싶습니다.

Step6. 활동사진 및 활동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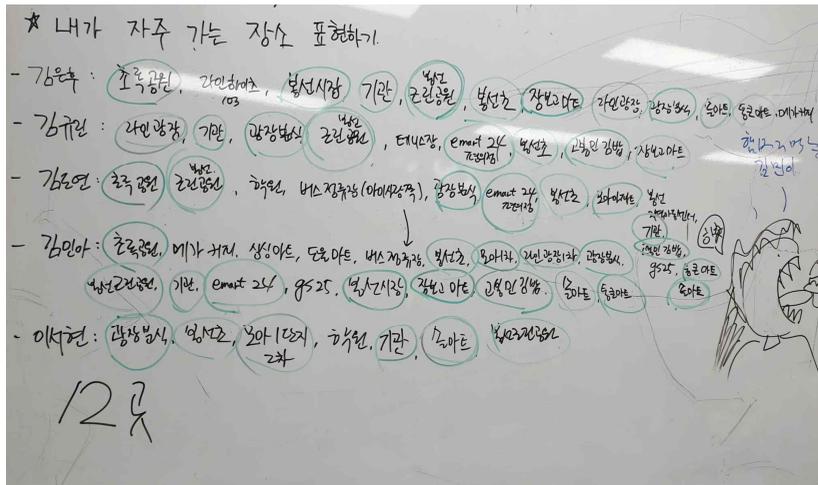


**나의 주변은 어떠한가요?**

**< 우리의 공동 장소는 어디인가요? >**  
 초공원 / 봉선시장 / 광경행복 / 봉선청년문화의집  
 봉선초 / 근로문화관 / 숲야트 / 이마트 24 / 동큰야트  
 과방진김밥 / 라민공원 / 모아야트

**< 우리의 탐방 장소를 이야기해볼까요? >**  
 과방진김밥, 롯데리아쪽 거리를 돌아보자

**김민아**



▲ LENS 단원 개인이 우리 지역(광주 남구 봉선동)에서 자주 가는 장소 조사

📍 우리의 주변은 어떠한가요? 이름: 대현

**< 우리의 탐방 장소는 어디였나요? >**

- ▶ 롯데리아, 봉선시장, 초록공원

**< 탐방 장소의 모습은 어땠나요? >**

- ▶ 담배, 버스, 아이스크림, 빵집, 흥민 카드등등

**< 어떤 봉사활동을 해볼 수 있을까요? >**

- ▶ 1.쓰레기 줍기 4번, 딱딱, 모아서 모이기
- ▶ 2. 제철음식
- ▶ 3.쓰레기 줍고 벌기바줄

**< 다음 탐방 장소는 어디인가요? >**

- ▶ 죽림가, 근린공원

▲ LENS 단원 공통적으로 자주 가는 장소 탐방 후 문제점 도출

우리 동네 봉선동에서 아동들이 보내는 생활환경은 안전한가요?  
 안전하지 않다면 무엇인가요? 포스터에 적어주세요

불법 주차 이런 차량은 없어야 한다	취미권이 복합되어 불편하다	편안하지 않다	문제가 없다	보양 음식	쓰레기 통이 안전	쓰레기 통이 안전	쓰레기 통이 안전
안전 확인 필요	분리 구분 필요	취미 권 복합	문 제 없 다	주 차 공 간 부 족	쓰 레 기 통 이 안 다	쓰 레 기 통 이 안 다	쓰 레 기 통 이 안 다
소 동 의 부 부 로 경 우 발 생 위 험	화 재 위 험 부 족	화 재 위 험 부 족 (연 락 단 위 위 험)	미 안 한 경 우	오 동 생 태 위 험	쓰 레 기 통 이 안 다	쓰 레 기 통 이 안 다	쓰 레 기 통 이 안 다
쓰 레 기 통 이 안 다	화 재 위 험 부 족	화 재 위 험 부 족 (연 락 단 위 위 험)	미 안 한 경 우	오 동 생 태 위 험	쓰 레 기 통 이 안 다	쓰 레 기 통 이 안 다	쓰 레 기 통 이 안 다

▲ 우리 동네 봉선동에서 아동들이 보내는 생활 환경은 안전한지 의견 조사 결과(22.10.22 진행)

## 경북1 LENS

LENS	강중혁, 구강민, 김은성, 김진태, 문시은, 박하윤, 이준현, 장혜린, 최보람, 최예진
코디 네이터	고수연

활동주제	
공통주제	사이버(온라인)상에서 아동이 마주하는 폭력
권역주제	자유학기제도 개선의 필요성

## 모니터링 활동

### Step1. 주제선정 및 계획세우기

#### 1. 주제선정 이유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아동이 선택 할 수 있는 과목이 한정되어 있는 등 체험할 수 있는 과목의 수가 다양하지 않고 1학년에 실시하지 않는 시험으로 2-3학년에 시험 비중이 올라가는 등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 증가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초래하는 자유학기제 제도의 개선에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 2. 계획세우기

9월

- 주제 및 모니터링 대상과 활동 구체화

10월

- 모니터링 활동 진행(설문조사, 제안문 작성)

### 3. 조사대상 및 방법

- 대상: 아동 및 교육분야 전문가
- 방법: 설문조사, 제안문 작성

### Step2. 1차 모니터링단 회의

1. 회의 일시 : 2022.09.18.

2. 회의 방식 : 비대면(ZOOM 활용)

3. 회의 참석자 : 강중혁, 구강민, 김진태, 장혜린, 최예진, 최보람

#### 4. 회의 내용

- ① 권역별 주제 활동 내용 구체화
- ② 설문조사 모니터링 활동 구체화

#### 5. 활동 세부사항

① 9,10월 활동 계획 구체화

- 9월 :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중·고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인식과 실태 조사를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
- 10월 : 설문조사 결과와 LENS의견을 취합하여 정책제안서 제출

② 설문조사 문항

- 자유학기제에 대해 만족하나요?
-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요?
- 자유학기제가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되었나요?
- 자유학기제가 학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 자유학기제로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커졌나요?
- 자유학기제에 어떤 과목이 개설되면 좋을 것 같나요?
- 현재 시행중인 자유학기제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을 작성해주세요.

### Step3. 2차 모니터링단 회의

1. 회의 일시 : 2022.10.09

2. 회의 방식 : 비대면(ZOOM 활용)

3. 회의 참석자 : 강중혁, 구강민, 김진태, 박하윤, 장혜린, 최예진, 최보람

#### 4. 회의 내용

- ① 설문조사 내용 정리
- ② 비대면 캠페인 활동 기획

#### 5. 활동 세부사항

##### ① 설문조사 내용 정리

- 자유학기제에 대해 만족하나요?  
: 매우만족 69.6%, 만족 4.3%, 보통 8.7%, 불만족 4.3%
-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요?  
: 매우만족 69.6%, 만족 8.7%, 보통 8.7%, 불만족 4.3%
- 자유학기제가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되었나요?  
: 매우만족 34.8%, 만족 4.3%, 보통 30.4%, 불만족 8.7%, 매우불만족 13%
- 자유학기제가 학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 매우만족 39.1%, 만족 8.7%, 보통 34.8%, 불만족 4.3%, 매우불만족 4.3%
- 자유학기제로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커졌나요?  
: 매우만족 34.8%, 만족 17.4%, 보통 13%, 불만족 4.3%, 매우불만족 21.7%
- 자유학기제에 어떤 과목이 개설되면 좋을 것 같나요?  
: 탁구, 요리, 해외 여행, 진로 현장체험, 예체능, 도자기체험, 코딩
- 현재 시행중인 자유학기제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을 작성해주세요.  
: 체험 학습 프로그램 다양화, 시험제도 개편(반영비율 재편성 등), 형식적이고 고리타분한 강의식 수업 대신 몸소 체험할 수 있는 활동 수업, 다양한 과목 개설

##### ② 비대면 캠페인 활동 기획

- 인스타그램에서 비대면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기로 함
- 재미를 위해 단서찾기 게임과 함께 캠페인 활동을 진행함
- LENS 소개, 자유학기제 소개, 자유학기제의 실태, 설문조사 활동 소개, 설문조사를 통해 본 자유학기제의 문제점, 교육감님께 바라는 점을 각자 파트를 맡아 정리함

- 캠페인 활동 내용

lens 소개	<p>안녕하세요?</p> <p>한국아동단체협의회 경북1권역 LENS(아동모니터링단)입니다!</p> <p>-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p> <p>우리는 자유학기제를 주제로 잡고 설문조사와 비대면 캠페인 활동을 하였으며 앞으로 경상북도 교육감에게 정책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p> <p>LENS는 무슨 단체인가요?</p> <p>LENS란 권리의 주체인 아동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당사자의 주도로 능동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아동 스스로 아동친화적 환경을 조성해나가며, 아동 권리 수준의 도약을 도모합니다.</p>
자유학기제 소개	<p>자유학기제란?</p> <p>중학교 과정 중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를 선택하여 그 학기 동안 중간·기말고사를 보지 않고, 토론·실습 위주의 참여형 수업과 직장 체험 활동 같은 진로 탐색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p> <p>자유학기제는 기존의 암기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실질적 성장을 돕기 위해 수업과 평가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교과 수업 및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과 연계한 체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p>
자유학기제 실태	<p>자유학기 진로 방향(겉모습)</p> <p>과학자, 수학자, 작가, 시 분석가, 국문학자, 운동선수, 요리사, 평론가</p> <p>자유학기 진로 방향(속모습)</p> <p>이과, 문과, 예체능</p>
설문조사 소개	<p>설문조사 소개</p> <p>저희 LENS는 자유학기제 만족도 등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자 자유학기제를 경험해보았거나 현재 자유학기제에 참여중인 중고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p>
자유학기제 문제점	<p>설문조사를 통해 알게 된 자유학기제의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li> <li>-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커짐</li> <li>-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음</li> </ul>
바라는 점	<p>교육감님에게 바라는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학기제 주제에 대해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좋겠습니다.</li> <li>- 자유를 위해 수행평가를 줄이면 좋겠습니다.</li> </ul>

#### Step4. 활동결과 및 아동 제안

##### 1. 공통주제

- 사이버폭력에 대한 초기대응, 처벌 강화
- 광범위해진 SNS 조사 확대 > 피해 사례 분석 후 조치

##### 2. 권역 주제

- 학생의 진로를 위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과목 편성 및 수강신청
- 이전학년(초등6년)까지 공부만 하다 갑자기 1년 공부를 하지 않고, 자유학기제에 참여, 이후 중등2년 다시 공부 이 과정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많은 아이들이 이에 불편함을 느낌.

#### Step5. 활동소감(LENS, 코디네이터)

- **강중혁:** 모니터링 활동을 하며 내 의견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다. 또 친구들에게 자유학기제에 대해 물어보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재미 있었다.
- **구강민:** 설문조사와 비대면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도 자유학기제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을 알 수 있어 신기했다. 우리들의 활동으로 후배들은 유익하고 즐거운 자유학기제를 보내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올바른 자유학기제를 위해 더 많이 조사하고 선생님 학생 모두 즐거운 자유학기제를 만들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다.
- **김진태:** 활동을 기획하여 진행하는 것이 처음이었는데 활동이 인상적이어서 좋았다. 앞으로도 기획한 활동이 잘되었으면 좋겠고 이번 활동으로 앞으로 자유학기제 참여하는 학생들이 더 좋은 삶을 살았으면 한다.
- **문시은:** 이번 활동을 통하여 자유학기제와 사이버 폭력에 대한 평소 내 생각과 다른 친구들의 생각에 대해 알 수 있어 좋았다.
- **박하윤:** 자유학기제를 주제로 비대면 캠페인 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이 재미있었다. 또 이런 활동을 통해 자유학기제에 대한 내 생각을 알 수 있어 좋았다.
- **장혜린:**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으며, 이번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유학기제와 사이버폭력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 **최보람:** 우리가 직접 주제를 선정하고 직접 설문조사와 비대면 캠페인 활동을 하니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다만 비대면으로 활동을 하다보니 참여도가 적은 것 같아 아쉬움이 들었다.
- **고수연 코디네이터:** 작년에는 코로나19 사태, 올해는 지역이 달라 피치못할 이유로 비대면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2번째 활동이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활동입니다.  
연락이 잘 되지않는 아동이 많아 이번 활동에 대해 많은 걱정이 되었지만 회의에 참여하는 아동들 만큼은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주며 활동에 참여해주어서 저 또한 활동에 참여하는 아동들 만큼이라도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역량이 많이 부족했던 코디네이터라고 느꼈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 부족한 역량을 돌아보고 개선할 수 있었던 과정이 되었던 것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시선이 아닌 그들의 새로운 시선에서 바라보고 활동하며 아동들과 소통할 수 있어 좋았고 새로운 시선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의미있었습니다.

Step6. 활동사진 및 활동자료

(9월 회의)



## 자유학기제 설문조사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동인권당사자모니터링에 참여한 lens 경북1권역입니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조사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유학기제에 대해 만족하나요?

만족하지 않는다. 1 ~ 5 만족한다.

- 1
- 2
- 3
- 4
- 5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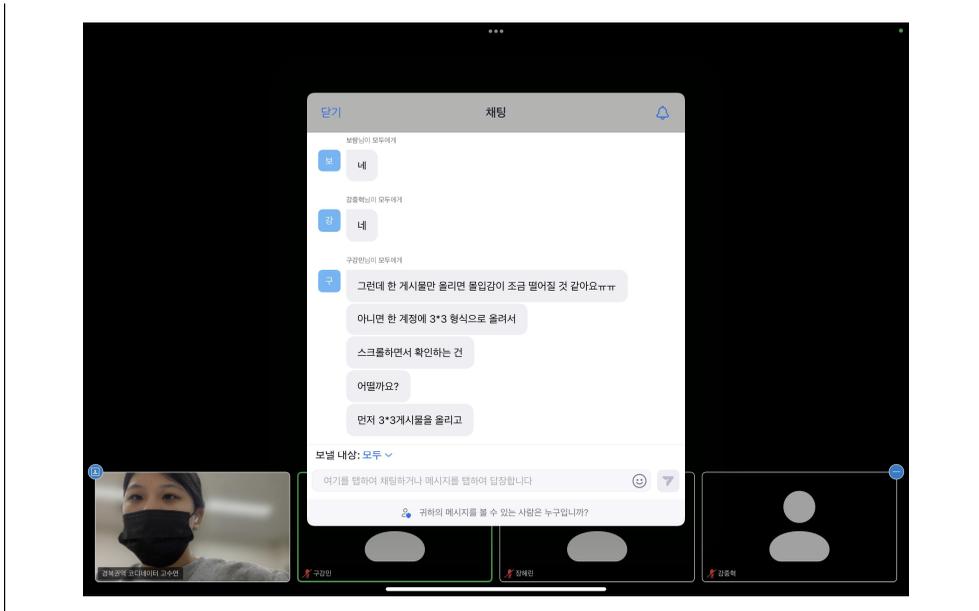
좋지않다. 1 ~ 5 좋다.

- 1
- 2
- 3
- 4
- 5

0 / 7 응답 (0%)

(10월 회의)





## 경북2 LENS

LENS	이승연, 김하경, 강혜빈
코디 네이터	김동명

활동주제	
공동주제	사이버(온라인)상에서 아동이 마주하는 폭력
권역주제	청소년 알바의 현실과 실태

### 모니터링 활동

#### Step1. 주제선정 및 계획세우기

##### 1. 주제선정 이유

발대식 때 아동들이 생각하는 주제를 각자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청소년 알바를 하면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각 아동들에게도 물어보니 주변 친구들이 알바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서 아동들 생각과 친구들의 알바에 대한 생각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선정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2년마다 내놓는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아르바이트를 한 전국 중, 고등학생 53.1%가 아르바이트 업무 내용, 급여, 근로 시간, 휴일 등의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경북 지역의 고등학생의 알바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려고 했습니다.

##### 2. 계획세우기

9월

- 각자 청소년 알바에 대한 자료조사

- 자료조사 바탕으로 인터뷰 내용 함께 고민
- 인스타그램 개설 및 카드뉴스 제작
- 다음 회의 때까지 인터뷰 진행

**10월**

- 인터뷰 내용 바탕으로 카드뉴스 제작
- 인터뷰 토대로 제안문 작성
- 최종 보고서 작성

**3. 조사대상 및 방법**

- 대상: 또래 친구들
- 방법: 청소년 알바에 대한 전국적인 자료조사를 토대로 인터뷰 내용을 함께 고민하고 각 아동들의 알바를 하고 있는 친구들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카드뉴스도 만들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제안문도 작성할 생각입니다.

**Step2. 1차 모니터링단 회의**

**1. 회의 일시 : 2022.09.18.(일) 12:00~13:00**

**2. 회의 방식 : 대면회의 (투썸플레이스)**

**3. 회의 참석자 : 강혜빈, 이승연, 김하경**

**4. 회의 내용 :**

- ① 권역 주제 고민
- ② 앞으로의 활동계획 고민
- ③ 활동 내용 계획 준비

**5 활동 내용**

- ① 각자 자기소개
- ② 주제 고민 및 브레인스토밍
- ③ 주제 고른 후 계획 고민

### [인터뷰 내용]

1. 알바 업종
2. 알바를 하는 이유
3. 알바할 때 힘든 점이나 바뀌었으면 하는 점
4. 부당행위를 당한 적이 있는지
5.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6. 얼마 받는지

### Step3. 2차 모니터링단 회의

1. 회의 일시 : 2022.10.30.(일) 13:00~14:00
2. 회의 방식 : 대면회의
3. 회의 참석자 : 김하경, 이승연
4. 회의 내용
  - ① 각자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인터뷰 조사한 내용 확인
  - ② 9월에 올린 청소년 알바에 대한 카드뉴스 확인
  - ③ 학생들 인터뷰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 제작 구상
  - ④ 청소년 알바 및 그 외에 교육감님께 제안할 내용 정리
5. 활동내용
  - ① 마지막 대면 회의 결과 도출
  - ② 청소년 알바 외에도 교육감님에게 제안할 내용들 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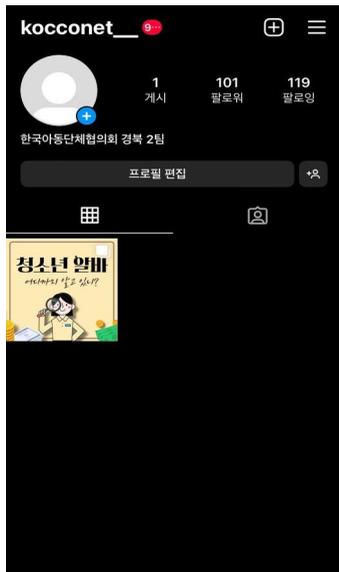
### Step4. 활동결과 및 아동 제안

청소년 알바 비율은 높아지지만 그에 대한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청소년 알바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게 하는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알바임금과 관련한 부조리를 겪은 적이 있다는 사례를 종종 보아왔기에 청소년이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해결 방안 홍보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Step5. 활동소감(LENS, 코디네이터)

- **이승연:** 이번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 알바 실태 현황을 자세히 파악해 볼 수 있었고 청소년들이 알바를 하면서 겪는 부당한 사례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 **김동명 코디네이터:** 저는 성인이기에 평소 청소년 알바에 대해 생각해본 적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 아동들과 함께 청소년 알바의 현황과 실태, 또 인터뷰 내용을 보니 직접 청소년 알바의 심각성과 개선되어야 할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청소년 알바가 많이 개선되고 아동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Step6. 활동사진 및 활동자료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페이스북드점</li> <li>2. 알바몬, 알바천국 등 알바 구하는 앱에서 구함.</li> <li>3. 기숙사비, 급식비, 용돈을 모으기 위해 시작하게 됨.</li> <li>4. 없음</li> <li>5. 없음</li> <li>7. 없음</li> </ol>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프랜차이즈 카페 주말 이돌</li> <li>2. 알바천국</li> <li>3. 용돈 벌이 ( 지금은 용돈 벌이인데 7월까지는 학원비 얼마한테 보태주려고)</li> <li>4. 테이크아웃 전문점 카페는 바빠서 휴게시간 보장 못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휴게시간이랑 식대가 같이 주어진다면 좋을 거 같다. 제가 일하는 곳은 휴게시간 식대가 따로 없습니다 ^^</li> <li>5. O. 비 오는 날 차량이 별로 없어서 근로 계약서에 써져있지 않은데도 비 오는 날은 출근 안 하고 강제로 휴무. 이런 소수 사례 미들만 그런 듯!</li> <li>6. 집에서 그냥 쉬었다.</li> <li>7. 학교에서 전학 XX.</li> </ol>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페이스북라빈스</li> <li>2. 알바천국</li> <li>3. 용돈</li> <li>4. 뒷세 부리는 선배 때문에 힘들었음</li> <li>5. 아직은 없음.</li> <li>6. 없음.</li> </ol>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식당, 카페, 편의점 등</li> <li>2. 알바천국, 알바몬</li> <li>3. 돈이 필요해서</li> <li>4. 처음이라 보니 실수가 많고 힘들다. 바뀌었으면 하는 점은 알바생들에게 너무 뒤러고 하지 않고 차근차근 알려줬으면 한다.</li> <li>5. 없다</li> </ol>   |

## 경남 LENS

LENS	김규리, 김민서, 김서연, 김지유, 성리교, 안은서, 이슬현, 이예나
코디네이터	최민지

활동주제	
공동주제	사이버(온라인)상에서 아동이 마주하는 폭력
권역주제	미성년자 유해사이트 노출에 대한 규제

## 모니터링 활동

### Step1. 주제선정 및 계획세우기

#### 1. 주제선정 이유

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아동·청소년들이 유해한 정보나 환경에 노출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이 성매매에 노출되는 경우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제 17조에 의거하여 아동복지에 해로운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지침의 개발을 장려 하여야 한다. 때문에 이에 관한 규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현재 아동들은 스스로가 유해 사이트나 정보, 자료로부터 보호받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 2. 계획세우기

8월

- 8월회의 진행
- 홍보물 제작(미리캔버스)

- 온라인 설문조사 질문제작
- 홍보, 설문조사 역할분담
- 8월 활동보고서 작성

### 9월

- 9월회의 진행
- 홍보물과 온라인 설문조사 질문지 배포
- 설문조사 홍보활동
- 9월보고서 작성

### 10월

-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보고서 작성

### 3. 조사대상 및 방법

- 대상 : 중·고등학생
- 방법 : 미성년자 유해사이트 노출에 대한 규제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유해사이트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지를 바탕으로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

## Step2. 1차 모니터링단 회의

### 1. 주제에 대한 생각 나누기

- 줌 회의를 통해 주제에 관한 이야기와 의견 주고받기

### 2. 활동방법 의논하기

-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할지, 비대면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할지 의견을 나눔
-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
- 조사 대상 구체화
- 설문조사 기간 설정

### 3. 홍보물 제작 회의

- 유해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설문조사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 결정
- 홍보물 제작을 지원한 사람의 결과물을 보고 투표로 결정

#### 4. 설문조사 질문 의견 나누기

- 주제에 관한 설문조사 질문 나누기 활동
- 활동사진에 첨부

#### 5. 설문조사 홍보 및 실시

- 아동들 주변 지인들에게 홍보
- 제작한 홍보물을 인스타그램에 게시
- 10월 초까지 설문조사 실시

#### 6. 설문조사 질문

1. 하루 인터넷 사용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2. 유해사이트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3. 인터넷 사용 중 유해사이트 광고가 자주 뜨나요?
4. 유해사이트에 접속한 경험이 있나요?
- 4-1. 유해사이트를 접해봤다면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5. 유해사이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 5-1. '예'라고 답했다면 유해사이트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6. 주변에 유해사이트를 접해본 친구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입니까?
7. 유해사이트에 중독되었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8. 유해사이트가 청소년 사이에서 잘못된 문화를 형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9. 현재 유해사이트에 대해 규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 유해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1. 유해사이트 규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Step3. 2차 모니터링단 회의

#### 1. 설문조사 결과

약 한달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로 “유해사이트가 청소년 사이에서 잘못된 문화를 형성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대답으로 92.1%가 “예”라고 답하면서 청소년들이 유해사이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해사이트에 대해 규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대답은 1위 “보통이다.”(36.8%) 2위 “전혀 그렇지 않다.”(34.2%) 3위 “그렇지 않다.”(28.9%)로 규제가 잘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아동들은 유해사이트에 대한 학교의 교육을 강화해야한다고 하는 의견과 유해사이트를 감시하는 제도를 강화해서 유해사이트 광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등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 2. 비대면 캠페인 진행

앞의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줌 회의를 하였습니다. 회의 결과 활동의 마무리로 미성년자들이 유해사이트에 노출 되는 것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유해사이트의 규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독려하는 포스터를 제작하여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는 비대면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 Step4. 활동결과 및 아동 제안

#### 미성년자 유해사이트 노출에 대한 규제

- 유해사이트 광고 규제 강화 필요 -> 연령인증 강화, 사이트 접속 시 경고문 표시, 처벌 강화, 사이버 수사강화, 광고 규제 강화
- 유해사이트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예방 교육 및 신고 방법 교육

### Step5. 활동소감(LENS, 코디네이터)

- **김규리:** 이번 아동인권당사자 모니터링을 하면서 생각보다 재미있었고 아동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서 정말 뜻깊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 **김민서:** 이번 활동하면서 유해사이트나 아동들이 겪고 있는 문제나 이런 것을 알게 되었고 청소년 인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내가 뿌듯했습니다.
- **김서연:** 일단 이런 것에 참여를 한다는 거 자체가 저한테는 큰 도전이여서 좋았던 거 같고 또 재미도 있었고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 **김지유:** 아동인권당사자모니터링을 하면서 아동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많은 것을 알게 되어서 좋았다. 앞으로도 아동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 **성리교:** 이 활동을 하면서 아동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들의 생각이나 뜻을 퍼트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 **안은서:** 내가 아동인권당사자모니터링단을 하면서 유해사이트에 대해 더 깊게 알았고 사람들이 유해사이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아동의 인권에 대해 깊게 알아간 것 같다.
- **이슬현:** 아동인권당사자모니터링단 활동을 하며 우리의 생각을 함께 토론하며 더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동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정책들이 실천되면 좋겠습니다.
- **이예나:** 렌즈활동을 통해 유해사이트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다.  
이번기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유해사이트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설문조사를 하면서 친구들과 여러 의견을 나누고 생각을 공유 할 수 있어서 좋았다
- **최민지 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로 활동하며 단원들이 모두 초등학생이어서 소통과 활동 진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각 활동을 할 때 아동이 어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 아동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아동들이 활동을 진행하는 데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발대식부터 10월 회의까지 모든 활동이 비대면 활동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처음에는 부끄러워 의견을 잘 내지 못하는 단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원들끼리 팀을 나눠 활동을 진행할 때 활동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마이크를 켜고 말하기보다는 채팅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채팅창을 활용하니 그래도 어느 정도 소통이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OT에서 아동 권리에 대한 수업을 듣고, 아동 인권교육을 직접 진행하며 아동 권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3개월간 활동을 진행하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무사히 활동을 끝맺음 할 수 있어서 보람있는 활동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 Step6. 활동사진 및 활동자료



**인사이드 보기** 게시물 홍보

x\_x\_wariwari  
안녕하세요!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lens" 활동 하고있는 경남권역 학생들입니다!

혹시 인터넷을 하다 뜨는 광고를 본 적 있으신가요?  
간혹 불쾌한 유해광고들이 뜨지 않나요?

저희는 그런 유해사이트에서 올리는 광고들이나 콘텐츠들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우리들의 올바른 인터넷 문화 형성을 위해 설문 조사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4:43

< 한아협 Lens 경남권역 모니터링

"미성년자 유해사이트 노출에 대해" 설문조사 질문 3-4가지 올리기  
\*댓글로 올리세요\*

한아협 아동 이예나  
8월 19일 오후 8:07

1. 유해사이트를 접해 본 적이 있나요?
2. 유해사이트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3. 유해사이트를 접해봤다면 어떻게 접하게 되었나요?

한아협 아동 성리교  
8월 21일 오후 7:44

1. 유해사이트를 접해본 경험이 있나요?
2. 어떻게 경험하게 되었나요?
3. 자기가 위해서 접한 경우에는 유해사이트에 접속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4. 원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본 경우에는 기분이 어떻게 대체했나요?
5. 유해사이트 규제에 대해 찬성하나요?
6. 찬성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아협 아동 이슬현  
8월 21일 오후 7:54

1. 유해사이트에 접속한 경험이 있나요?
2. 유해사이트 차단을 위한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3. 유해사이트때문에 불편함을 느낀적이 있나요?

한아협 아동 안은서  
8월 21일 오후 7: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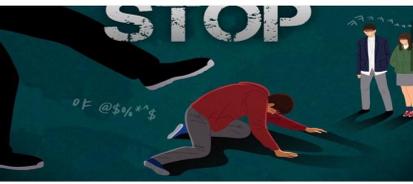
1. 유해 사이트를 접해 본적이 있었었나요?
2. 유해 사이트의 노출에 대해선 세가 채택 노?

댓글을 남겨주세요. 등록

---

11:37

< L\_M\_EUN\_SEO 게시물



좋아요 1개

i\_m\_eun\_seo  
안녕하세요!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lens" 활동 하고있는 경남권역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청소년들이 유해사이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유해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유해사이트 규제가 더 필요하다고 답한 아동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유해사이트 규제를 위해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유해사이트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아동·청소년들이 더 깨끗한 인터넷 문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아협 #아동 #청소년 #인권#유해사이트 #설문조사 #인스타그램

16초 전

## 제주1 LENS

LENS	노정현, 박정서, 유예준, 이서다비, 정호승, 차수빈
코디 네이터	이유빈

활동주제	
공동주제	사이버(온라인)상에서 아동이 마주하는 폭력
권역주제	SNS가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 SNS상의 언어사용 문제

### 모니터링 활동

#### Step1. 주제선정 및 계획세우기

##### 1. 주제선정 이유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아동을 포함하여 다양한 연령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사회적 소통 창구로서 기능하고 있다. 최근 아동이 SNS를 쉽게 접할 수 있어짐에 따라, SNS 속 다양한 매체는 아동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속에서 일어나는 언어 사용 문제에 관심을 갖고, 아동들이 폭력적이고 부적절한 언어 사용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SNS 상의 언어사용 문제를 권역주제로 선정하였다.

##### 2. 계획세우기

8월

- 팀 내 역할 결정(회장, 총무, 사진담당, 알리미, 서기 등)
- 팀 내에서 각자 맡을 임무 논의

- 권역별 주제 1차 설문조사, 인터뷰 진행
- 뉴스기사, 피해 경험 등 조사
- 8월 보고서 작성

#### 9월

- 설문조사 결과 확인 및 분석
- 해결 방안 논의
- 9월 보고서 작성

#### 10월

- 활동 내용 정리 후, 최종 보고서 작성
- 활동을 토대로 협업한 결과 및 생각 공유, 포스터 등 보고서 형식 제작

### 3. 조사대상 및 방법

- 대상: NLCS를 재학 중인 초4~고2 학생들
- 방법: 아동들이 즐겨보는 SNS 속 콘텐츠(영상, 게시물에 욕설이나 비하 표현이 가미되어 더 흥미로워지는지 등) 및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욕설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지에 대한 조사
- 개방형 조사 및 인터뷰: 학생들에게 직접 인터뷰 진행 혹은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다수 일반인에게 개방적으로 인터뷰 진행

## Step2. 1차 모니터링단 회의

발대식 이후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9월 1차 모니터링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일정을 계획 및 일정을 확정하였습니다. 1차 보고서와 2차 보고서 그리고 최종 보고서까지 함께 언제 회의를 하고, 언제까지 보고서 내용을 제출하여 피드백을 받을지 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또한 공통주제와 관련된 온라인 설문조사와 개방형 설문조사를 안내한 뒤 Q&A 시간을 가졌고, 질문 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권역별 주제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회의를 통해 권역별 주제를 “SNS가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 SNS의 아동인권 침해”로 선정하였습니다. 단원들은 SNS가 사이버 불링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SNS 속 유해한 매체들이 아동에게 쉽게 노출되어 문제가 발생하기에 이 부분을 주제로 다뤄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해당 주제가 공통 주제와 매우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주제의 방향을 잘 알려지지 않은 SNS의 부정적인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SNS로 인한 학습권 및 수면권 침해를 주제로 다루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단원들의 회의 끝에 주제를 확정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각자 다음 모니터링 회의 전까지 각자 맡을 역할을 정하였습니다. 설문조사 및 인터뷰 계획(방법, 대상, 스크립트)을 확정하였고 해당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지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 설문조사

- 방식: 구글폼
- 질문: 토의 후 같이 작성
- 방법: 선생님께 양해를 구해서 전교생 이메일로 발송

### 인터뷰

- 방식: 개인 면담
- 질문: 하나의 공통질문
- 방법: 각자 한 학년을 맡아 5명씩 인터뷰

위의 계획을 확정된 뒤, 아동들의 중간고사 기간 및 학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별도의 회의를 추가로 가지기보다 카카오톡과 이메일을 활용하여 피드백을 진행하고 진행사항을 함께 조율하며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8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의 모임을 가졌고 9월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 Step3. 2차 모니터링단 회의

2차 모니터링 회의에서는 구글 폼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구글 질문이나 내용과 관련하여 1차적인 피드백을 진행한 뒤, 설문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그래프로 표시하였고 인터뷰 결과와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팸플릿을 제작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팸플릿을 제작한 뒤에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나눠주며 어셈블리를 진행하고 이 내용을 널리 알리기로 하였습니다. 설문조사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tV0AVfA2zITedZz6J5\\_m\\_MtKhcBKVDmyGTeZk3c3SI/edit](https://docs.google.com/document/d/1JtV0AVfA2zITedZz6J5_m_MtKhcBKVDmyGTeZk3c3SI/edit)

인터뷰와 SNS 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NLCS에 재학중인 학생들 1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그래프를 만들어 그대프를 토대로 답변을 분석하였습니다. 인터뷰는 진행하였으나, 분량이나 내용 문제로 사용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불성실한 답변, 혹은 미흡한 정보 등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어떤 활동을 통해 사람들에게 아동인권의 실태를 알릴지 함께 고민했습니다. SNS 상에서 일어나는 아동인권침해를 알리기 위해 '어셈블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7~9학년 층이 SNS 사용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결과, 해당 학년들을 대상으로 어셈블리를 진행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SNS에서의 문제는 주로 선정적인 광고, 욕설, 사이버 폭력 등으로 다뤄졌으나, 아동의 수면권, 건강권, 학습권 침해와도 연결지어 SNS의 문제가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해당 내용으로 발표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현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인권이란 무엇인가, SNS의 특성과 피해, 폰 중독 아동과 성인의 차이, 설문조사 결과, SNS 과의존의 심각성, SNS 중독의 해결방안입니다.

학생들의 해당 준비 사항에 대해 발표나 팸플릿을 학생 외에도 다른 아동, 성인들에게도 알릴 수 있도록 SNS나 지역 게시판에 올리도록 피드백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이 아동들에게 도움이 됨과 동시에 아동인권의 중요성과 침해된 아동인권의 해결방안을 찾는 것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피드백을 제시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계획을 세우며 2차 비대면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 어셈블리 준비 단계: 팸플릿, 발표 준비, 최종보고서 작성 준비.
- 어셈블리 준비 사항 이행 시 연락
- 어셈블리 진행 후 대본, 팸플릿, ppt 전달 및 피드백
- **최종보고서 작성: 10월 27일 저녁, 10월 29일, 30일 (최종 활동사항 중요한 부분: 대본, ppt, 팸플릿) -> 10월 30일 마감**

지금까지 함께 연구하고 탐구한 결과물을 어셈블리에서 NLCS 학생들에게 널리 알렸고, 팸플릿을 배부하여 학교 학생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학교 학생에게도 해당 팸플릿을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보내 SNS의 부정적인 영향과 아동인권 침해 실태를 널리 알리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이 열심히 어셈블리를 준비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학생들이 직접 보람찼고, 자신도 몰랐던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말해 주어서 뿌듯했습니다.

어린 시절을 되돌아 보면, 초등학교 시절에는 SNS가 거의 보편화되지 않아 잠도 제 시간에 자고 '어린이 다운'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오늘날의 어린이들은, 그리고 나 자신의 중고등학교 시절은 SNS를 하다가 밤을 새거나 SNS를 하느라 시간을 보내 친구들과 놀고 밖에서 뛰어 놀 기회를 박탈당했던 것 같다. 앞으로도 오늘날 누구나 사용하고 아동들도 쉽고 당연하게 사용하는 것들이 아동인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어떻게 더 나은, 아동들이 살아가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 다방면으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게 될 것 같다.

#### Step4. 활동결과 및 아동 제안

##### ■ 공통주제: 사이버(온라인)상에서 아동이 마주하는 폭력

'사이버 상에서 아동이 마주하는 폭력'

사이버, 혹은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광범위함과 동시에 비대면적(실시간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오고가는 내용이 빠르게 전파되며 영향력이 크다. 그러므로 아동이 사이버 상에서 마주 하는 폭력을 방지하는 방법은 익명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 부터 방지하는 것이다. 익명을 사용하는 에스크와 같은 사이트나 어플은 신고 기능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해야한다. 또, 익명을 사용하는 것은 나이 제한을 걸어서 아직 사이버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청소년이나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지 못하는 어린이는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 해야한다. 사이버 폭력에 대해 개념을 정확히 깨닫고 처벌 필요성의 인식을 퍼트릴수 있게 교육해야한다.

##### ■ 권역별주제:

SNS가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 SNS의 아동인권 침해

SNS(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서 침해당하는 아동인권' 을 주제로 조사를 하면서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 160여명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진행하고 결과를 분석해보면서 아동의 수면권, 건강권, 학습권 등 아동인권의 기본 요소들이 침해되

고 있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인터넷, 그리고 소셜 미디어 서비스가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공간인 만큼 표현의 자유가 주어지면서 더욱 더 손쉽게 범죄에 접근 할 수 있게 된다. 또, NLCS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제점 개선 방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SNS의 문제점은 개인의 노력과 주의의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므로 학교나 부모님등 가까운 어른의 지도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학교에서 온라인 관련 교육과 영상등으로 학생이 교육 받을 수 있게 지원해야한다. 정부에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러한 지도를 받을 수 있게 온라인 교육을 추가해야한다.

### Step5. 활동소감(LENS, 코디네이터)

- **이서다비:** “SNS 상에 아동인권 침해” 라는 주제를 가지고 팀원들과 함께 이 주제를 둘러싼 문제점들과 그의 따른 해결방안에 대해서 조사 해보았다. 아동들이 SNS 상에서 받는 부정적인 영향들은 컸고, 이또한 우리에게 SNS 사용에 대한 심각성을 부각 시켜주었다. 활동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는 무엇보다 아동들의 인권을 지키려는 노력을 우선시 해야 하고 특히 사이버 상에서의 모든 행동들에 더욱 더 신중을 기해야함을 깨달았다.
- **차수빈:** 이번 활동을 마치며, 이 활동이 SNS상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알릴 수 있는 뜻깊은 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 아동들에게 SNS가 주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알리며 이를 토대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했으며, 이러한 방안들이 아동의 사이버 상에서의 안전을 보장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 **정호승:** 이번 활동을 통해 SNS로 인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 조사하며, SNS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았다. 또한 그런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들으며 활동 중 여러 해결방안을 결론 및 알리기로 하였으며, 현재 SNS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기회였으며, SNS 사용을 더 신중하게 써야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 **노정현:** 이번 활동을 통해 SNS를 통해 발생하고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었고 그의 심각성을 깨달게 되었다. 저희 그룹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해결방안을 여러 차례 제시하였으며 다른 학생들과 사람들에게 이 문제점을 알릴 방법을 연구하고 생각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SNS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릴 수 있었다.
- **유예준:** 이번 활동으로 인해 청소년 sns사용의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경각심을 얻음. 또,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 해야한다는 걸 깨달음.  
아동들의 인권은 어른들의 것과 다르며, 가치관이 생기는 어린시기동안 sns와 커가는 아이들에게 더욱더 조심해야함. 이 기회에 나 자신도 sns사용을 신중히 할 것.

- **이유빈 코디네이터:** 6명의 단원들과 2022년 아동인권모니터링 사업의 제주권역1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에 갔을 때에는 권역도 정해지지 않았었고, 처음하는 활동이었기에 많은 어려움을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처음 제주 권역을 맡았을 때에는 너무 먼 거리이기도 하고 코로나가 심각해져 직접 대면으로 단원들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한편으로는 활동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걱정과는 달리 처음 발대식에서 만단 단원들은 모두 밝고 저보다도 먼저 저에게 말을 걸어 주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들이었기에 서로 rapport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저도 제 이야기를 공유하며 아이스 브레이킹을 시도하였습니다. 발대식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회의에서는 모든 단원들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몇 명의 학생이었지만 서로 얼굴을 보고 단톡방을 만들고 활동 주제를 이야기 하면서 앞으로의 활동이 정말 기대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처음'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3개월의 시간이 지나 제가 최종보고서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 시원섭섭한 것 같습니다. 아동들의 어셈블리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아동들이 저에게 말해주었던 소감과 단원들이 직접, 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만든 팸플릿과 피피티, 설문조사에서 열심히 한 노력이 느껴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동이 소감을 제출하며 재미있었고 뿌듯했다고 말해주어서 몽클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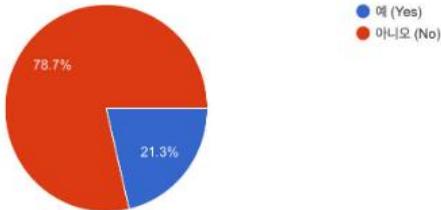
제주 권역을 맡았고 이번 학기에 2학년 대학생으로 학업을 유지하느라 대면 활동을 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비대면 활동은 대면에 비해 활동이 쉽지는 않았지만, 카카오톡과 전화, 줌을 이용해서 여러 사항들을 안내하고 설문조사, 월별보고서 작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일정을 챙겨주었고 저에게도 적극적으로 카카오톡을 보내 준 덕분에 소통은 원활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일정과 겹쳐 9월, 10월 활동은 매우 바빴습니다. 단원들 또한 바쁘고 힘든 와중에도 정말 열심히 매 달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팸플릿을 만들고 어셈블리를 준비하고 저에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많이 고생한 것 같습니다. 저와 통화를 하거나 줌으로 만날 때마다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해주고 신이 나게 서로 떠드는 장면이 지금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중에는 눈 앞에 떠오릅니다. 단원들이 부족한 코디네이터인 저를 잘 따라와주었고, 때로는 저를 잘 이끌어 주어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꼭 활동 이후에도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싶고, 기회가 된다면 꼭 대면으로 만나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밥 한 끼를 먹고 싶습니다.

아동인권 모니터링을 하면서 우리 주변의 모든 것, 혹은 어른들이 편리하게 살아가기 위해 만든 것들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노키즈존, SNS, 민원으로 인해 없어지는 놀이터 등, 앞으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되는 요인이 있다면 그 요인을 분석하여 없앨 방법을 찾고자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이 활동을 시작으로 아동을 더 이해하고 아동의 목소리를 듣고, 더 아동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아동인권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하면서 정말 뿌듯했고 기회가 된다면 다음 활동에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 Step6. 활동사진 및 활동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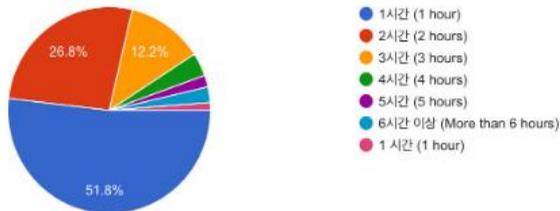
본인이 생각했을때 자신은 인터넷 중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Do you consider yourself an Internet addict?)

164 responses



하루 평균 SNS 사용시간은 얼마인가요? (Average social media usage time per day)

164 responses



**실적성**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90.86%,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74.4%로 인지도 높음  
 1. 소셜미디어의 존재  
 소셜미디어의 활용이 늘 다 공존하지만 긍정적으로 가지고있는 사람 비율 확산과 강한 영향력 정도라고 보면 될 것. 소셜미디어에 정보  
 혹은 속도로 퍼지는 상황을 가지고있음, 그러하기에 불분명한 정보의 확산도 순식간에 연결될 수 있게 됨, 그러므로 확인된 사실은 언제 퍼  
 려질 수 있음  
 2. 영향력  
 1. 개인정보 및 다른 정보 노출  
 2. 사생활 노출 위험성  
 3. 사생활 발달에 미치는 영향 때문

**해결방법**  
 SNS가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NCS 7학년, 8학년의 의견  
 'social media 공백이 좀 더 많아'  
 '해결할 방법 없고(해서 내가 없기를 만들어 유해 광고 차단)  
 '스스로 차단을 하고 적당히 조절 너무 통제하는 것도 자신감 상실의 감각에 스톱페스 앱에 도움이 안되니까 때문'  
 '광고 안보여 사용시간을 줄이고 광고에서 그에 상응하는 광고를 보여줘야 해서 그게 해결 방법'  
 '사생활 노출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단타에 중독이 되면 그에 대한 걸음 걸이 제한에 주변에서 관리심을 심어주는 것'  
 '제한된 기능에 유료서비스로 만든 프로그램 혹은 서비스를 다운로드 하여 컴퓨터를 사용해서 차단이 안되니까, 무제한한 서비스들은  
 유료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What do you think is the way to resolve these kind of problems)

- 164 responses
- Set more restrictions online
  - social media is one's freedom so it should be preserved
  - 스크린타임
  - We need to be able to control the amount of time spent on your phone.
  - screen time restrictions on my own
  - Stop using social media?
  - No way
  - sns 에 시간 제한이 있다
  - SNS 사용시간을 줄이는 것



## SNS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제주 권역 1팀 - 노정현, 박정서, 차수빈, 유예준, 정호승, 이서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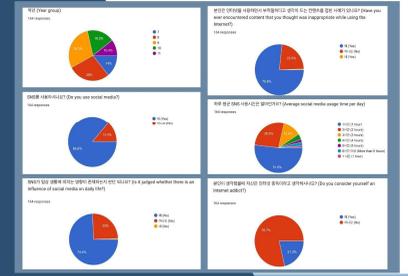
**아동인권이란?**  
 인권이 모든 인간에게 적용된다고 해서 아동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동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아동이 가진 권리를 마음 관여하고 행사한다.

**아동인권의 기본 요소**  
 존엄권, 적절한 생활 수준을 보장할 권, 교육권, 아동에게 유해한 요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 경제능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문화생활을 할 권리 등)  
 참여권,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존중 받을 권리.

**소셜미디어의 특성과 영향력**  
 인터넷은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공간이다.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시작 된 공간으로서 사람들은 몰래 자신의 의견 등을 게시하고 다른 유저들에게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노출될 수 있다. 또한 누구나 가입 가능한 만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 사람들은 손쉽게 정보와 유행어를 접할 수 있게 되고,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큼 특정한 특정 사용자에 대한 접근이 쉬워진다. 또한, 가짜 뉴스, 괴담, 음모론 등도 쉽게 퍼져서 아동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아동들은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상태이므로, 이러한 정보에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다.

**SNS 중독, 아동적 권리의 차이점**  
 휴대전화 중독은 일상 생활을 간섭할 정도로 휴대전화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개인용 통신기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과도하게 몰두하여 일상생활에서 어떤 일도 집중할 수 없게 되는 상태를 일컫는다. 이러한 중독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큰 영향을 끼친다.

아동들에게 인터넷 사용 공간은 더욱 더 위험하다. 아직 자라온 환경의 형성 되지 않은 아동에게 인터넷 사용은 인터넷의 정보들은 특히 아동들이 아직 속수무책일 수 있다. 특히 자라와이거나 유행어가 있어라라 말이지 하지만 이러한 아동들 중 일부 성인들은 심지어, 사학교육 후 대상으로서 인터넷으로 사교육까지 할 정도로 공부하는 것까지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 제주2 LENS

LENS	강윤교, 기가현, 김건이, 김은서, 김해인, 마주연, 신채윤, 양승원, 이유민, 이하영, 이현서
코디네이터	조윤재

활동주제	
공통주제	사이버(온라인)상에서 아동이 마주하는 폭력
권역주제	아동의 자아 구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방안

## 모니터링 활동

Step1. 주제선정 및 계획세우기
<p><b>1. 주제선정 이유</b></p> <p>아동의 자아 탐색 및 자기 계발에 대한 권리가 한국의 현 교육 시스템 속에서 구현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정해진 커리큘럼을 넘어선 다양한 경험과 문화 교육을 제공해줄 수 있는 학교 내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음. 또한 문화 차이를 존중하지 않는 행태가 문화 교육의 부재에 있다는 점을 통해, 아동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 내에서 자아 탐색 프로그램 및 문화 다양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직접 찾아보고 진정한 자기 계발 권리를 구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아동 스스로 고민해보고자 함.</p> <p><b>2. 계획세우기</b></p> <p>8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역별 주제선정, 세부 활동 내용 및 일정 정하기, “아동이 생각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은?”에 대한 토의 진행하기</li> </ul>

## 9월

- 1) 학교 내 자아 탐색 및 문화 증진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하기
- 2) 인터뷰를 통해 학교 내에서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생각해보기

## 10월

- 1) 학교 외에서 아동들이 자아 구현을 위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기  
ex) 청소년 활동 사이트
- 2) “아동이 참여하고 싶은 교육 프로그램은?” 에 대해 고민하기

### 3. 조사대상 및 방법

#### 1) 인터뷰 혹은 설문조사

- 대상: 아동의 학교 내 친구들
- 내용: 아동이 참여하고 싶은 교육 프로그램 및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았던 경험 및 상황에 대해 알아보기

#### 2) 자료검색

- 사이트: 청소년 활동 사이트 및 학교 홈페이지
- 내용: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자아 탐색 프로그램에 대해서 찾아보기

### 주제 도출 경과

#### 1. 주제선정 및 세부 주제 구체화

- 획일화된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획일화된 교육과 암기위주의 수업에 대한 일반고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함.
- 선택권이 없는 과목(과목의 다양성 제한)등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교육권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가짐
- 일반고 학생들의 자아구현 기회 보장을 위한 아동의 자아 구현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필요함에 함께 동의함
- 학교 외부활동에 대한 인정범위 확대도 하나의 방법으로서 제시됨

(청소년 활동(2개의 사이트) -> 신청방법이 어려움, 2차 연결이 되어서 복잡함, 인턴십 관련 자료가 찾아보기 어려움 등의 문제점들을 파악함)

## 2. 팀 구성에 대한 논의

- 원래는 1팀 획일화된 교육방식의 개선방안 탐구, 2팀 문화교육 실태에 관한 모니터링으로 나누어 진행하고자 했으나, 첫 번째 주제인 획일화된 교육방식의 개선방안 탐구를 희망하는 아동들이 많아 하나의 주제를 다같이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정함.
  - 문화존중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도 제시되었음.
- > 문화 차이를 존중하지 않는 현상 (문화 교육의 부족으로 인한 결과), 외국인 노동자의 아이들(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는 교육 등

### Step2. 1차 모니터링단 회의

#### 1. 자아,가치관 형성/ 다양성을 제한하는 교육제도의 커리큘럼 조사

- 일반중,고등학교 수업 커리큘럼에 대한 조사
- 자아, 가치관 형성 및 다양성을 보장하는 해외 교육제도 커리큘럼에 대한 조사
- 한국의 교육제도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에 대한 비교분석

#### 2. 자아,가치관 형성/ 다양성을 제한하는 교육제도에 대한 설문 조사 문항 작성

- 설문조사대상: 제주 지역 일반중,고등학생

(국제고에 재학중인 아동들이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일반고 학생 자치위원회에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음)

- 설문문항 작성 완료
- 온라인 설문 폼 제작 완료
- 다음주부터 각 학교 자치위원회에 연락 후 승인을 받으면 각 학교의 2~3개 반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링크를 배포할 예정임.

### Step3. 2차 모니터링단 회의

#### 1. 활동 진행 상황 점검

● 관련 설문조사 품 배포 및 집계 완료

- 표, 그래프로 집계 정리 완료

(입시만을 위한 교육이다, 주입식 교육 매우 동의 90% 등등)

● 아동 자아 구현 프로그램 관련 조사 역할분담 실시

- 대한민국 교과 과정에 대한 조사

- 대한민국 교육 관련 법률 조사

- 획일화된 교육의 사례, 예시 등

- 현재 청소년의 자아 및 가치관 형성을 제한하는 교육의 문제점을 바꾸기 위한 노력

=> 조사 완료

#### 2. 조사한 내용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 마련

● 카드뉴스 제작(10월 21일까지) 및 인스타그램 배포

- 배포하기 위한 계정 신설 완료

- 카드뉴스 제작 완료 및 올릴 예정

=> 제작완료

● 10월 말까지 매일경제신문 청소년 파트 부분 등 활동을 올릴 수 있는 부분에 조사 내용을 넣을 수 있는지 요청(이행예정)

● 기사화 노력

### Step4. 활동결과 및 아동 제안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생각하던것보다 훨씬 많은 한국 학생들이 자신이 받는 교육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그로 인하여 받는 스트레스도 막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로써 한국 교육 시스템이 오직 대입만을 위한, 소위 말하는 “주입식”의 교육을 줄이고 학생들이 직접 원하는 진로와 발맞춘 특성화된 수업과 프로그램 등을 접할 기회와 선택의 폭을 더욱 넓혀 준다면 학생들은 학교 교과를 수행함과 동시에 자신의 직접적인 미래를 위한 노력을 더욱 하고 정확히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커서 뭘 하고 싶은지 더욱 쉽고 빠르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 Step5. 활동소감(LENS, 코디네이터)

- **김해인:** 학생으로써 우리와 같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표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더 부담과 책임감이 생기게 하는 일이었던것 같다. 하지만 직접 설문조사를 제작하고 수많은 학생들에게 직접 배포하고, 그 결과를 보며 뚜렷한 트렌드와 방향성이 보이는 것을 보고 학생들이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불만들과 의견들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느낌과 함께 더욱 열심히 활동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학생으로써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최적화된 활동이었던것 같다.
- **김은서:** 별 관심 없었던 일반학교 아이들 입장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갈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일반중 출신에 현재 일반중고에 재학중인 친구들이 많이 있음에도 그닥 관심은 없었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뭐가 문제인지 알아가고 이런 그룹에 참여해서 도움을 줄수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부듯할것같아요 나름 재미도 있었구요... 다음 팀 활동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중요한 변화들을 일으켜갈수 있기를 바라고있어요!
- **양승원:** 모니터링 활동을 하면서 일반중고에 다니는 학생들의 한국 교육에 대한 감정과 의견을 알게 되면서 조금 더 시야가 넓어진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의 폐쇄적인 교육 시스템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해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채윤:** 학교에서 들었던 인권에 대한 강의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아동인권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인권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있었는데 자세한 역사를 배울 수 있었어서 유익했습니다. 제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는 사람으로써 한국 청소년 가치관 형성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훨씬 자세하게 문제를 파악할 수 있었어서 도움이 됐지만 한편으로는 안 좋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알아낸 문제점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내는 것이 가장 힘들었지만 학생으로써 최대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안하려 노력했습니다. 저희 조의 노력이 학생들에게, 이 사회에게 끼치는 영향은 미미할지라도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은 것이 많았고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이 경험을 통해 얻은 것을 활용할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 **기가현:** 이번 활동을 통해서 평소에 관심있었던 한국 학생들의 교육인권에 대해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생각해보는 뜻깊은 경험이 된거같다. 학생으로써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적이라고 느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느꼈다.
- **강윤교:**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이 잘 보호받고 있는지 실제로 파헤쳐볼 수 있어서 뜻깊은 기회였다. 특히나 평소에 관심있었던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을 권역별 주제로 탐구해 더욱 흥미로웠고, 실태를 확실히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앞으로는 모니터링단 활동이 아니더라도 내 주변 아동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지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이현서:**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이렇게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들을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 활동을 통해서 의미 있는 경험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설문조사의 문항을 같이 작성하거나 답변의 결과를 분석하고 조원들과 정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면서 현재 교육 시스템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학교에서의 획일화된 주입식 교육 체제를 바꿀 방안을 내놓는 게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이유민:**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 했을 다른 시각으로 교육을 바라볼 수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의견을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또 함께 교육도 받으며 아동에게 주어졌던 교육의 기회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알아보며 새로운 경험을 한 부분이 보람 있습니다.
- **마주연:** 같은 제주 권역 렌즈 단원들과 협력하여 만든 설문조사를 배포한 후 결과를 알아보기 쉽게 그래프로 나타내었을때, 한국 교육과정을 따르는 중고등학생이 공통된 고충을 겪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제학교 학생으로써 한국 교육 과정의 심각성과 실태를 인지하고 있지 않았기에 결과가 굉장히 놀랍기도 했다. 하지만, 이 조사를 통해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막막하기도 했지만, 조원들과 함께 협력하여 도움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을거라는 사실에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에, 특히 아동의 교육에 조금이라도 나의 노력이 보탬이 되는 것은 흔치 않은 기회인데 도움을 주는 봉사자가 될 수 있어 감사하기도 하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 **조윤재 코디네이터:** 교육제도와 교육권은 그 누구보다도 아동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계속적으로 접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 주제를 선정하며 교육권의 주체인 아동들이 해당 활동을 통해 한국의 교육제도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더불어 교육권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매달 한층 성장한 아동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실제 한국의 교육제도를 몸소 체험하고 있는 아동들의 시선에서 던지는 한국의 교육권에 대한 다양한 비판점들은 단지 이 활동을 넘어 교육제도 변화에 있어서 큰 의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본다. 특히, 획일화된 교육과 협소한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 일상생활 속에서 아동들이 막연히 느껴왔던 생각들을 실천으로 옮긴다는 점에서 이번 LENS 활동이 앞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나아갈 아동들의 자기주도성 증진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아동들과 2달간 비대면 활동으로 함께하며, 설문조사, 카드뉴스, 신문사 건의 등 아동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나 한국 교육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외부로 표출하고 실제적인 적용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지켜보으며 아동의 무궁한 성장가능성과 잠재력을 몸소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 Step6. 활동사진 및 활동자료

교외활동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

[https://docs.google.com/document/d/17-TI4QeMrL4pcwK3-oqK67T0ecSDBiTbB\\_aM6zxPSSg/edit?usp=sharing](https://docs.google.com/document/d/17-TI4QeMrL4pcwK3-oqK67T0ecSDBiTbB_aM6zxPSSg/edit?usp=sharing)

획일화된 교육의 문제점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xLO1dAU-y0Jprcn4bfqyp-DPkFhkac-HkjUP2FePYI/edit?usp=sharing>

현재 대한민국 교과 과정

<https://docs.google.com/document/d/12TSHkj6cramyNxzb0qwRgBnB1bRhhJjubOuld0cEcZU/edit?usp=sharing>

대한민국 고교학점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pazLkBxW3cc0RxffYYEMQ6Zrr8Cmk3iF6j0mKhOL2k/edit?usp=sharing>

특목고/자사고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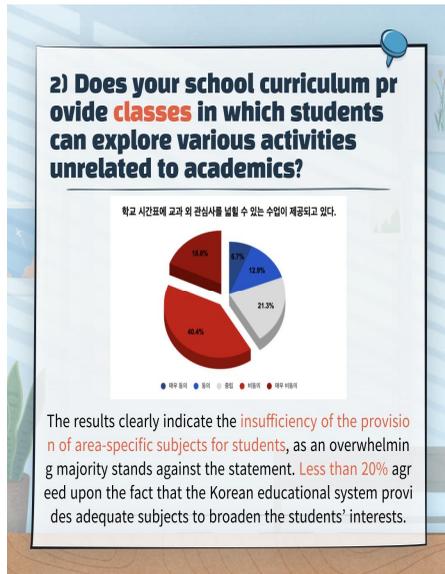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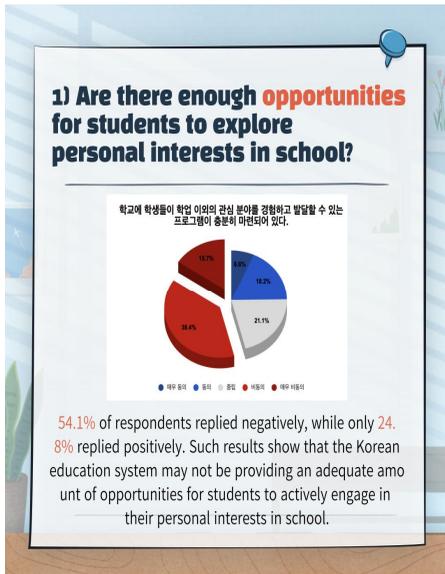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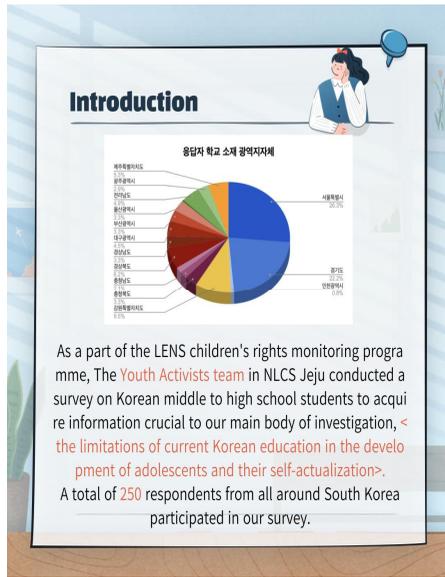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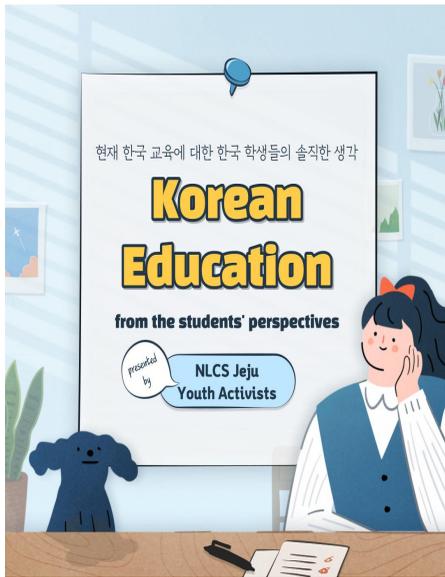
<https://docs.google.com/document/d/16yhKdST7JsXog6UZ5WxG8XMoEI-lh9EpRAvGWX59e0U/edit?usp=sharing>

문제점을 바꾸기 위한 노력

<https://docs.google.com/document/d/1u1vyMixyWyJHChBCuu6zT1woxAfLF2SWMevjGLwRENS/edit?usp=sha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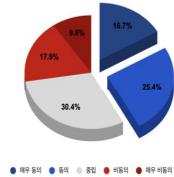
통계자료 모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ylgG1DOBGmWh10hidbbXSfTzd95Usq-w3pkc\\_E\\_qpl/edit](https://docs.google.com/document/d/1MylgG1DOBGmWh10hidbbXSfTzd95Usq-w3pkc_E_qpl/edit)



### 3) **career counseling** with teachers is readily accessible to stud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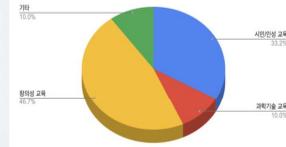
학교 내 선생님들과 진로 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진다.



the chart suggests that the guidance counselling is not so concerning compared to other aspects like extracurricular opportunities or students' well being. However, the high percentage of neutrality (30.4%) and the fact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wo opinions is not large does not ensure students' adequate provision for career counselling.

### 4) What is the most urgently need ed **addition** to Korean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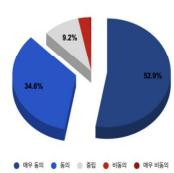
학교 교육에서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교육은 무엇인가?



46.7% of the respondents believed that education designed to develop **creativity** is most urgently needed in Korean schools. 33.2% agreed that **character education** should be promoted, implying that schools are currently only focusing on academic matters. The results overall suggest that the students feel that they are unable to acquire skills needed when they become adults in their current education system.

### 5) Do you agree with the claim that Korean education is a form of **"in doctrination"** only aimed at **university entrance te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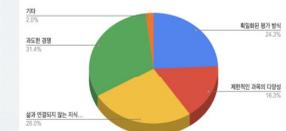
대한민국의 교육은 대학 입시를 위한 주입식 교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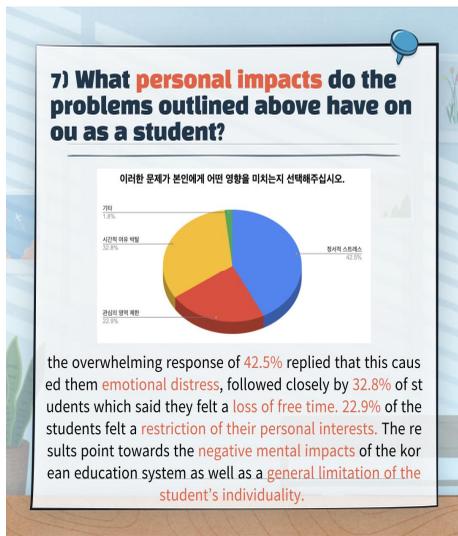
87.5% of respondents agreed, and 52.9% strongly agreed. It demonstrates that most Korean students feel a lot of pressure on the current Korean curriculum, and illustrates the limits of Korean education that inculcates in students that admission into a good university is the only goal.

### 6) What do you think the biggest **problem** with the **current Korean education system** is?

동리 혹은 매우 동리한 경우, 본인의 교육 과정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선택해주시요.



The two major problems the students addressed were that the Korean education system, requiring learning by rote, **created excessive competition** (31.4%) and that the **curriculum at school was distant from skills applicable to real life** (26.6%). This response not only shows the amount of pressure students are coping with due to extreme competition, but also that the current system **limits the chances of developing creativity and gaining skills applicable to real life**.



We, the **Youth Activists**, will continue our endeavour in making sure that the voices of students like ourselves are heard. Thank you to everyone who participated in our survey, and this information will be well-contributed towards our ongoing children's rights monitoring programme.

**Given to you by:**

- Hailey Kim
- Keonji Kim
- Wendy Lee
- Regis Yang
- Christine Kim
- Elena Shin
- Yoonkyo Kang
- Nancy Lee

- Ellen Ki
- Angela Lee
- Juyeon Ma



# 캔틴스쿨 LENS

LENS	김민석, 김은총, 김해영, 권성은, 신선아, 한준희
코디 네이터	제하나

활동주제	
공동주제	사이버(온라인)상에서 아동이 마주하는 폭력
권역주제	건강장애 아동이 학교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어려움

## 모니터링 활동

Step1. 주제선정 및 계획세우기
<p><b>1. 주제선정 이유</b></p> <p>‘캔틴스쿨’의 아동들은 백혈병 및 소아암으로 인해 학교수업을 병행하기 힘든 학생들을 위한 학습 공간에 모인 학생들이며, 건강장애 아동들이 복귀하는 과정에서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기 힘들어 학습권을 누리지 못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 공통적으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선정하였습니다.</p> <p><b>2. 계획세우기</b></p> <p>9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역 주제를 정하고 조사 대상과 방법에 대한 논의를 거칠 것입니다. 또한 조사 방법에 따른 질문 내용을 구상할 예정입니다.</li> </ul>

10월

- 조사(설문, 인터뷰)를 실시하여 도출된 결과를 정리하고, 그 결과를 카드 뉴스와 문서로 제작하여 SNS(캐틴스쿨 블로그,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각 병원학교, 지역별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아동들이 마주하는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예정입니다.

### 3. 조사대상 및 방법

- 대상: 캐틴스쿨 재학생(13~18세) 및 건강장애 학생들
- 방법: 설문조사, 인터뷰 진행

## Step2. 1차 모니터링단 회의

1. 회의 일시 : 2022년 9월 21일

2. 회의 방식 : 온라인 회의

3. 회의 장소 : 줌(zoom)

4. 회의 참여자 : (아동) 김민석, 김은총, 김혜영, 권성은, 한준희, (코디네이터) 제하나

5. 회의 내용 :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하고 잘 해낼 수 있는 주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의 질문으로 유도하였습니다. 참여아동 모두 백혈병 혹은 소아암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거나, 받았던 아동들이었기에 ‘건강장애’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큰 틀을 잡았고, 아동들또한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를 학교 복귀와 관련된 주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통해 실태를 알아볼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건강장애 학생들의 어려움에 대해 통계를 내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인터뷰 질문을 선정하여 보다 더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Step3. 2차 모니터링단 회의

1. 회의 일시 : 2022년 10월 5일 (+10월 11일)

2. 회의 방식 : 오프라인 회의

3. 회의 장소 : 캔틴스쿨

4. 회의 참여자 : (아동) 김민석, 김은총, 김해영, 권성은, 신선아, 한준희,  
(코디네이터) 제하나

5. 회의 내용 :

①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질문을 선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체적인 질문들은 코디네이터의 의견을 통해 정했으며, 객관식 질문의 답이 될 내용들은 아동들의 의견을 통해 선정하였습니다. (나이, 성별 제외)

1. 최초 진단 당시 나이
2. 현재 외래진료 여부
3. 외래진료 주기
4. 학교 재학 여부
5. 일반학교 재학 여부
6. 현재 학습 상태
7. 주 등교 횟수
8. 복귀 과정 중 어려움을 겪었는지
9. 어려움을 겪은(혹은 겪지 않은) 이유
10. 복귀 과정 중 도움이 필요한 부분

② 건강장애 아동의 실태조사를 위해 아동들에게 기사를 찾아올 수 있도록 미리 과제를 내주었고, 2차 회의를 통해 각자가 찾아온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2021.10.12. 기사) 국내에 병원학교가 개교한지 22년이 되었다. 2020년 3월 기준 전국 33개 병원에서 병원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학생만 425명에 달한다. 건강장애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병원학교는 최근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문을 닫는 곳도 나오고 있다. 이에 병원학교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와 병원학교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5년 법 개정을 통해 건강장애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로 포함되어 병원학교 수업을 통해 출석일수를 인정받는 등 학습권은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수업공간과 교육 인력 부족, 재정 부족 등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

- (2021.12.06. 기사) 모 국회의원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으로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강 장애 학생은 전국 1785명이다. 그동안은 현행법에 병원학교 학급 설치, 운영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어 담당 인력 지원 및 학교 복귀를 위해 필요한 심리적, 정서적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은 미비했다. 대전장애인인권포럼 부대표는 “장애의 정도, 유형에 따라 세분화된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행법은 아직 미비한 수준”,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건강장애 아동에게 정말로 힘이 될 수 있는 정서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22.10.02. 기사)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장애아동과 가족들이 차별받지 않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제안해주신 학부모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장애아동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022.02.08. 기사)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모 과장은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원격 수업 시스템 구축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모 의원은 “중증장애학생들을 위한 원격수업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팀을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경기도 공립대안학교인 이천 새울학교나 추진중인 신나는 학교와 같은 건강장애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원격수업 시스템을 갖춘 공립대안학교 건립도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③ 캠프스쿨의 경우, 본 활동이 끝난 후에도 동아리로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아동들이 동아리에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아리의 이름을 선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의견들 중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캔닷(can do it)동아리로 이름을 정하였습니다.

#### Step4. 활동결과 및 아동 제안

##### 1. 공통주제 (사이버상에서 아동이 마주하는 폭력)

- 스스로 사용을 조절하기 힘든 아동들을 위해 애초에 섯다운제와 클린 서비스를 좀 더 강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2. 권역주제 (건강장애 학생이 복귀 과정에서 마주하는 어려움)

- 힘든 치료 과정으로 인해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학습이 부진한 건강장애 학생들을 위해 학교마다 자체적으로 교내 생활 도우미를 배정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일반 학생들 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소아암 및 백혈병 교육을 실시하여 인식 개선과 건강장애 아동에 대한 이해도를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Step5. 활동소감(LENS, 코디네이터)

- **김민석:** 이번 활동을 통해 모르고 있던 사실들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시도하는 활동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부뚱하다.
- **김은총:** 아동인권 모니터링을 하면서 인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었다. 건강장애 학생의 어려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얘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
- **김해영:** 투병을 하면서 불편한 점이 개선 되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스스로 직접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행동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 활동으로 내가 다른 환아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했다고 생각하니 매우 부뚱하다.
- **권성은:** 아동 인권 교육을 들으며 건강 장애 학생들에 대해 보다 더 많이 알 수 있었다.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건강 장애로 인한 학교 복귀를 해본적은 없어 어려웠던 점과 고민되었던 점들이 있었다. 함께 참여했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건강 장애 학생이었고, 학교 복귀에 대한 고민을 직접 나눌 수 있었다면 더 많은 활동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 것 같은 아쉬움은 남지만, 건강 장애로 인해 학교를 복귀하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그들의 불편함에 대해 알 수 있어 재밌었던 활동이었다.
- **신선아:** 나 또한 건강 장애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잘 몰랐던 사실을 동아리를 통해 알 수 있었고, 아동 인권에 대한 부분도 이번 동아리를 통해 알 수 있어서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다.
- **한준희:**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서 아동인권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고, 서로 알고 있는 내용을 공유하며 토의할 수 있어서 좋았다. 활동 중 설문조사의 질문을 정하던 과정을 통해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다.
- **제하나 코디네이터:** 처음 담당 선생님께 코디네이터를 제안받으며 아동들을 이끌어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다행히 아동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었고, 전공을 공부하며 배웠던 설문조사 질문 구성 등을 활용하여 아동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한편으로는 다행이기도 했다. 참여 아동들과 함께 아동의 인권에 대해 직접 조사하고 통계하여 분석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정말 좋았던 것 같다.

### Step6. 활동사진 및 활동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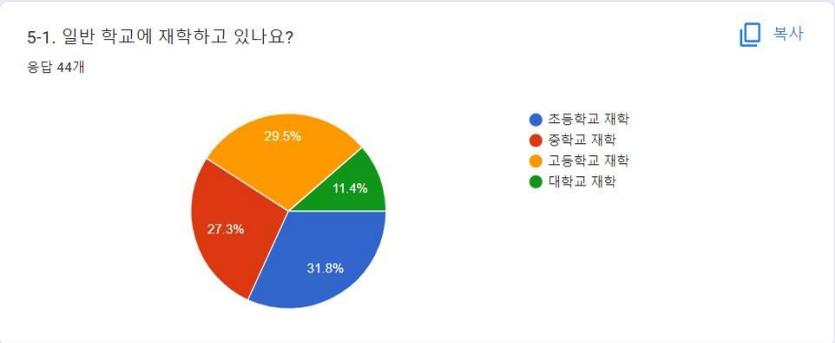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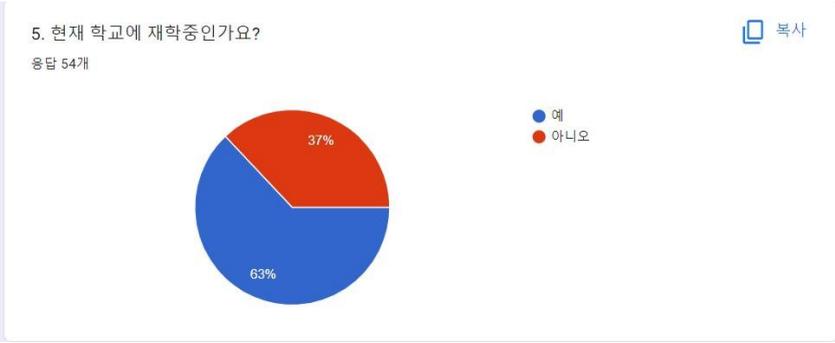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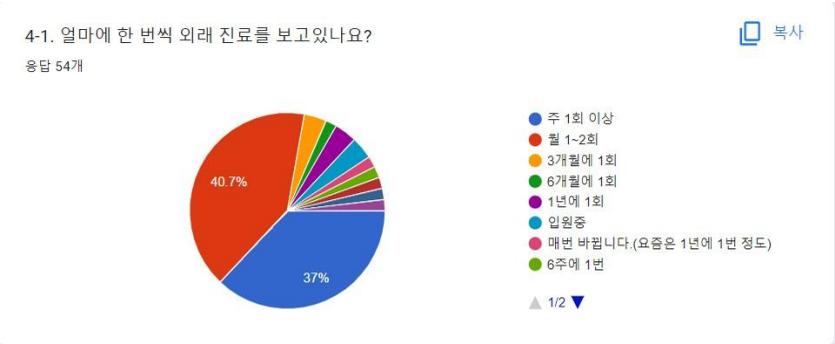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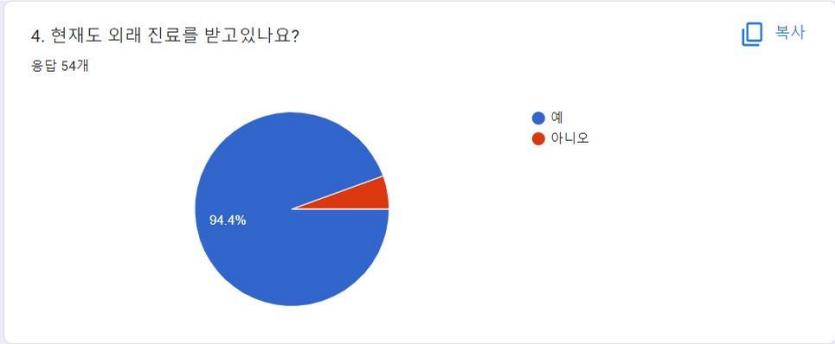


3. 백혈병 혹은 소아암을 최초로 진단 받았을 때의 나이는 몇 살이었나요?

복사

응답 5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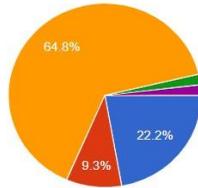




6. 현재 학습 상황은 어떠한가요?

복사

응답 5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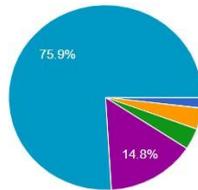


- 초/중/고/대학교 재학중
- 휴학중
- 온라인 학습중 (스클포유, 풀맛무지개, 꿈사랑 등)
- 온라인수업&원적학교수업 병행
- 학교랑 스클포유

6-1. 일주일에 학교를 몇 번 가나요?

복사

응답 5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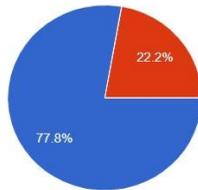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등교하지 않는다 (온라인 수업만 수강)

7. 학교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나요?

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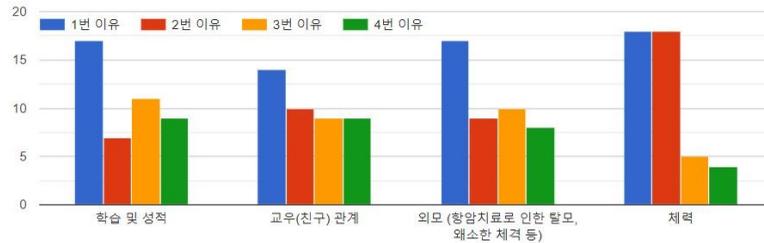
응답 54개



- 예
- 아니오

7-1. 어려움을 겪었다면, 어떤 이유가 가장 컸나요? (가장 큰 이유부터 순서대로 체크해주세요)

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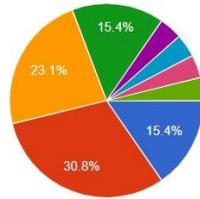


## Step

7-2.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사](#)

응답 2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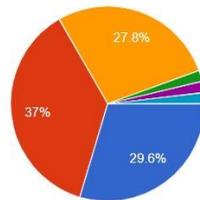


- 자습을 통한 지속적인 학습
- 친구들과의 꾸준한 교류(연락)
- 백혈병 및 소아암 관련 기관의 프로그램 및 지원
- 병원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 제가 조중학생때부터 계속 다녀서 조딩 때문 줄 있었고 지금은 없는것 같습니다.
- 그다지 상관 안할 것 같아서
- 어렵습니다.
- 고등학교를 입학전에 진단후 지속적으로...

8. 학교를 복귀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복사](#)

응답 54개



-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아암 및 백혈병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및 이해도 상승
- 체력 저하 및 학습 부진을 위한 교내 생활도우미 배정
-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 (녹화 강의 혹은 실시간 온라인 수업 병행 등)
-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건강장애에 대한 인식 및 이해가 필요해...
- 끝맛은 출석을위한 수업이라 부족함을...
- 통학을 위한 교통카드가 있다면 힘든...



---

---

# 04

---

## 제언

---



## 제언

2022년 아동 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LENS는 ‘사이버(온라인) 상에서 아동이 마주하는 폭력’(공통 주제)을 주제로 최근 수년 사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폭력과 관련한 모니터링을 진행했으며, 예년과 마찬가지로 지역별 LENS단이 자율적 토의를 통해 권역별 주제를 선정해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 1. 권역별 모니터링

올해 LENS단은 전국 16개 지역에서 모집해 활동을 진행했으며, 이와 함께 비차별성 강화 차원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건강 취약)이 함께했으며 이 점은 특히 의미를 갖는다.

권역별 모니터링의 경우, 아동의 정치적 참여 및 인권 보장, 놀 권리와 문화 시설 등을 포함한 여가권, 현재 교육 제도의 문제 등과 관련한 주제로 모니터링과 캠페인 등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학교 밖 청소년과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 장애아동이 학교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어려움 등 아동 권리 보장과 관련해 이전보다 주제면에서 한층 다양해졌다. 또한 사이버 폭력과 관련해서도 미성년자 유해 사이트 노출에 대한 규제나 SNS가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언어 사용의 문제) 등 아동의 시각에서 공통 주제를 보다 구체화한 주제로 모니터링을 진행한 지역도 있었다.

올해도 코로나19 등으로 지역별로 LENS 단원 모집 일정이 차이가 남에 따라 전체 LENS 단원이 참여하는 오프라인 발대식이 개최되지 못했으며, 몇몇 지역에서는 별도의 발대식이 진행되었다. 온라인으로 논의가 진행될 경우, LENS 단원 간, 코디네이터와 원활한 소통에 있어 일정 부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올해

는 지역별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임을 적절히 섞어서 운영함으로써 관련한 소통 문제가 줄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권역별 주제는 정책적인 문제와 관련한 경우, 관련 법 제도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자료 수집이 진행되었다. 특히 조사 아동들의 주로 활동하는 지역과 공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개선에 대한 적극적 정책 제안도 이뤄졌는데, 연령별로 장소와 지역적 범위가 다른 점을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과 4대 기본권에 대한 사전 교육과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 권리 보장에 대한 문제 제기나 무관심하기 쉬운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개선을 위한 구체적 문제 제기에 모니터링을 집중한 점도 올해 활동의 큰 수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아동 인권 당사자 모니터링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대학 입시에서 수학능력평가 점수의 반영 강화 등으로 참여 아동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점이나 실제 모니터링 활동 기간이 부족한 점은 한계이자 극복해야 할 과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 기간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와 정부, 학교 단위에서 아동 인권 당사자의 모니터링 중요성을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사업 기간의 확대 운영을 통해 참여 아동 모집 기간을 늘려 홍보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무엇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견해 존중을 위해 아동들의 회의와 모니터링, 캠페인 등의 활동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공통 주제 모니터링(설문 조사)

연구 결과 논의를 바탕으로 한 사이버폭력 관련 이론적,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폭력 피해 및 가해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성별 및 학교급, 그리고 폭력 유형과 폭력 공간(이용 서비스) 등 보다 세부적인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중학생들이 특히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에스크 등),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틱톡 등)를 통한 사이버폭력 피해와 경험을 많이 보고한다는 점, 온라인게임에서 남학생들의 가해와 피해가 많다는 점, 사이버 언어폭력, 명예훼손, 성폭력에서 여학생의 피해가 많다는 점, 메타버스에서는 초등학생의 피해가 많다는 점 등을 주목하여, 아동청소년의 개별 특성 및 인터넷 이용 행태에 따른 사이버 폭력 피해 및 가해경험을 이해할 수 있겠다. 정확한 실태 파악은 효과적인 대책 및 교육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실효성 있는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많은 아동들이 사이버폭력 관련 교육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받지 않았다고 보고하였고, 신고하거나 상담할 곳을 모른다고 응답한 아동이 안다고 응답한 아동보다 많았다. 아동들은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지만, 교육의 내용이 반복적인데다 수업과 같은 형태로 제공되어 지루하고 집중하기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핀란드는 2006년 학교폭력 방지 프로그램인 키바 코울루(KiVa Koulu)를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괴롭힘의 방관자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된 것으로,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위한 포괄적이며 전문적인 자료를 제공하며 학교 구성원들에게 이론을 교육하는 수준을 넘어 학생들과 함께 실행할 수 있는 토론, 협동과업 수행, 역할극 등의 총체적인 행동 패키지를 제공한다(김병찬, 2021). 키바 프로그램은 그 성과를 인정받아 해외 여러 나라로 수출되어 실행되고 있다. 국내 실정에 적합하되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아동들이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인터넷 사용 환경을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아동청소년 하위집단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성별, 학교급별에 따라 사이버교육의 강조점을 세분화하고, 개별아동에게 보다 관련이 깊은 예시와 상황을 제시하여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사이버폭력 예방 및 사후대처 과정에서 아동 주변의 사회적 관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부모-자녀 관계를 통하여 아동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가정에서 독려하고, 학교에서 교육 및 또래집단을 활용하여 사이버폭력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법을 배우고 연습해 보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교사도 단순히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사이버폭력 피해 혹은 가해가 발생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어른으로 함께 문제상황을 대처해 갈 수 있는 지지체계로서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아동들이 어른들을 믿고 신뢰하여 필요한 도움을 걱정없이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부모나 교사들이 사이버폭력 피해나 가해 발생 시,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고 대하기 보다, 아동들이 어떠한 마음인지, 그리고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이끌어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인식과 태도,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부모, 교사 교육도 필요하겠다.

넷째, 사이버폭력을 포괄하여 다룰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학교 내에서 아동 간에 발생하는 사이버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내 징계를 적용하고 있으나 성인이 가하는 사이버폭력은 유형에 따라 각자 다른 법률을 적용한다. 이로 인해 교묘한 형태로 위법적 구성요건을 피하는 경우 처벌이 어렵고, 새롭게 생겨나는 유형의 사이버폭력 처벌에도 법적인 한계가 있다(최진웅, 2022).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상 사이버폭력 피해기록물 삭제 등의 피해자 구제 조치 또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를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피해자 구제 조치가 지자체나 정부 부처의 의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개별법으로 분류하여 처벌하고 있는 사이버폭력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온라인 플랫폼의 아동 보호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사이버폭력 발생 공간으로 지목된 ‘에스크’ 서비스 중 국내에 업체를 둔 ‘Asked 익명질문’의 경우 이용약관에 청소년보호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로는 현재 접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국내 서비스인 ‘푸송 ASK 익명질문’은 메인화면에 유해성 질문을 차단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 담긴 약관이나 방침 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에스크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온라인 플랫폼은 각자의 규제 방침을 가지고 있으나 선제적인 조치보다는 신고 및 삭제 등 사후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온라인 플랫

폼 업체의 자율 방침일 뿐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상 가해자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사이버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플랫폼 내에 쉽게 이용 가능한 신고 기능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 이후 플랫폼 사업자의 사후 조치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

---

# 05

---

## 부록

---



# 모니터링단 월별 활동보고서(권역주제) 우수사례

## 사례1

### 월별 활동보고서(일반)

권역	경기1	성명	최○○
제출일		2022년 9월 22일	
활동주제	선거연령 하향을 통한 아동 참정권 및 인권보장		
현황 및 실태	현재 2022년 초,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가입 연령이 만16세로 하향. 그러나 교육현장과 일부 정당활동에 있어서 완전한 참정권 미보장의 현실에 마주하고 있음.		
활동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련기관에 제출할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기초적인 법령조사와 사실을 조사하였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1년 5월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서에서의 만16세 정당가입 연령 하향 의견 부분을 조사하였고 이 번년도 2022년 1월 개정의견의 요지가 반영되어 정당법이 개정됨, 그러나 미성년자의 정당가입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한 부분에서 완전한 참정권 보장이 아니라는 논란이 일어났었고 같은 1월 추가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나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1차 회의에서 결정한 선관위 및 관계기관에 전달할 의견서에 이러한 부분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명시하는게 적합하다고 봄 공직선거법 15조에 명시된 선거권 부분,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을 갖는다 라는 부분에서 1차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16세 이상(임의 기준) 국민은 교육감 선거에 한하여 선거권을 행사한다 부분을 추가하여 개정하고 관계법령을 동시에 수정하여 함께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명시하여 제출 하는게 적합하다고 봄		

이번 활동을 통해 느낀 점 및 건의사항	아동청소년들의 참정권 보장에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을 느꼈음.
다음 활동 계획 (구체적 작성)	기초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기본적인 의견서 초안 작성에 주력, 요지를 담은 의견서를 작성

## 사례2

### 월별 활동보고서(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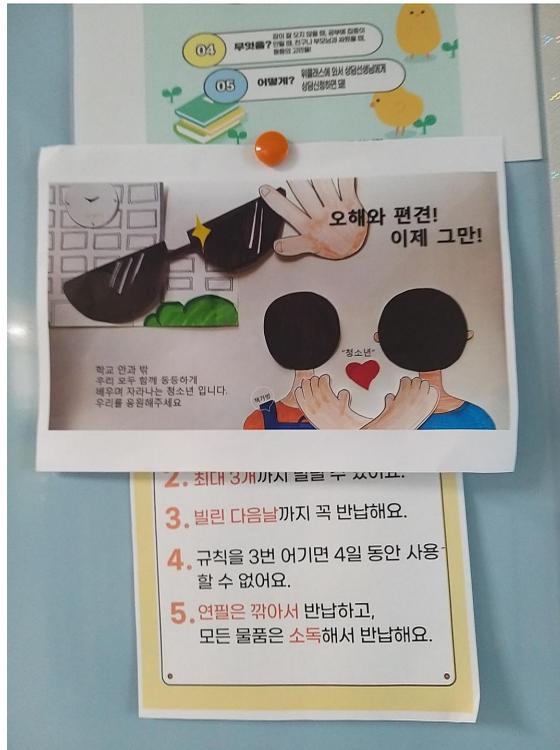
권역	경기2	성명	윤○○
제출일		2022년 10월 23일	
활동주제	학교 밖 청소년 문제의 인식 실태 및 현황과 지원방법		
현황 및 실태	<p>1차 활동을 통해 국내 학교 밖 청소년 문제의 실태와 원인 등에 대해 조사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각종 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뿐 아니라 심리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 교육부, 시·도 교육청, 그리고 각종 시행기관에서 그들을 위한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에 있지만,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어서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p>		
활동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b>[ II.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사업 (2) ]</b></p> <p><b>3. 시·도 교육청의 지원사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년 기준으로 11개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학업 중단 학생) 지원 사업 진행중</li> <li>1) 서울, 대구 강원도 -&gt;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인 '친구랑' 운영으로 교육 진로 정서 건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친구랑은 개인별 맞춤형의 학습,상담, 진로를 지원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 모두가 각자의 꿈을 실현하여 학교나 사회에 복귀하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보호하기(출처: 친구랑 홈페이지)</li> </ul> </li> <li>2) 서울시-&gt; 시범 사업으로 '교육참여수당' 지급 시행해서 만 9~18세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급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은 학교 밖 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교육복지요건을 조성하고자 함</li> </ul> </li> <li>3) 충청북도와 경상북도에서도 유사한 사업인 동행카드를 실시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만원씩 일년에 5회까지 충전해준다</li> </ul> </li> </ul>		

- 목적: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통비 식비등을 보태주기 위해서
- 그 이외에도 검정고시 및 진로진학 지원 건강검진 지원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중

#### 4. 시행기관 간 협업

- 학교, 시·도 교육청 그리고 한국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 등이 협력중임
- 각 학교에서는 학업 중단 1주이내내 교육청으로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여부를 고지하고, 교육청은 한국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의 꿈드림 정보망에 학교 밖 청소년 정보가 연계함
- 이후 그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개별적으로 연락함
- 결찰청은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여 학교 밖 청소년 정보를 연계함

#### [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 내용 - 너만의 포스터 제작하기 ]



<p>이번 활동을 통해 느낀 점 및 건의사항</p>	<p>학교 밖 청소년들도 보호 받아야 마땅한 아이들인데,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나라의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그들을 위한 더 효과적인 지원 정책들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다.</p>
<p>다음 활동 계획 (구체적 작성)</p>	<p>이번 활동으로 모니터링단 활동이 끝났지만,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다. 또한, 아동권리와 관련된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도 알아가고 싶다.</p>

### 사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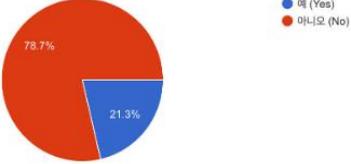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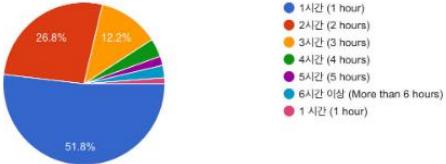
#### 월별 활동보고서(일반)

권역	전북	성명	장○○
제출일		2022년 9월 18일	
활동주제	아동학대의 종류와 예시를 들어 시민과 아동들에게 아동학대의 정의와 경각심을 부여하는 활동		
현황 및 실태	<p style="text-align: center;">아동학대 유형별 사례</p> <p style="text-align: center;">출처 : 보건복지부「아동학대 주요통계」</p> <p>해당 표와 같이 아동학대의 사례는 매년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2년 동안 약 7,000건의 신고가 증가되었다.</p>		
활동내용	<p><b>아동학대란?</b>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고 한다.</p> <p><b>아동학대의 종류</b>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신체적 방임, 식생활 방임, 의생활 방임, 주생활 방임, 도덕 및 교육적 방임, 성적 방임, 정서적 방임 )</p> <p><b>아동학대의 사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이 집에 늦게 들어오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부가 손과 발로 아동의 온몸을 때려 폭행(신체학대)</li> <li>·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세된 원생이 울며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억지로 음식을 먹이고 생각하는 의자에 앉게 함(정서학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이 영어 학원 차량을 놓쳤다는 이유로 학원에 가지 않자, 옷걸이로 팔, 종아리를 때리고 10분가량 양손을 들고 무릎을 꿇게 함(신체적·정서적학대)</li> <li>· 아내와 이혼 후 홀로 딸을 키우던 친부가 딸의 엉덩이와 배를 만지고, 가슴을 수차례 만지는 등 추행(성학대)</li> <li>· 친모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수개월간 집안 청소를 하지 않고 아동을 화장실 바닥에 용변을 보도록 하는 등 생활쓰레기가 가득찬 집에 방치</li> <li>· 친부가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주도로 데려간 후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고 pc방 등에 방치하는 등 교육적 방임</li> </ul> <p><b>방임의 예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몸이 더럽고 악취가 난다.(신체적 방임)</li> <li>· 나이에 비해 지나치게 키가 작고 말랐다.(식생활 방임)</li> <li>· 날씨에 맞지 않는 옷을 입혔다.(의생활 방임)</li> <li>· 사회 기반 시설의 노후로 인해 안정성이 결여된 장소에서 아동이 생활 한다.(주생활 방임)</li> <li>· 자주 지각하고, 욕을 해도 가만히 두고, 거짓말을 해도 내버려 둔다.(도덕 및 교육적 방임)</li> <li>· 성에 어울리지 않는 옷 차림을 한다.(성적 방임)</li> <li>· 매사에 무관심하고, 멍하니 있다. 깜짝깜짝 놀란다.(정서적 방임)</li> </ul>
<p>이번 활동을 통해 느낀 점 및 건의사항</p>	<p>평소 별관심없이 지나쳤던 아동학대에 대해 알게 되었다. 특히 도덕 및 교육적 방임의 사례는 내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서 놀라움을 금치 못 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와 훈육의 경계에 대해 의문이 생겨 조사했는데 명확한 경계를 찾을 수 없어서 아쉬웠다. 경찰에서 만든 아동학대 매뉴얼은 그저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며 당시의 상황, 아동학대 행위자의 전후 태도, 폭행의 정도나 신체적 강제력이 훈육의 목적이었는지 등을 보며 판단한다고 한다. 그래서 사건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부작용을 생각해보면 분명한 아동학대 매뉴얼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느꼈다.</p>
<p>다음 활동 계획 (구체적 작성)</p>	<p>앞서 활동한 내용을 토대로 아동학대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이를 토대로 캠페인 혹은 전시물로 시민과 아동에게 알릴 예정이다.</p>

## 사례 4

### 월별 활동보고서(일반)

권역	제주1	성명	차○○																						
제출일		2022년 10월 25일																							
활동주제	SNS 상에서 일어나는 아동 인권침해																								
현황 및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분석</li> <li>- 팸플릿 제작, 어셈블리 진행 계획</li> </ul>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번 활동 내용 :</li> <li>- NLCS에 재학중인 학생들 160여명에게 설문조사 진행</li> <li>- 그래프를 토대로 답변 분석</li> </ul> <p>본인이 생각했을때 자신은 인터넷 중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Do you consider yourself an Internet addict?)</p> <p>164 responses</p>  <table border="1"> <thead> <tr> <th>응답</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예 (Yes)</td> <td>21.3%</td> </tr> <tr> <td>아니오 (No)</td> <td>78.7%</td> </tr> </tbody> </table> <p>하루 평균 SNS 사용시간은 얼마인가요? (Average social media usage time per day)</p> <p>164 responses</p>  <table border="1"> <thead> <tr> <th>시간</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1시간 (1 hour)</td> <td>51.8%</td> </tr> <tr> <td>2시간 (2 hours)</td> <td>26.8%</td> </tr> <tr> <td>3시간 (3 hours)</td> <td>12.2%</td> </tr> <tr> <td>4시간 (4 hours)</td> <td>-</td> </tr> <tr> <td>5시간 (5 hours)</td> <td>-</td> </tr> <tr> <td>6시간 이상 (More than 6 hours)</td> <td>-</td> </tr> <tr> <td>1시간 (1 hour)</td> <td>-</td> </tr> </tbody> </table> <p>이번 활동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NS 상에서 일어나는 아동인권침해를 알리기 위한 활동 제시: 어셈블리 진행, 팸플릿 제작</li> <li>- SNS 자체로 인한 아동의 수면권, 학습권, 건강권 침해를 알리기 위한 활동(목차)</li> </ul>			응답	비율	예 (Yes)	21.3%	아니오 (No)	78.7%	시간	비율	1시간 (1 hour)	51.8%	2시간 (2 hours)	26.8%	3시간 (3 hours)	12.2%	4시간 (4 hours)	-	5시간 (5 hours)	-	6시간 이상 (More than 6 hours)	-	1시간 (1 hour)	-
응답	비율																								
예 (Yes)	21.3%																								
아니오 (No)	78.7%																								
시간	비율																								
1시간 (1 hour)	51.8%																								
2시간 (2 hours)	26.8%																								
3시간 (3 hours)	12.2%																								
4시간 (4 hours)	-																								
5시간 (5 hours)	-																								
6시간 이상 (More than 6 hours)	-																								
1시간 (1 hour)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인권이란 무엇인가</li> <li>- 소셜미디어의 특성,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li> <li>- 폰중독, 아동과 성인의 차이</li> <li>- 설문조사 결과 설명</li> <li>- SNS 과의존의 심각성</li> <li>- SNS 중독의 해결방안</li> </ul>
<p>이번 활동을 통해 느낀 점 및 건의사항</p>	<p>학생들의 답변을 분석해본 결과, SNS로 인해 침해되는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어셈블리를 통해 설문조사를 결과를 발표하고, 아동이 실질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수면권, 학습권, 건강권이 어떠한 형태로 침해되고있는지 알릴 수 있는 의미있는 활동이라고 믿는다.</p>
<p>다음 활동 계획 (구체적 작성)</p>	<p>어셈블리 발표 및 팸플릿 제작</p>

## 사례 5

### 월별 활동보고서(일반)

### (1차) LENS 활동보고서

권역	제주	성명	김 ○ ○	
제출일	9월 25일			
활동 주제	(권역 주제) 아동, 청소년의 자아 / 가치관 형성을 제한하는 교육제도 바꾸기			
활동방법	내용	장소	날짜	시간
	비대면 회의	zoom	9/5	1:00 ~ 1:30
	대면 회의	학교 교실	9/22	11:05 ~ 11:35
현황 및 실태				
활동 내용	<p>- 9월 초 : 다소 범위가 넓게 해석될 수 있던 주제를 더욱 세분화해서 위 결정된 주제로 확정, 모니터링 방법 및 활동 계획 세우기</p> <p>9/22 회의 : 설문조사 대상 확정 ( 한국교육 시스템 상의 중·고등학생 ), 각각 말을 카테고리화 설문지 문항 나눈 다음 질문 확정</p>			
이번 활동을 통해 느낀 점 및 건의사항	<p>주제를 확정짓기까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다, 아무래도 모니터링의 핵심은 설문조사인데 학생으로서 대다수의 대상에게 배포하기 어려운 관계로 설문조사의 원활한 배포에 있어서 공식적인 전문 도움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p>			
다음 활동 계획 (구체적 작성)	<p>설문조사 배포, 추가적인 인터넷 조사, 대상에게 국민청원/건의 사항 만들기, 청소년활동 홍보를 제작, 인터뷰 등</p>			

## 사례 6

### 월별 활동보고서(일반)

권역	충북	성명	김○○, 이○○, 안○○
제출일		2022년 10월 23일	
활동주제	아동의 참여권: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수업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각자의 적성에 맞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자율 시간표 정책을 제안		
현황 및 실태	학급 친구들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한솔초의 경우 비교적 자유로운 시간표를 운영하고 있어 만족하는 학생들의 상당수 존재하였으나 그 외 학교의 경우 현 수업 방식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답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었음.		
활동내용	<p>9월 모임에서 정한 인터뷰 질문을 바탕으로 학급 친구들에게 인터뷰를 진행 후 그 내용을 공유했습니다.</p> <p>10월 모임 당시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은 카카오톡을 통해 인터뷰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p> <p>Q.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업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p> <p>다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한다. 쉬는시간에 비해 수업시간이 너무 길다.</li> <li>- 우리학교는 정말 좋다고 생각한다. 초등학생땐 골고루 해야한다고 생각한다.</li> <li>- 우리학교는 좋다고 생각한다.</li> <li>- 현재 수업방식에 불만이 있다.</li> <li>- 잘하고 있다. 아직은 쉬는 시간에 대해 만족 중이다.</li> <li>- 별로다. 체육이 2개밖에 없고 너무 불공평하게 진행된다 (불공평= 5학년은 2박3일인데 6학년은 당일치기고 5학년은 에버랜드 갔는데 우리는 도자기 하러 감)</li> </ul> <p>미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명중 4명은 괜찮다, 적절하다고 답했고 1명은 조금 힘들다고 답했습니다.</li> </ul>		

서진

- 만족스럽다.
- 수업 내용이 너무 복잡하다.
- 수학이 너무 많아 불만스럽다.
- 배우고 있는 내용이 너무 어렵다.
- 체육이 너무 많아 불만스럽다.

지상

- 수업 시간이 45분인 건 너무 긴 것 같다.
- 창체 시간이 있지만 담임 선생님의 과목과 관련된 공부나 게임을 하거나 교장선생님 연설을 들어야 해서 재미가 없다.
- 자유시간이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휴대폰을 하거나 영상으로 된 연설을 듣는 것이 재미가 없어 다들 좋아하지는 않는다.

Q. 자율 시간표를 시행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는지

다해

- 자유시간이 시간표에 들어가면 좋을 거 같다고 생각한다.
- 자유시간때 체육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 자유시간이 시간표에 들어가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으로 진행된다면 좋겠다.
- 체육시간 한교시만 더 주면 좋겠고, 재밌게 놀면서 진행된다면 좋겠다.
- 자유롭게 본인 적성맞게 진행된다면 좋겠다.

미진

- 상관없이 해도 괜찮다 (2명)
- 학생들끼리 모여 동아리처럼 활동하면 친목에 더 좋을 것 같다.
-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서진

-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원하는 대로 시간표를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재미있는 과목 위주로 수업을 듣고 싶다.
- 각 반에서 투표로 시간표를 정하고 싶다. (단체 시간표)
-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수업을 듣고 싶다.

지상

- 수업 중 1시간 정도 자유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 자유시간을 동아리처럼 운영했으면 좋겠다.

+ ) 해당 인터뷰에 대한 지상 학생의 의견 추가

운호중의 경우 월요일을 제외하면 마지막 교시를 동아리 시간으로 운영 중이다. 애니메이션 동아리, 국악 동아리, 바느질 동아리 등 학기 초에 한 번씩 결정한다. 하지만 만족도는 낮게 나타나는데,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은 E스포츠 등 몸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동아리별로 인원 제한이 있어 가위바위보에서 지면 원하지 않는 동아리를 들어야 한다. 그림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림 동아리에 든 친구들도 있어 동아리 자체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공유한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LENS 모니터링 단원들과 추가 논의를 진행함

- ▶ 그렇다면 현재의 비효율적인 동아리 시간에 어떤 활동을 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나요?

지상

- 대체로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림을 그리고 싶은 친구들을 분류해 미술 선생님에게 보낸다던지 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신청자가 적은 동아리는 폐기하고 몰리는 동아리를 한 두반 정도 더 개설하는 게 나올 것 같다.

- ▶ 한솔초도 창체 시간이 존재하나요?

미진

- 창체 시간이 존재한다. 2주에 한 번 학생들이 원하는 걸 2시간 정도 진행하는데 40분 수업 중 1,2교시를 전부 동아리 시간으로 제공한다. 학생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은 편이다.

▶ 창체시간에 무얼 하길래 학생들에게 반응이 좋은가요?

미진

- 선생님께 옛날에 했던 놀이들을 배운다. (고무줄놀이, 비석 치기 등...) 그림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그림 동아리 만들어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요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나 학부모님께 도움을 받아 요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서진

- 한 주는 동아리를 하고 한 주는 창체로 밖에 나가서 논다. 미진의 말처럼 전통놀이를 많이 배운다.

▶ 운동중에 비해 한솔초가 창체나 동아리 활동 면에서 자유롭고,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아 보여요. 두 학교 간 동아리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을까요?

미진

- 한솔초의 경우 동아리 별 인원 제한이 없고 우리가 원하는 동아리를 우리가 직접 개설하고 친구들을 모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불이나 칼처럼 위험한 것을 사용하는 동아리만 (요리 동아리) 활동 시 담당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이 도와주시고, 그 외 홍보 등은 전적으로 학생들이 진행한다.

지상

- 운호중도 학교에 건의해서 동아리를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기는 했지만 개설된 동아리들이 빠르게 다시 없어졌다. 댄스 동아리도 그렇고, 유도에 관심이 있는 편이라 유도 동아리를 개설하고자 여쭙어 보았는데 선생님들이 유도는 위험한 만큼 전문적인 강사나 관장님을 불러올 수 없어 진행이 어렵다며 기각되었다. 한솔초의 경우 기타 활동에 대해 앞서가는 것 같아 보인다. 기회가 많아 보여 부럽다.

서진

- 선생님들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걸 배우는 게 진짜 공부라고는 하지만 너무 많이 노는 것도 같다는 생각도 든다. 저의 경우 밖에 나가서 노는 것을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한다. 공부를 너무 하지 않는 것 같으며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기도 한다.

	<p>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복지사님 말씀 첨언            - 한솔초가 공모 교장선생님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타 학교에 비해 외부 활동이나 기타 활동에 적극적인 편이다.         </p> <p>           Q. 이런 방식으로 시행하면 수업이 더 재미있어질 것 같은지?         </p> <p>           다해            - 정말 놀면서 수업하면서 하면 자유시간이 있어도 좋을 것 같다.            - 자유시간표를 시행하면 불만사항이 없어질 것 같다         </p> <p>           미진            - 5명 모두 재미있어질 것 같다고 이야기함         </p> <p>           서진            - 모두 그럴 것 같다고 답함         </p> <p>           지상            - 모두 그럴 것 같다고 답함         </p>
<p>           이번 활동을 통해 느낀 점 및 건의사항         </p>	<p>           Q. 친구들 인터뷰를 진행해보니 어땠나요?         </p> <p>           &gt; 미진: 친구들이 잘 모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친구들 쪽에서 이런 인터뷰가 쉽지 않다보니 흔히 있는 기회가 아니라 저도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p> <p>           &gt; 서진: 친구들이 생각보다 답변을 잘해줘서 좋았고 협조도 잘해주어서 좋았습니다.         </p> <p>           &gt; 지상: 처음엔 인터뷰라면 장난처럼 받아들이는데 한 단체에서 한다고 이야기하니         </p> <p>           Q. 보답을 하는대신 알려달라고 하여 화가 나긴 했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특별한 건의사항이 있을까요?         </p> <p>           &gt; 대부분 잘 대답해 주었지만, 일부 인터뷰를 부담스러워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인터뷰라는 단어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p>
<p>           다음 활동 계획 (구체적 작성)         </p>	<p>           11월 28일 발표 안지상, 이서진, 김미진 학생 참가            11월 중 발표 준비를 위한 모임이 용암복지관에서 이루어질 예정.            공결처리 방안, 인솔자 지정(용암종합사회복지관 측과의 협업을 통해 복지사분께서 아동들 발표 장소까지 인솔 예정) 및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발표 준비 예정         </p>

## 사례 7

### 월별 활동보고서(일반)

권역	캔틴스쿨	성명	김○○
제출일		2022년 10월 23일	
활동주제	건강장애 아동이 학교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어려움		
현황 및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 전 소아암, 백혈병 황우의 생존율 50% 남짓. 현재 80%정도.</li> <li>- 건강장애학생이 학교 복귀 했을 때 다른 일반 학생에 비해 신체기능과 적응유연성 떨어짐.(성별, 질병명 및 유형, 학교급, 교육배치, 질병 이환기간의 변인에 따라 차이 남.)</li> </ul>		
활동내용	<p>설문조사 질문 구성을 위해 서로 자신의 경험과 만약 자신이 학교에 간다면 어떤 점이 불편할지 생각하여 의견을 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장애 학생의 실태조사를 위해 동아리원 한 명당 기사나 논문 등을 2개 씩 찾아와 수치화 되있는 내용이나 중요한 내용들을 찾고 공유하고, 기록하였다.</li> </ul>		
이번 활동을 통해 느낀 점 및 건의사항	<p>처음에는 단순히 '내가 학교로 복귀한다면 어떤 불편함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질문들로 설문조사를 구성해야 설문조사에 응해주는 학생들의 공감을 사고, 불편함과 거리감을 느끼지 않고 설문조사에 응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의 경험에서 나온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설문지가 잘 만들어져서 뚜렷한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p>		
다음 활동 계획 (구체적 작성)	설문조사 진행과 결과도출 및 공유		

## 2022년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 인쇄일 | 2022년 11월  
| 발행일 | 2022년 11월  
| 발행인 | 송 두 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http://www.humanrights.go.kr>  
| 전 화 | 아동청소년인권과 02)2125-9643  
| F A X | 02)2125-0929  
| 제 작 | (주)두루행복한세상 (070) 4659-0803

ISBN 978-89-6114-923-5 93330

비매품

# 2022년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12층 침해조사국 아동청소년인권과  
TEL.02-2125-9644 FAX.02-2125-0929 [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

ISBN 978-89-6114-923-5 93330